

KEONIN FRANCE RANGE

매향리 쿠니사격장

우수건축자산 이야기

KOON-NI BOMBING RANGE

매향리 쿠니사격장

(a u r i) 건축공간연구원



1990년 9월 10일 매항리 쿠니사격장을 지키는 한국 전투 경찰대원들의 모습

출처: 미국 국립문서보관청(NARA) 홈페이지, <https://catalog.archives.gov/id/6459039>(검색일: 2021.10.8.)



1990년 10월 9일 매항리 상공에서 폭격훈련 중인 전투기 모습

출처: 미국 국립문서보관청(NARA) 홈페이지, <https://catalog.archives.gov/id/6459044>(검색일: 2021.10.8.)



1984년 4월 1일 육상 폭격훈련 모습

출처: 미국 국립문서보관청(NARA) 홈페이지, <https://catalog.archives.gov/id/6388392>(검색일: 2021.10.8.)

LOCKHEED MARTIN

KTRAC-WEST

KOON-NI RANGE

✓	Police Box(경찰초소)
	Fishing Union(어촌계)
	Rok Army Platoon Headquarter(현역소대)
	Security Guard(경비원)
	Boat Operations/VM(경비정/차량정비)
	Maintenance Shop(사격장 유지 및 보수)

WEEKLY SCHEDULE

DAY	OPEN	CLOSE/(A/S)
MON (19)	0830	2230
TUE (20)	0830	2230
WED (21)	0830	2200
THU (22)	0830	2200
FRI (23)	0830	2200
SAT (24)	N/A	N/A
SUN (25)	N/A	N/A



미군 철수 후 수거한 사격장 출입 금지 안내판
출처: 전만규 제공



2000년 5월 13일 동아일보 동아희평에 게재된 쿠니사격장 관련 만평

AGREEMENT TO PERMIT FARMING

영농 허가에 따른 협정서

SUBJECT: This document specifies conditions for the farming of the
 재목 본 서부는 이그 한이 농민에 의해 -쿠니-257 전용 지역의 영농
 exclusive use area "A" of SA-KOON NI-257 (Koon-Ni Range) by local
 농민을 명시함이다.
 Korean farmers. The land covered by this agreement does not include
 이 협정에 의한 토지는 영농, 도로, 폭탄 반출 지역과
 the compound, roads, ordnance impact area, safety areas, and any other
 쿠니 사격장 주요 임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어떤 다른 지역도 포함되지 않는다.
 areas required to conduct the primary mission of Koon-Ni Range. The

6. Safety considerations are paramount. No entry will be allowed
 안전 고려가 최우선이다.
 after range operations until an explosive ordnance disposal
 폭발물 처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출입을 금지하며, 폭발물 처리
 examination is completed. Any foreign object or ordnance will be
 검사. 어떠한 외국 물체 또는 폭발물은 즉시 보고한다.
 immediately reported to detachment personnel for corrective action.
 파견대 요원에게 즉시 보고한다.
 No deviations from safety procedures are authorized.
 안전 절차로부터 편차를 허가하지 않는다.

7. Farmers will, at the request of Det 1, 51 TFW, remove debris
 농민은 제51 전술 전투 비행단 제1 파견대의 요청이 있을 때 농작물
 incidental to farming operations within a reasonable time as
 농업에 따른 잔여물 유물들을 합당한 시간 내에 제거할 것을
 determined by Commander, Det 1, 51 TFW.
 파견대장에게 결정된 시간 내에 제거한다.

8. The Commander of Det 1, 51 TFW, and the village chiefs of Mae
 제51 전술 전투 비행단 제1 파견대장과 매향 1, 2, 3 마을의 사령관 또는
 Hyang villages #1, #2, and #3, as evidenced by their signatures below,
 유권자가 각각 이 협정을 명시한다는 통지의 서명을 하고 이 협정서에 서명해야 한다.
 sign this agreement acknowledging the receipt thereof and their
 intention to honor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covers the period
 of 1 March 1990 through 28 February 1991.
 1990년 3월 1일부터 1991년 2월 28일까지 유효하다.

Jah Chub
 Commander, Det 1, 51 TFW
 제51전술전투비행단 제1파견대장

20 Mar 1990
 Date
 날짜

Village Chief, Mae Hyang #1
 매향 1마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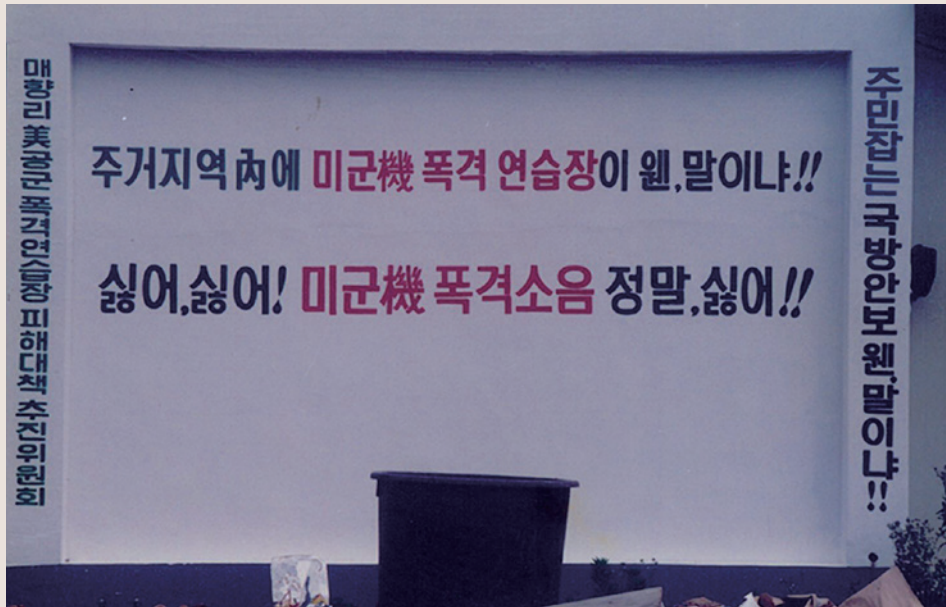
金應壽
 Date
 날짜
 1990. 3. 20.

Village Chief, Mae Hyang #2
 매향 2마을장

李
 Date
 날짜
 90. 3. 20

Village Chief, Mae Hyang #3
 매향 3마을장

李江深
 Date
 날짜
 1990. 3. 20



매항리 쿠니스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문구

출처: 전만규 제공



매항리 쿠니스격장 폐쇄 및 반환 시위 모습

출처: 전만규 제공



1990년 9월 10일 농섬의 모습

출처: 미국 국립문서보관청(NARA) 홈페이지, <https://catalog.archives.gov/id/6459046>(검색일: 2021.10.21.)

목차

들어가며	16
------	----

이규철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문화자산센터장

우수건축자산 이해하기	24
-------------	----

I 매향리 쿠니사격장의 역사	30
--------------------	----

이세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

II 쿠니사격장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억과 의미	48
------------------------------	----

전만규 매향리평화마을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용한 매향리 미공군국제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III

쿠니사격장, 우수건축자산으로서의 주요 가치

96

이연경 인천대학교 연구교수

IV

쿠니사격장,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보전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과정

152

김웅기 화성시청 지역개발과 주무관, 박민수 팀장

김기웅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주무관

V

쿠니사격장, 우수건축자산으로서의 전망과 과제

190

이규철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문화자산센터장

쿠니사격장 사진

200

들어가며

우리 주변에는 지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거나 지역 주민의 삶의 흔적이 남아 있는 오래된 건물이나 시설들이 존재한다. 근대화 시기에 도시의 기반시설로 지어졌던 공장, 발전소, 철도역과 창고, 교량 등이 있고, 조금 더 가까운 동네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마주하는 시장, 학교, 주택, 상점 등이 있다. 문화재로 보존할 정도는 아니지만 지역의 시민들에게는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고 지역의 역사를 알려주는 장소이기도 하다. 국가에서는 이처럼 지역의 소중한 장소를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건축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¹ 건축자산 제도를 통해 지역의 오래된 건축물 등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률이다.

건축자산 제도에서는 역사적, 경관적, 예술적, 사회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자산에 대해 지자체에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여, 보전과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별 건축물이나 시설을 건축자산으로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한옥 등 건축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우수건축자산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현재 전국에 12곳의 우수건축자산이 등록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11곳, 경기도 1곳이다. 아직은 건축자산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어떤 것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을 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건축공간연구원의 건축문화자산센터는 2017년에 설립되어 중앙정부의 건축자산 정책과 지자체의 건축자산 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 우수건축자산의 소개와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2019년에는 서울시 우수건축자산 1호인 ‘체부동 성결교회’의 보전과 활용을 소개하는 단행본 「건축자산 활용이야기 : 체부동 성결교회, 주민의 생활문화 공간으로」를 발간하기도 했다.² 이 책은 서울시의 첫 우수건축자산인 체부동 성결교회의 건축적 특징과 교회 건물을 생활문화지원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기획, 설계, 운영 등을 소개하고 있다. 건축자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이 우수건축자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고, 여러 지자체에서 이 책을 참고하여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체부동 성결교회’는 서울시에서도 첫 우수건축자산이었기 때문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고 활용의 기획, 건물 리모델링 설계와 시공, 마지막으로 운영자를 공모하여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른 지자체에서 우수건축자산을 등록하고 활용한다면, 아마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시행착오를 겪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건축자산 활용이야기 : 체부동 성결교회, 주민의 생활문화 공간으로」는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절차와 기획, 설계, 운영의 ‘잘된 점’을 중심으로 모범사례 소개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선행의 시행착오 경험까지 담아내지는 못했다. 그래서 2021년 건축문화자산센터에서는 우수건축자산의 등록과 활용 과정을 보다 구체적

2 건축문화자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https://aac.auri.re.kr/boards/board_view?cid=42&id=976(검색일: 2021.10.21.)



『건축자산 활용이야기 : 체부동 성결교회, 주민의 생활문화 공간으로』 표지

으로 소개하고, 등록과 활용의 과정에서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도 공유할 수 있는 단행본을 기획하였다.

우수건축자산이 전국에 12곳 밖에 되지 않아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우수건축자산의 등록과 활용의 구체적인 과정을 담을 수 있는 사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문제를 공유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는다는 취지에는 공감에 되더라도 막상 당사자가 되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경기도 화성시의 ‘매항리 쿠니사격장’³에서 건축문화자산센터의 취지에 공감하고 의미있는 결심을 해 주었다. 매항리 쿠니사격장은 2016년 6월에 우리나라 제1호로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이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면서 주목을 받으며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이 되었지만, 이후 보전과 활용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대상지가 워낙 거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아픈 기억을 담아 내야 했기 때문에 서둘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 우수건축자산의 등록과 활용에서 보면, 행정의 주관기

3 ‘매항리 쿠니사격장’은 경기도 우수건축자산 제1호의 등록 명칭이다. 이 명칭에 대해서는 미군이 오해한 고온리의 지명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격장이 아닌 폭격장의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이 책의 2장에서 자세히 설명되었다. ‘쿠니사격장’ 명칭의 변경 주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 근거에도 동의가 되지만, 이 책에서는 행정기록상 등록 명칭인 ‘매항리 쿠니사격장’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저자들과 합의했다.

관으로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에서 우수건축자산의 등록과 현상변경 등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소유자인 화성시에서 활용 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 두 지자체가 건축문화자산센터와 협력하여 매향리 쿠니사격장의 우수건축자산 등록과 활용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소중한 경험을 모두의 경험으로 공유하는 데에 기여이 동의 해 주었다. 화성시와 경기도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매향리 쿠니사격장은 우리나라 서해안에 면한 작은 어촌 마을이었는데, 한국전쟁 무렵부터 주한 미군의 전투기 폭격장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매향리 주민들은 인명과 건물 등에 폭격의 직접 피해를 입었고, 전투기와 폭격의 소음 피해에도 수십년간 시달리게 되었다. 주민들은 1988년부터 항의와 시위로 피해보상과 폭격장 폐쇄를 요구하였고, 2005년 마침내 폭격장이 폐쇄되었다. 폭격장 폐쇄와 함께 미군에서 국방부로 부지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화성시는 이 부지를 평화생태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화성시는 경기도와 협력하여 2016년에 일부 건물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였고, 2018년에 부지 소유권이 화성시로 이전되었다.

매향리 주민들의 수십년에 걸친 폭격장 반환운동이 없었다면 지금의 매향리 쿠니사격장은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주민들의 희생과 노력에 무한한 경의를 드린다. 화성시는 폭격장이 국방부로 반환된 이후 꾸준히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화성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향리 쿠니사격장을 우수건축자산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평화생태공원의 기본방향과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우수건축자산의 가치를 확인하고 물리적인 건축요소를 보존하거나 활용하는 방법을 기획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2021년 현재는 평화기념관을 준공하고, 잔존건물 리모델링과 조경 계획 등이 진행되어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우수건축자산으로서 쿠니사격장이 주민들의 아픔과 기억을 온전히 담아내는 보전과 활용의 공간으로 충실하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건물의 활용 계획과 실행, 지속적인 콘텐츠 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다. 쿠니사격장의 보전과 활용은 지금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건축문화자산센터에서 기획하고, 화성시와 경기도가 적극 협력하여 만들어지게 되었다. 국책연구기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함께 진행한 흔치 않은 특별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매항리 쿠니사격장에서 주민들의 노력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대표와 시민운동가가 집필에 동참해 주셨고, 우수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자산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였다. 이밖에 화성시에서 매항리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 진행한 「매항리의 역사·문화, 현대사 백서」, 우수건축자산의 기록화사업으로 진행한 「매항리 쿠니사격장 존치건축물 기록화조사보고서」, 우수건축자산의 활용을 위한 설계 작업으로 진행된 「쿠니사격장 리모델링 설계 용역」⁴ 등을



매항리 쿠니사격장 전경(2021.11.14.)

4 설계용역은 (주)아이엠건축사사무소에서 2021년 11월까지 진행 예정이다.

통해 쿠니사격장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매향리 쿠니사격장의 우수건축자산으로서 보전과 활용 과정을 소개하기 위해, 이 책은 다섯 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집필되었다. 제1장은 매향리 쿠니사격장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와 배경에 대한 내용으로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문화자산센터의 이세진 연구원이 집필하였다. 이세진 연구원은 쿠니사격장이 우수건축자산의 등록과 활용에 있어 선형 사례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이 책의 기획과 집필진 구성을 비롯하여 편집과 디자인까지 실무를 담당하였다. 매향리 쿠니사격장의 역사에 대한 다양한 문헌 조사를 통해 작은 어촌 마을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의미있는 장소로 변화되어 온 과정을 설명해 주었다.

제2장은 쿠니사격장에 대한 지역 주민의 기억과 의미를 다루고 있으며, 전만규 매향리평화마을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과 김용한 매향리 미공군국제폭경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이하 위원장)이 공동으로 집필해 주었다. 전만규 위원장은 쿠니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를 수십년간 직접 경험한 당사자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시위와 소송 등을 주도하였으며 현재는 매향리 역사기념관을 운영하며 쿠니사격장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김용한 위원장은 매향리 쿠니사격장을 비롯하여 미군기지의 폐쇄와 반환을 위한 시민운동을 해왔으며, 매향리 주민 인터뷰를 통해 매향리 쿠니사격장의 피해를 알리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용한 위원장에게는 매향리 백서 작업을 진행한 성공회대의 소개로 집필을 부탁하였는데, 전만규 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집필할 수 있다고 하여 두 분이 함께 집필에 참여하게 되었다. 2장은 전만규 위원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오랜 기간 경험한 끔찍한 피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상처와 기억을 공간에 담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주었다. 전만규 위원장과 김용한 위원장은 모두 쿠니사격장의 폐쇄와 반환을 위한 투쟁사의 중심에 있었고, 이 때문에 재판과 투옥까지 겪은 생생한 증인이다. 특히 전만규 위원장은 반평생 동안 쿠니사격장의 피해를 경험하였고, 이로 인한 트라우마를 지금도 겪고 있는 중에도 생생한 증

언을 들려주었고 그동안 수집해 온 소중한 자료도 협조해 주었다. 전만규 위원장과 김용한 위원장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제3장은 우수건축자산으로서 쿠니사격장의 가치를 다루고 있으며, 인천대학교 이연경 교수가 집필하였다. 이연경 교수는 19세기 말 이후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도시와 건축이 겪은 근대화와 식민화의 과정을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도시환경, 건축의 측면에서 깊은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건축학자이다. 최근에는 미군 반환기지의 보전과 활용에 대해 연구와 실천 활동을 해 오고 있어, 특별히 쿠니사격장의 건축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 집필을 의뢰하였다. 3장에서는 쿠니사격장의 배치와 공간적 변천 과정, 건물의 연혁과 군사시설로서의 특징 등을 상세하게 밝혀 주었다. 이를 통해 쿠니사격장의 주요한 가치를 기술하였고, 이러한 가치의 규명은 쿠니사격장의 보존과 활용 대상 선정 및 방법론으로 연계될 예정이다.

제4장은 쿠니사격장의 우수건축자산 등록과 보전 및 활용의 정책 추진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화성시의 박민수 팀장, 김웅기 주무관, 경기도의 김기웅 주무관이 함께 집필하였다. 화성시는 2005년 폭격장 폐쇄 이후 국방부로 이관된 부지를 매입하여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16년 동안 안전행정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등 여러 기관과 수많은 협의를 진행해 왔고, 사업 추진을 위해 수십 차례의 용역을 발주하였다. 화성시의 담당자도 수차례 바뀌었지만, 김웅기 주무관은 그간의 경과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주요한 단계와 현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경기도는 우수건축자산의 등록과 현상변경에 대한 행정 절차를 처리하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수건축자산을 등록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우수건축자산의 행정 절차를 만들어 가며 실행하였다. 김기웅 주무관 역시 2016년부터 전임자들이 진행한 수많은 행정 절차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설명해 주었으며, 최근의 현상변경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화성시의 김웅기 주무관과 경기도의 김기웅 주무관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우수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의 절차는 지자체에서 건축자산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참고가 될 만하다. 모든 지자체를

대신하여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세부 절차를 마련해 준 것이니, 이제
는 각 지자체에서 가장 효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제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우수건축자산으로서 쿠니사격장의 전망과 과제
에 대해 건축문화자산센터 이규철 센터장이 집필하였다. 쿠니사격
장이 그동안 겪어온 우수건축자산의 등록과 활용의 과정에 대해 평
가하고,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우수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에는 정답이 없다. 개별 건축자산의 여
건에 따라, 가치를 조사하고 가치의 확인을 통해 보전과 활용의 방법
을 결정한 후에 실행에 옮기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이 중요
하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쿠니사격장 역시 정답이 아니고, 프로세스
를 참고할 사례이다. 우리 주변의 새로운 우수건축자산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 쿠니사격장의 경험을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문헌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매항리의 역사·문화, 현대사 백서. 화성시.

화성시. (2021). 매항리 쿠니사격장 존치건축물 기록화조사보고서.

우수건축자산 이해하기

건축자산이란?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로 지정 및 등록된 대상은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자산의 가치를 보전·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2014년 6월 3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되었다.

건축자산과 문화재가 가치가 있는 대상을 보전하고자 하는 목적은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문화재가 대상의 원형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과 달리, 건축자산은 대상의 가치와 의미를 보전하되 현재의 쓰임에 맞는 변화를 수용하면서 지속적·적극적인 활용을 장려한다.

건축자산의 대상 및 범위

건축자산의 대상	상세 정의	근거법
건축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창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공간환경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
기반시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우수건축자산이란?

「한옥등건축자산법」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해 우수건축자산을 등록할 수 있다. 우수건축자산은 「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수건축자산의 가치’로서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예술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방치될 경우 그 가치가 멸실 또는 훼손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기준

구분	가치 내용
1. 역사적 가치	가. 역사적 사건·인물 등과 관련 있는 것 또는 역사발전의 증거가 되는 것 나. 용도와 외관이 우리나라의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
2. 경관적 가치	가. 개별 건축물의 심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특정 범위 안에 모여 있는 건축물들이 고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것 나. 오래된 도시조직을 유지하여 독특한 경관을 이루는 것 다. 건축물과 공간환경 등이 주변과 어우러져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는 것
3. 예술적 가치	가. 건축미 및 건축기술 등이 조성 당시의 건축적 특징을 대표하는 것 나. 건축적 디자인, 장식 또는 기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 다. 저명한 설계자·기술자 등과 관련 되었거나 공인된 시상 제도 등을 통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
4. 사회 문화적 가치	가.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나.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있어 해당 지역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 다. 지역적 특수성을 갖추거나 집단의 기억을 되살려주어 지역문화 진흥에 도움이 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외에 보전, 활용을 통하여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우수건축자산 신청 대상 및 방법

우수건축자산 등록은 해당 건축자산의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한옥등 건축자산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4호의 양식인 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재지 광역지자체의 건축자산 담당 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이때에는 신청서 이외에도 해당 건축자산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헌자료 및 시각자료, 기타 설명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 건축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명 또는 기관명	생년월일
	주 소	
등록 신청대상	(전화번호:)	
	명칭	
	유형	[] 건축물 [] 공간환경 [] 기반시설
	용도 [실내·외도]	
	소재지	
	구조형식 [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목조 등]	
	규모	대지면적 (㎡) 연면적 (㎡) 기타 규모를 표시할 수 있는 수치
건축면적 (㎡)	건축연적 (㎡)	
	층수 (지상/지하)	
등록신청 사유	[신발인이 생각하는 대상의 주요 가치]	
그 밖의 사항	[연락/소유자의 변화/관리자의 변화 등 특이사항]	

위와 같이 「건축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귀하

<p>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자산에 관한 원천자료 및 시각자료 2. 건축 등 자산에 관한 설명자료 <p>가. 「건축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출자료,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 나. 가액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가치를 열실 또는 훼손 위험이 있는지 여부</p> <p>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대장 2. 용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수 수 접 수 함
---	-----------------------

처 리 결 처

신청서 작성	접 수	등록여부 검토 (건축위원회 심의 등 포함)
→	→	→
신청인	처리기간 (시·도지사)	처리기간 (시·도지사)
		결정사항 통지 (시·도지사)

210mm×297mm(복합지: 80g/㎡) 또는 종결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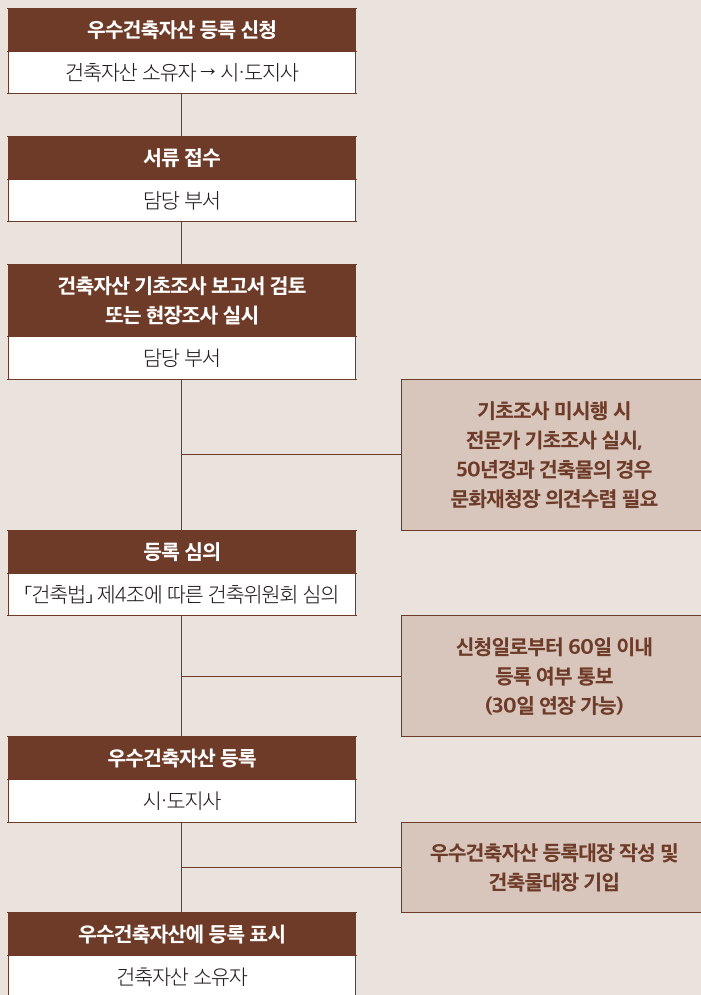
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양식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4호 서식

우수건축자산 등록 절차

소유주가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신청하면, 담당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건축자산의 현황을 확인한다.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여부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되고, 소유자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이 결정되면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게 되고, 건축물대장에 우수건축자산에 등록된 사실이 기록된다.

우수건축자산 등록 절차



우수건축자산 지원 및 관리사항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주가는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를 하거나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소유주는 우수건축자산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수리관리에 필요한 기술, 관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우수건축자산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증·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차장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한 규정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우수건축자산으로서의 주요 가치를 유지하며, 주변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고 도시의 미관과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 법령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사항

구분	관련 법률	조항	내용
전부 또는 일부 완화 가능	건축법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42조	대지의 조경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53조	지하층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제59조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4조	승강기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9조의2	부설주차장의 설치계획서
기준 또는 성능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완화 가능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3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우수건축자산 이야기)

I

매향리 쿠니사격장의 역사

01 고온리

고온리의 유래

경기도 수원의 연혁「인문지리」행정 등을 수록하여 1831년 편찬한 지방지인 「화성지(華城志)」에 따르면, 쿠니사격장이 위치한 현재의 매향리는 조선조 중엽까지는 가을오지(加乙吾地)로 불리던 것이 변해 가로지(可老地)라고 불리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 후기 연암(燕巖) 박지원이 청나라를 다녀올 때 현재의 매향리를 지나며 ‘노후에 낙향하여 살만한 땅’이라고 했다고 하여 부르게 된 것으로 전하기도 한다.

조선조 말에는 행정구역상 압정면(鴨汀面) 고온리(古溫里) 또는 고온포(古溫浦)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예부터 주민들 인심이 좋고 이웃과 화목한 생활을 하는 마을의 분위기가 반영되었다는 이야기와, 지형적으로 해안에 위치하여 따뜻한 기후 특징이 반영되어 고온포 또는 고온리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현재의 매향리(梅香里)라는 지명은 일제강점기 이후의 기록자료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초기에는 행정명칭 분류상 현재의 매향1리와 5리를 고온리로 분류하고 나머지를 매향리로 분류했으나, 모두 합쳐 매향리로 통일되었다.¹

¹ 화성문화원 홈페이지(www.hsc.or.kr)의 지명유래 정보,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pp.38~41.)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1872년 수원부지도(水原府地圖)에 기록된 농도(塋島) 표시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水原府地圖』(奎10360)

풍요로운 어촌마을 매향리

지역 명칭의 변화와 유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현재의 매향리, 과거의 고온리는 살기 좋은 풍요로운 마을이었다. 지역의 주민들은 옛 고온포를 통해 바다 건너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성구미 포구 및 안섬 포구, 장안면 장안나루, 남양 궁평리 등 인근의 포구를 오가며 조·어업에 종사했다고 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1927년 언론기사에서 고온포 인근의 수원군 우정면 조암리에 풍부한 어획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장허가원을 내주는 내용이나, 1949년 언론 기사를 통해 고온포에 있는 양식장의 풍부한 굴 채취량을 다룬 것 등에서 볼 수 있다.²

또한, 매향리 지역주민들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지형적 특징으로 갯벌에 사는 각종 해산물 채취와 양식, 소금 생산 등을 주업으로 삼은 것 이외에도, 구룡지를 논과 밭으로 개간하여 쌀 경작도 부업으로 삼았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으로 경제활동이 용이한 만큼 과거부터 매향리 일원에는 전주 이씨와 천안 전씨의 집성촌이 자리하였다. 1957년 「경기도지(京畿道誌)」의 집성촌 조사기록에 따르면 약 250~300여 년 전부터 두 성씨가 정착하여 집성촌을 이루었고, 전주 이씨 137호, 천안 전씨 20호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³



출처: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2017, p.80.)

2 동아일보 신문기사(1927.6.21.), (1949.10.31.)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3 경기도지(1957),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2017, p.54.)에서 재인용하였다.

02

KOON-NI 사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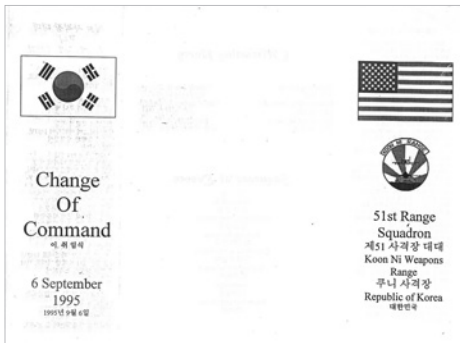
미군 전용
폭격훈련장 설치

그러던 어느 날 매항리 어촌마을 해안으로부터 약 1.6km가량 떨어진 농섬을 향해 미군들의 갑작스러운 폭격이 시작되었다. 현재까지도 매항리 일원에 사격장을 설치한 배경과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문서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당시의 기록 자료와 관련자들의 구술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매항리 마을주민과 미군 부대 근무자의 구술기록에 따르면 “1951년 여름부터 별도의 통보 없이 폭격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공식적으로는 1955년 2월 19일 「한·미 행정협정(SOFA)」 제2조에 근거한 ‘폭격훈련장’ 설치에 대한 문서기록이 확인된다.⁴ 그밖에도 1995년 미군에서 발행한 ‘게어리 더블유 러셀 소령(Major Gary W. Russell)의 취임식 초청장’에서 쿠니사격장은 한국전쟁 시 폭탄 투기장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1955년 창설되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초기에 매항리 쿠니사격장은 약 63ac(약 254,952㎡)의 사격장으로 파견대가 사용해오다가 1992년 4월경부터 제51사격장대대 작전단산하에 소속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95년에는 사격장의 규모가 약 5,000ac(약 20,234,282㎡)의 상당한 규모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윤충로(2014, pp.17-18.)

설치 배경과 관련해서는 당시 협상 과정에 참여했던 전일성씨의 구술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일본 이와쿠니에 있는 미군기지 내 사격장이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 문제로 폐쇄될 상황에 놓이자 이를 화성시로 이전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고 한다.⁵ 일본 이와쿠니 미군기지 내 사격장은 전투 조종사가 자격을 얻기 위해 기록사격을 하던 장소로, 이는 쿠니사격장이 보통의 미군기지시설이 아닌 미공군의 사격 및 폭격 훈련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공간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실은 1995년 초청장의 ‘쿠니사격장은 완벽하게 채점할 수 있는 최고의 A급 사격장을 제공한다’라는 문구를 통해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매향리 쿠니사격장은 2005년 8월 폐쇄 및 국방부로 관리전환을 확정하기 이전까지 약 54여 년 동안 미군사령부 산하 대한민국 주둔 제7공군 소속 미군 전용 폭격훈련장으로 사용되었다. 쿠니사격장에서 사격 및 폭격 훈련은 보통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이뤄졌으며, 특별 훈련 기간에는 24시간 진행된 것을 몇몇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다.⁶ 1998년 공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주간 훈련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야간 훈련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에 걸쳐 실시했으며, 하루 평균 11회 이상, 1회 평균 18분가량의 훈련이 이



1995년 발행한 미공군 소령 취임식 안내 초청장

출처: 전만규 제공

5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2017, pp.108~109.)

6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2017, p.118.)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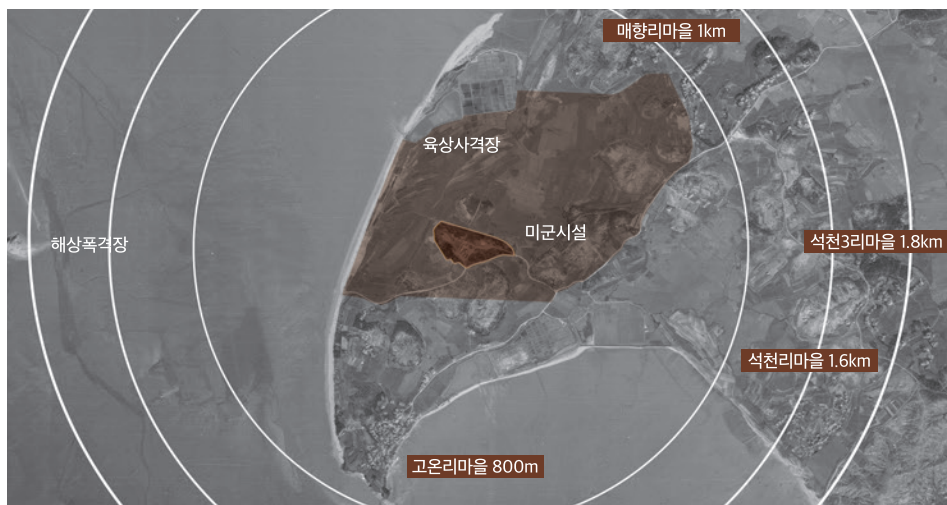
어졌다고 한다. 하루 평균 3.3시간 이상 훈련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⁷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훈련 기록도 발견된다. 1998년 7월 28일 쿠니사격장 훈련 일지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폭격 및 사격훈련이 연이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훈련은 짧으면 30분에서 길면 1시간 간격으로 쉼 없이 이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일지에서는 하루에 총 17차례의 훈련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온종일 들리는 폭격 소리가 매항리 주민들을 얼마나 큰 불안에 떨게 했을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DAILY RANGE UTILIZATION LOG			KOON-NI RANGE		DATE 28 JUL 98	
TIME PERIOD	USER	CALL SIGN	TIME ON	TIME OFF	TYPE# ACFT	REMARKS
0930-1015	80 FS	SHADOW 31-32-33			F-16	
1015-1100	35 FS	SKULL 31-32-33-34			F-16	
1100-1115	15 CW	HYDRA ALPHA 1-2-3			O-2	26-41-31 3XTREX
1115-1130	"				O-2	
1130-1145	046N					
1145-1230	25 FS				A-10	CAN, SET SALSOC
1230-1300	25 FS	PLASMA 71-72			A-10	
1300-1330	25 FS	MISTY 21-22			CA-10	
1330-1415	36 FS	RACER 01-02			F-16	
1415-1500	80 FS	COBRA 21-22			F-16	
1500-1545	35 FS	TROLL 11-12-13-14			F-16	
1545-1615	15 CW				O-2	
1615-1715	246N				UH-60	
"	1520N				HELO	ADD-ON, SPOD TRCC
1715-1800	36 FS	RACER 01-02			F-16	
1800-1845	36 FS				F-16	CAN, 607 CES/DOJA
1845-2045	710N				UH-60	CAN
"	1520N				HELO	ADD-ON, SPOD TRCC
2045-2100	36 FS	WILLY 01-02			F-16	SEE 14000 SCHEDULE.
(2015)						
CONVENTIONAL RANGE CLOSURE TIME						1845

1998년 7월 28일 기록된 쿠니사격장 미공군 훈련 일지

출처: 전만규 제공

매항리마을을 둘러싸고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평화로운 어촌마을 주민들의 일상을 파괴하였다. 특히 고온리마을, 매항리마을, 석천리마을, 석천3리마을 모두 쿠니사격장 인근 2km 이내에 위치하는 것을 1966년 당시의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일 예고 없이 수시로 진행되는 사격과 폭격 훈련은 인근 매항리마을 주민들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1966년 쿠니사격장 인근 마을 분포

출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작성

KOON-NI Bombing Range

당시 미군 전용 폭격장이 설치된 곳은 매항1리와 5리 일대, 고온리로 불리었던 지역이다. 이를 미군이 영문으로 KOON-NI라고 쓰고, 영어 발음상 부르기 편한 방식으로 잘못 불리면서 ‘쿠-니’ 사격장이 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국립문서보관청(NARA)이 소장한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의 지도에서 고온리 지명을 KOON-NI라고 표기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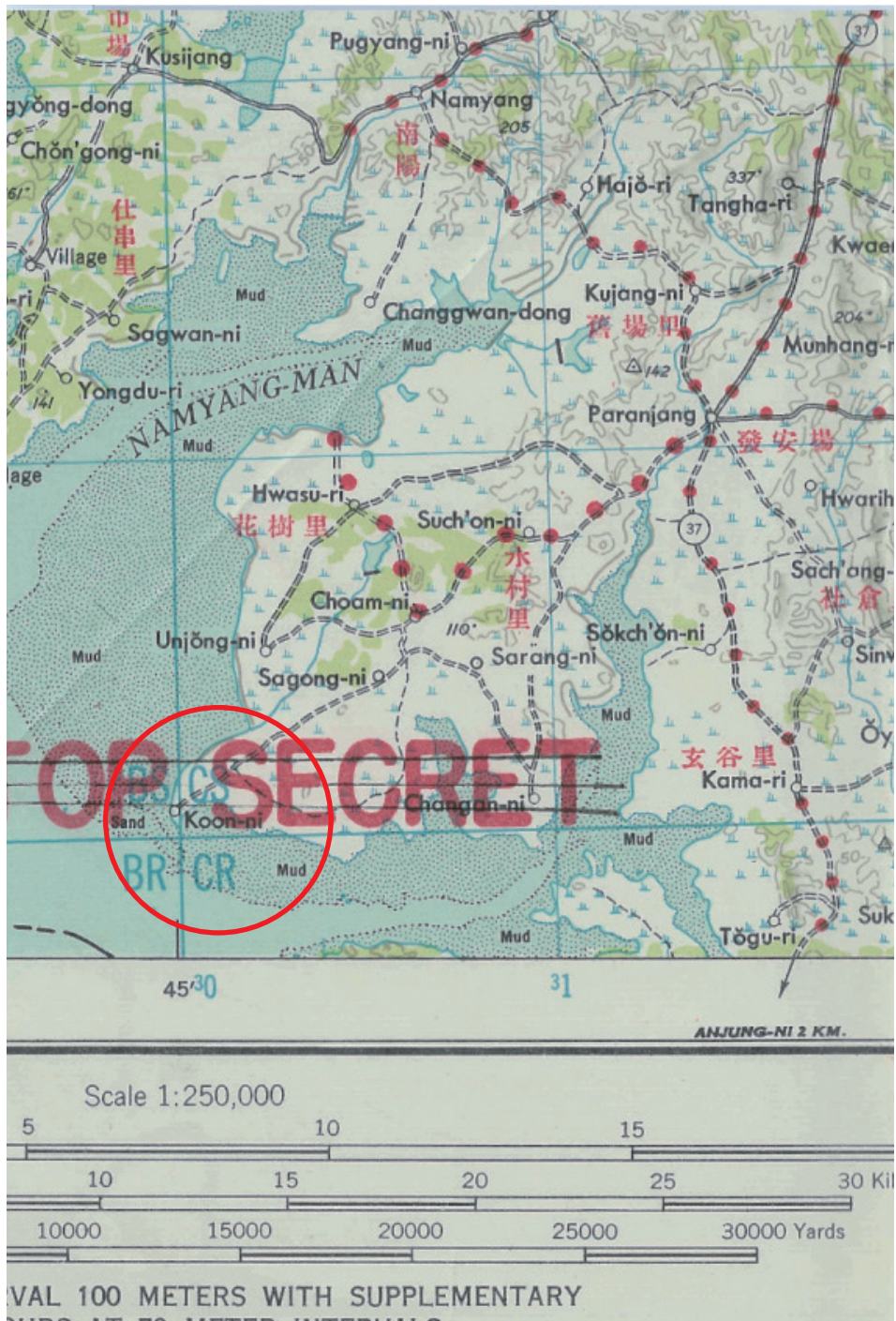
1984년에 사용된 쿠니사격장 엠블럼

출처: 미국 국립문서보관청(NARA) 홈페이지,
<https://catalog.archives.gov/id/6388389>
(검색일: 2021.12.10.)



쿠니사격장 표지판

출처: 전만규 제공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미군 지도

출처: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2017, p.319.)

03

우수건축자산, 매항리 쿠니사격장

사격장 폐쇄 및 관리전환

54여 년 동안 미공군 전용 폭격장으로 사용되었던 쿠니사격장은 1988년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폐쇄 요구와 시위에 결국 2005년 8월 폐쇄되었고, 국방부로의 관리전환을 확정하였다. 2009년 9월 화성시는 쿠니사격장 반환기지 내 지장물의 철거공사를 착수하기 이전에 역사적 가치와 장소적 상징성이 있는 건축물 6동(위병소, 카페 및 체력단련실, 사격통제실, 헬륨저장소, 장교막사, 숙소 및 식당), 초소 6개소, 기지정문 안내판 및 내·외부 울타리 등의 공작물 3개소를 존치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하였다. 이를 통해 쿠니사격장 본래의 모습을 일부 남길 수 있었다.

본래 쿠니사격장에는 현재 남아있는 건축물 이외에도 조립식 판넬구조의 사무실(1동), 막사(1동), 샤워실 및 탈의실(2동), 차량정비소(1동), 작업장(1동), 창고(2동), 시멘트 블록구조의 막사(1동), 작업장(1동), 창고(2동), 기계실(1동) 등 13동의 건물과 초소(6개소), 물탱크(1개소), 유류탱크(5개소) 등의 시설물 12개소가 추가로 존재하고 있었다.

건축물대장 정보 현황

건축물 기본정보						
주소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항리 184-1 외 7필지					
면적	대지면적	23,852㎡	연면적	949.09㎡	건축면적	926.53㎡
건축물 명칭	군사시설		주용도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물 수	6동
건축물 현황	주구조		지붕		층수	용도
S-2	시멘트블록구조		슬레이트지붕		1	군사시설 (위병소)
S-20	시멘트블록구조		슬레이트지붕		1	군사시설 (장교막사)
S-5	시멘트블록구조		슬레이트지붕		1	군사시설 (숙소, 식당)
S-9	시멘트블록구조		슬레이트지붕		1	군사시설 (카페, 체력단련실)
T-10	시멘트블록구조		슬레이트지붕		1	군사시설 (헬륨저장소)
사격 통제실	시멘트블록구조		슬레이트지붕		3	군사시설 (사격통제실 초소)

출처: 건축물대장 총괄표를 바탕으로 정리



반환기지 지장물 철거공사 이전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배치 모습(2008)

출처: 화성시청 제공



S-2



S-20



S-5



S-9



S-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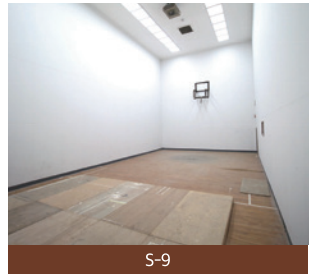
S-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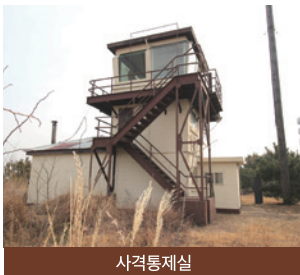
S-9



S-9



S-9



사격통제실



사격통제실



사격통제실

쿠니사격장 내 준치 건축물 현황

출처: 화성시청 제공

우수건축 자산으로 등록 및 보전활용

매항리 쿠니사격장은 폐쇄 이후 국방부로 관리 전환된 사격장의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에 대해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1여 년에 걸쳐 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화성시가 참여하여 여러 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존치건축물 6동은 국방부로부터 화성시가 무상양여 받았으며, 76필지, 578,237㎡ 면적의 토지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에 따라 화성시가 매입하였다. 매입 금액은 총 775억 원으로 국비 지원금 424억 원⁸과 화성시가 마련한 시비 351억 원으로 구성되었다. 2018년 10월 매항리 쿠니사격장의 소유권이 화성시로 완전히 이전되었다.

화성시는 쿠니사격장 반환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주민들과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초기에는 사격장 설치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겪은 피해보상 차원에서 접근하여 반환받은 토지를 주민 개개인이 균등하게 분할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화성시와 매항리 지역주민들은 자생력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고자 반환받은 쿠니사격장 부지를 공공에 환원하기로 하였다. 그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항공사진(2020)

출처: 화성시청 제공

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에 근거하여 쿠니사격장 토지 매입 시 국비를 일부 지원받았다.

뿐만 아니라 매향리 지역주민들은 피해보상으로 받은 배상금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여 쿠니사격장을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보태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화성시는 2009년 2월 쿠니사격장 일대를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인근에 유소년 야구장인 ‘드림파크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쿠니사격장 부지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거점으로 활용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이후 화성시는 2015년 11월 쿠니사격장 부지를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결정을 고시하였고, 2016년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여하여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에는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공간 일부를 제외한 평화생태공원이 완공되었다.

또한, 화성시는 미공군 전용 폭격장으로 사용되었던 장소의 흔적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남겨 쿠니사격장의 의미를 기억하고 평화치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2016년 6월에 쿠니사격장 일대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였다. 처음에는 개별 건축물 단위로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심의에 참여한 여러 전문가로부터 전체 미군기지를 보전 활용하는 쿠니사격장의 가치를 확인 받아 공간환경 단위로 등록하였다. 이후 화성시에서는 쿠니사격장 내 존치건축물을 보전 활용하기 위한 1차 리모델링 공사(노후 파손 시설물 보수 및 전기 소방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하였고, 2021년에는 2차 리모델링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매항리 쿠니사격장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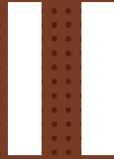
년도	상세 내용
1951.8.~	[구술기록] 미군 폭격 및 기총 훈련 장소로 사용 시작
1955.2.19.~	[공식기록] 미군사령부 산하 대한민국 주둔 제7공군 소속 미군 전용 폭격훈련장 설치(SOFA 제2조 근거)
1988.~	매항리 주민들 사이에서 폭음 및 폭격 피해에 대한 문제의식 조성 시작, 쿠니사격장 폐쇄 시위 요구
2000.6.30.	'매항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
2005.8.20.	쿠니사격장 폐쇄 및 국방부로 관리전환 확정(미군 ▶ 국방부)
2009.2.2.	쿠니사격장을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 승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09.9.	반환기지 지장물 철거공사 착수 이전 건축물 6동, 초소 6개소, 공작물 3개소 존치 요청(화성시 ▶ 국방부)
2013.7.~ 2014.12.	쿠니사격장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 매매계약 관련 실무협의 진행
2014.12.31.	쿠니사격장 존치건축물 무상양여(국방부 ▶ 화성시)
2015.9.	쿠니사격장 존치건축물 6동의 건축물대장 생성
2015.9.~ 2016.5.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11.30.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고시
2016.6.2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제1호 등록
2015.5.~ 2017.12.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도화엔지니어링, KG엔지니어링)
2016.12.~ 2017.12.	매항리의 역사·문화, 현대사 백서 기록사업 추진(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5.~ 2017.12.	쿠니사격장 내 존치 건축물(6동) 1차 리모델링 실시설계 수립 ((주)다건축사사무소)
2018.3.~ 2018.10.	쿠니사격장 내 존치 건축물(6동) 1차 리모델링 공사 ((주)재배건설주식회사)
2018.10.	매항리 쿠니사격장 소유권 이전 완료(국방부 ▶ 화성시)
2017.11.~ 2018.10.	매항리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진행(건축가 마리오보타, HNSA건축사)
2018.5.~ 2020.7.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조성공사 완료
2019.11.~ 2021.9.	매항리 평화기념관 건립공사 완료

년도	상세 내용
2019.8.~ 2020.5.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유희공간 문화재생사업’ 선정 및 관련 연구용역 추진
2020.4.~ 2020.12.	쿠니메모리얼가든 실시설계 수립(KG엔지니어링)
2020.12~ 2021.4.	쿠니사격장 내 존치건축물 기록화 조사 사업 추진 (주)건축사사무소사야)
2021.3.~	쿠니사격장 내 존치건축물(6동) 2차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주)아이엠건축사사무소)
2021.~	매항리 평화기념관 및 존치건축물에 대한 콘텐츠 구성 및 전시·운영계획 수립 중(지역문화진흥원, 화성시,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등과 협력)

참고문헌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계획. 화성시.
-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매항리의 역사·문화, 현대사 백서. 화성시.
- 윤충로. (2014). 전장의 일상화와 고통의 재구성: 매항리 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제102호.
- 화성시. (2001). 매항리 쿠니사격장 존치건축물 기록화조사보고서.
- 동아일보. (1927.6.21.). 三槐市場許可(삼괴시장허가).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7062100209204015&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7-06-21&officId=00020&pageNo=4&printNo=2443&publishType=00020>(검색일: 2021.12.10.)
- 동아일보. (1949.10.31.). 水原(수원)굴養殖好成績(양식호성적),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49103100209202028&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49-10-31&officId=00020&pageNo=2&printNo=8072&publishType=00020>(검색일: 2021.12.10.)
- 연합뉴스. (2000.5.19.). 미공군. 매항리 훈련때 하루 11회꼴 출격.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003824>(검색일: 2021.12.10.)
-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www.ngii.go.kr(검색일: 2021.12.10.)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kyudb.snu.ac.kr(검색일: 2021.12.10.)
- 화성문화원 홈페이지. www.hsc.or.kr(검색일: 2021.12.10.)

(우수건축자산 이야기)



쿠니사격장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억과 의미



쿠니스격장 폐쇄 및 이전을 주장하는 표지판을 든 당시 쿠니스격장의 사령관 존 C. 앤더슨(John C. Anderson) 소령의 모습
출처: 미국 국립문서보관청(NARA) 홈페이지, <https://catalog.archives.gov/id/6459040>(검색일: 2021.9.30.)

먼저 이 글에서 사용하게 될 ‘매항리’와 ‘폭격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두 용어를 미리 정리하고자 한다.

매항리

이 글에서 ‘매항리’는 행정 구역에 따른 화성시 우정읍 매항1리부터 매항5리까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군 전용 폭격장으로 피해를 본 지역은 매항1리부터 5리까지 5개 마을과 석천리 2개 마을, 이화리 3개 마을 등 모두 10개 마을이다. 10개 마을이 합동으로 결성한 대책위원회 이름이 “매항리 주민대책위원회”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10개 마을을 합쳐서 매항리로 쓰고, 사격장의 이름도 ‘매항리 폭격장’으로 쓴다.

쿠니(Koon-ni)

매항리의 옛 지명 ‘고온리’를 ‘쿠니’라고 잘못 표기한 명칭이므로 이 글에서는 매항리로 고쳐 쓰기로 한다.

폭격장

‘사격장’도 ‘폭격장’으로 바로잡는다. ‘Range’는 사격장이라는 뜻과 폭격장이라는 뜻도 있는데 매항리에서는 폭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국립문서보관청>(NARA) 홈페이지에서도 매항리 폭격장(Koon-Ni bombing range¹⁾)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1 미국 국립문서보관청(NARA) 홈페이지, <https://nara.getarchive.net>(검색일: 2021.9.30.)

01 매항리 주민 피해

매항리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당한 일상적 피해

미군이 매항리에서 54년간 폭격한 것이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매항리 주민의 막대한 피해와 희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미 공군의 매항리 폭격 개시

매항리에서는 주민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폭격부터 해대고 나중에 폭격장을 설치했다. 마을 한복판 상공에서 미 공군이 폭격을 해대기 시작한 것은 1952년이나 1953년쯤부터라고 기억하는 이도 있지만, 연구보고서를 따라 여기서는 1951년 8월²쯤부터로 정리한다.

미 공군이나 한국정부 누구도 주민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지만, 당시는 전쟁 중이었고 ‘미군은 대한민국을 도와주러 온 나라’로 믿었기 때문에 문제 삼을 생각조차 못 했다. 미군이 맨 처음 폭격한 곳은 매항리 앞바다 농섬³이었다는 보고도 있지만 많은 증언에

² 윤충로(2014, pp.17~18.);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2017, p.98.)을 재인용하여 서술하였다.

³ 윤충로(2014, pp.17~18.);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2017, p.98.)을 재인용하여 서술하였다.

따르면 구비섬⁴을 먼저 폭격했고 20년 정도 폭격으로 구비섬이 사라지자 농섬을 폭격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당시 매향리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폭격에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다고 한다. 남북전쟁이 종결되고 미군들이 폭탄을 쓸때가 없으니 이곳에 갇다 버리는 것이라고 여겼다고 한다. 하지만, 그 폭격은 이후 54여 년간 지속되었다.

법적 근거 없는 폭격훈련

1951년 8월 미공군 전투기가 구비섬과 농섬을 폭격연습 목표물로 사용할 때 매향리는 미 공군 폭격장이 아니었다. 법적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한 곳이다. 당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하위법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도 없었다. 전쟁 중에 법을 따지는 게 의미 없을 것 같지만 전쟁도 법 근거 없이 하면 불법이다.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유엔 결의라는 국제법 근거가 있다. 2021년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 일부를 주한 미군 사령관이 가진 것도 1950년 이승만과 맥아더가 주고받은 ‘국군통수권 이양 각서’와 ‘회신’이 있으므로 국제법 효력이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 때 한미 두 나라가 체결한 협정이 있긴 하다. 1950년 7월 12일 체결한 일명 「대전협정」⁵이다. 그런데 이 협정에 ‘주한미군 범죄는 100% 미군이 재판한다.’라는 내용이 있을 뿐 훈련장이나 기지를 제공하는 내용은 없다. 당시 이승만은 7월 14일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이양한다’라는

4 주민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2017, p.41.)에도 같은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5 정식 명칭은 ‘재한 미국군대의 재판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이다. 이 협정으로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재판권은 100% 미국이 행사하게 되며, 협정 체결 당시 대한민국 임시 수도가 대전이라 ‘대전협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별도 서한⁶도 보냈다. 하지만 미군이 어디에 주둔할지 훈련은 어디에서 할지 같은 문제는 「대전협정」에도 ‘이승만 서한’에도 없다. 어느 곳이든 미군이 진을 치면 미군기지였을 뿐 공식 합의는 없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는 1952년 매향리 땅 21만 평을 강제 징발하여 미군에게 공여⁷했지만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직후 10월 1일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시설이나 구역’의 공여에 관한 내용이 없다. 그런데 미군은 1954년부터 매향리 해안가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1967년 발효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시설과 구역-공여와 반환)에 “본 협정 효력 발생 시에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은(중략) 양 정부 간 합의된 시설과 구역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을 넣으면서 법적 근거를 소급 적용했을 뿐이다.

토지 강제 징발

매향리 폭격장은 1953년⁸쯤부터 1968년도까지 여러 차례 토지 및 바다 어장을 강제 수용과 징발하면서 719만 평(육상 29만 평, 해상 690만 평)이나 됐다. 국가가 안보를 목적으로 사유지를 강제 징발할 수는 있지만 해도 너무했다. 1968년 가을 주민들은 ‘올겨울 식량이라도 할 수 있게 조금만 늦춰 달라’고 하소연했지만, 미군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중장비로 밀어붙였다. 군사독재 시절이지만 최병섭 등 일부 주민들은 미군이 모는 중장비 앞에 드러눕기도 했다. 그러면 미군은 ‘폐루다’ 차 바가지로 사람을 떠서 팽개쳤다. 그런 실랑이가 몇 번 벌어지면 대

6 이승만의 이 서한은 맥아더의 답변과 함께 “국군통수권 이양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의 각서 및 Mac Arthur 유엔군 총사령관의 회한(1950. 7. 14. 및 1950. 7. 16.)”이라는 제목으로 국가기록원에 영구 보존되어 있다. 이승만의 이 ‘각서’는 1950년 7월 25일 유엔 사무총장을 거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사후 추인을 받았다. 이때 작전권, 또는 작전지휘(작전통제)권은 평시와 전시의 구분이 없었으나 1994년 12월 1일 ‘평시 작전통제권’만 환수했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유엔군 사령관(주한 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다.

7 ‘제공해주었다’라는 뜻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공식 용어이다.

8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2017, p.115.)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한민국 경찰이 나타나 주민들을 곤봉으로 때리고 내쫓았다. 그리고 철조망을 쳤다.

징발 당시 주민들은 연안 어장에서 연평균 2천만 원 정도 소득을 올렸지만, 어업권 상실 보상은 1천만 원에 불과했다. 평당 500~600원 하던 농경지는 180~230원의 헐값에 징발당했다.

매항리 주민들의 직업 전환과 연속된 실패

땅을 빼앗긴 매항리 주민들은 탄피 줍는 게 일상이었다. 애들은 탄피를 주워다 엿장수한테 갖다 주고 엿이나 눈깔사탕을 바꿔 먹을 수 있어 재밌는 놀이로 여겼고, 어른들은 탄피가 돈이 되는 걸 알았다. 고물상에 갖다 주고 고철값만 받아도 수입이 짝짤해서 고철 탐지기까지 사다가 본격적으로 탄피를 수거하는 사람들까지 생겼다. 전투기의 기관포 탄피는 소총 탄피보다 훨씬 커서 폭격 소음 때문에 폭격기 뜨는 걸 싫어했을 것 같지만, 폭격이 많을수록 탄피가 많이 떨어지니까 폭격기가 더 많이 오길 바라기까지 했다.

1968년부터는 미군이 철조망을 치고 경비를 세워 탄피 수거를 막았다. 주민들은 밤에 몰래 경비가 지키는 구역을 피해 철조망을 뚫고 바다까지 들어가 탄피를 수거하기도 했다. 그러다 경비나 미군한테 걸려 시비가 붙기도 하고 미군 부대 안으로 잡혀가는 일도 많았다. 처음에는 엄하게 단속하던 미군들이 나중에는 회유하려고 했던지 탄피 수거를 허락해 주었다. 그래서 주민들이 탄피를 공동으로 수집·판매하기도 했다.

조명탄은 탄피와 낙하산을 모두 쓸 수 있으므로 더 좋아했다. 양은 탄피는 물통 등으로 썼고 나일론 낙하산은 옷감이나 이불보, 자루 등

으로 썼다.⁹ 처음에는 ‘먼저 좁는 사람이 입자’여서 힘세고 달리기 잘 하는 사람이 유리했다. 주민들은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마을별로조를 짜고 순번을 정해 탄피를 수거한 뒤 나누는 방식을 합의했다.¹⁰ 불발탄도 폭발 위험을 무릅쓰고 조심조심 뇌관을 제거해서 고물로 팔아먹었다. 실제로 사고가 나기도 했다. 탄피는 종류에 따라 구리나 양은이었는데 나중에는 쇠로 된 탄피도 있었다.

당시 탄피를 전문으로 수집해서 재활용하는 사람이 매향리로 이사 와서 용광로를 만들어 놓고 하루 수천 개씩 탄피를 녹여 금괴 모양의 덩어리를 만들어 반출했다. 그렇게 판 덩어리는 전깃줄 재료로 사용되었다. 당시 주민들은 탄피를 주워 판 대가로 가구당 월 2~3만 원씩 배분을 받았는데 적은 돈은 아니지만 엄청난 돈벌이도 아니었다. 겨우 식량에 보탬이 되는 정도였다.¹¹

농사도 못 짓고 바다조업도 못하게 된 매향리 주민들이 많이 한 게 낙농업이었지만 낙농업도 잘 안 되었다. 젖소는 질병 때문에 죽고 새끼를 배지 못하거나 가지더라도 사산과 유산을 반복했다. 우유가 잘 나오는 소를 사다 길러도 밖에서 10kg 나오던 게 매향리에서는 5~6kg밖에 안 나왔다. 질병도 많아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실제로 전 만규도 한우 두 마리를 사다 키워 봤지만 튼튼하게 잘 자라지 못해 손해만 보고 처분하고 말았다.

양계를 시작한 주민도 계셨지만, 폭격 소리에 놀란 닭 수천 마리가 한군데로 몰리는 바람에 자기들끼리 몇 겹씩 쌓여 압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사료도 제대로 못 먹고 병에 걸려 죽는 닭도 많고 양계업도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9 주민들은 심지어 낙하산의 흰천에 물감을 들어 속옷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예전에 시골에서 옷감은 대부분 광목으로 거칠고 세탁하기 불편한 반면, 나일론 섬유로 된 낙하산은 부드러우면서도 질기고 세탁하기가 수월해 인기가 좋은 물품이었다.

10 주민들은 30여가구를 1개조로 구성하고, 총 5개조와 마을의 비인가 공립 중학교가 공동으로 탄피를 수거하였다. 요일 별로 공동 수거한 탄피는 매월 단위로 고철상한테 판 매하여 대금을 분배하였다.

11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2017, pp.123~127.)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1980년대 초 1마리에 5만 원이나 하는 양고라토끼를 사다 기르고 털을 깎아 팔아 경제 상황을 극복하려 애쓴 주민들도 있었다. 그러나 토끼들도 폭격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털도 잘 자라지 않았고 자라도 곱슬머리처럼 꼬여 버렸다. 꼬인 털은 불량품이라 제값을 받을 수가 없었다. 물론 새끼도 안 들고 새끼가 들어도 유산하거나 사산을 했다. 그래서 결국 토끼 사육을 접고 조암 읍내로 나가 식당을 하신 분도 계시다.

농토를 강제 징발당한 주민들이 ‘폭격훈련이 없는 날만이라도 폭격장 안에 들어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미군이 이 요청을 받아들여 폭격이 없으면 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가 그렇게 매항리 주민들에게 임대한 땅은 논밭 합쳐서 약 10만 평 정도였다. 소작인들은 평일 해가 진 뒤나 주말에 주황색 깃발이 내려와야 잠시 들어가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이마저 농지임대를 관장하는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일부 공무원이나 미군의 농간으로 실제 농민이 직접 임차 경작한 농지는 1/3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이나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임차하여 대리 경작을 했다. 이 와중에도 미군과 공무원들에게 줄을 댄 사람들은 불법 특혜까지 누린 것이다.

소작료는 국방부 계좌로 직접 이체했다. 지주들이 국방부의 소작농이 된 것이다. 국방부 소작농은 폭격장이 폐쇄된 뒤까지도 이어졌다.

지축을 흔드는 진동

실제 폭탄이 투하되면 지진이 난 것처럼 매항리 전체가 진동했다.

폭격장 동쪽 매항 2리는 미군 전폭기가 폭격 목표물을 향해 급강하할 때 마을 한복판 상공을 통과하며 저공비행을 했던 마을이다. 그때마다 매항2리는 지붕과 벽이 심하게 흔들렸다. 전폭기는 폭격하지 않고 저공비행만 해도 엔진 폭음과 진동이 극심했다. 기관포 사격이나 기총 사격, 폭탄 투하 등이 시작되면 폭격장 주변 전체의 지축이 흔들릴 정도였다.

당시는 거의 모두 한옥이었고 온돌방이었다. 연탄도 때고 있었는데 폭격 진동으로 방바닥이 갈라지고 구들장 틈새로 연탄가스가 새 나왔다. 아침이면 식구들이 전부 기어나왔다. 어머니가 간신히 부엌이나 장독대까지 기어가 동치미 국물을 마루로 가져오면 온 식구가 그 걸 마시고 정신을 차렸다. 이렇게 연탄가스를 마시는 게 평생 한두 번이 아니라 일상사였다.

집마다 시렁이 있었다. 벽과 벽 사이 나무 기둥 2개를 가로질러 매달아 놓은 것인데 시렁 위에 이것저것 올려놓고 살았다. 폭탄이 터지면 시렁 위 물건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제사 때 쓰려고 올려 두었던 사기그릇이나 나무그릇이 떨어져 박살이 났다. 그러면 할머니와 어머니들이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기도 했다.

1994년 12월 미군들이 많은 불발탄을 한꺼번에 폭발 처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진동이 발생했다. 수백 가구의 지붕과 벽이 내려앉고 균열이 가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기도 했다.¹² 하지만 이 당시 피해를 본 주민 가운데 아무것도 몰라서 소송에서 빠진 바람에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한 사람도 많았다.



2000년 5월 12일 오전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항리 주민이 지난 8일 미공군 소속 A-10 전투기의 폭탄투하로 깨진 자신의 집 유리창을 살펴보는 모습

출처: 한겨레(2000.5.12.)

¹² 수원지구 한·미배상 심의위원회에 28억원의 피해 배상청구를 하였으나, 3억5천만원만 인정하여 지급되었다.

토양 오염

매항리 폭격장 폐쇄 직후 서울신문 취재팀이 농림 정상부와 폭격 표적이 위치한 섬의 해안가 등 9곳의 토양을 채취하여 국가지정연구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GIST) 환경분석센터에 중금속과 방사능 분석을 의뢰한 결과가 보도¹³됐다. 보도에 따르면 납은 미군 전투기와 헬기의 폭격 표적이 있던 해변 모래에서 최대 4,746mg/kg이 검출됐다. 환경부가 정한 기준치 300mg/kg보다 최대 15.8배가 많은 것이었다. 중화학공업 단지보다 심각하다고 했다. 2004년 농업과학기술원이 조사한 전국 농경지 평균치 4.8mg/kg보다 988배나 많은 양이었다. 관계자는 “300mg/kg이 넘으면 농작물 재배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오염지역이며 사실상 죽은 땅이며 납 함유량이 4,000mg/kg을 넘으면 광산 등 기존 오염지역을 고려해도 상당한 수준”¹⁴이라고 했다. 이때 미 공군이 폭격 목표물로 설치해 놓았던 지프와 모형 미사일, 컨테이너 등 모두 5곳에서 채취한 토양은 농림 정상부보다 100배 이상 많은 330~4,746mg/kg이 나왔다. 반면 폭격에서 제외된 농림 정상부 3곳은 1.69~29mg/kg에 그쳤으며 농림에서 1.5km 떨어진 육지에서 채취한 토양도 정상 수치인 2.35mg/kg으로 나왔다. 미군 폭격 때문에 오염됐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 것이다.

구리(Cu)와 카드뮴(Cd)도 전국평균치보다 17.1배~54.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3년 5월 한미 두 나라가 합의 서명한 ‘반환지 환경오염 조사·치유 합의서’마저 무시한 채 미군은 오염된 토양을 버려둔 채 그대로 떠났다. ‘한미 합의서’에 따르면 105일 동안 환경조사를 해서 오염이 확인되면 정화 비용의 75%¹⁵를 미군이 부담하게 되어있다.

¹³ 국민일보(2005.8.24.)

¹⁴ 국민일보(2005.8.24.)

¹⁵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3조 청구권에서 미군이 100% 잘못된 범죄나 사고 피해에 대해서도 미국이 75%, 한국이 25%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6년 8월 <환경운동연합>이 토양오염조사 결과를 또 발표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납은 전국 평균의 923배에 달하는 최고 4,786mg/kg에 이르고 구리는 최고 43.5mg/kg로 전국 평균의 9배에 달했다.

54년간 계속된 폭격 굉음 - 육체적, 정신적 고문

매항리 주민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감정명령¹⁶에 따라 아주대학교 장재연 교수 연구팀이 1999년 2월 말 ~ 3월 초 13일간 조사한 ‘매항리 소음 실태’ 결과가 뒤늦게 언론에 보도¹⁷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10기와 F-16, 헬리콥터, 수송기 등이 하루 평균 11회 정도 편대를 이뤄 폭격했다. 1편대는 대부분 2대(86.9%)였지만, 3대나 4대를 이루는 때도 있었다. 이 기간에 해상폭격 훈련과 육상 기관총 사격 훈련은 매일 있었고 해상기관총 사격 훈련은 13일 중 6일 동안 있었다. 1편대 당 평균 훈련 시간은 17.8분이었는데 해상기관총 사격이 평균 29.3분으로 가장 길었고 지상 기관총 사격은 평균 13.2분으로 가장 짧았다.

폭격훈련은 평일에 매일 있었다. 주간은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야간은 오후 7시 ~ 밤 10시까지 진행됐다. 이것은 조사 기간인 13일 동안만의 결과다. 13일이 아니라 평생을 사는 전만규는 다르게 주장한다. 그는 ‘충간소음’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16 1998년 매항리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소송 관할 법원에서 ‘매항리 소음 실태’ 감정 명령을 내렸다.

17 연합뉴스(2000.5.19.)

“도심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가끔 살인이 벌어지죠?

하물며 마을 상공 바로 주택 지붕 위에서 괴물 같은 것들이

폭격해왔으니 얼마나 힘들지 생각해 보세요.

하루 수백 회씩, 밤낮없이, 수십 년 동안...”

평균 11회와 ‘수백 회’는 너무 차이가 난다. 주민들이 과도하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 미군이 조사 기간에 폭격 횟수를 줄였을 수도 있다. 비행기가 뜨면 집안에서 대화하던 사람들마저 대화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 야간 폭격이 있는 경우 비행 소음과 포성, 폭발 굉음, 조명탄 불빛 등으로 전쟁을 방불케 했다. 주민들이 극심한 수면 방해를 겪었음은 물론이다. ‘잠 못 자게 하기’ 고문이 54년간 계속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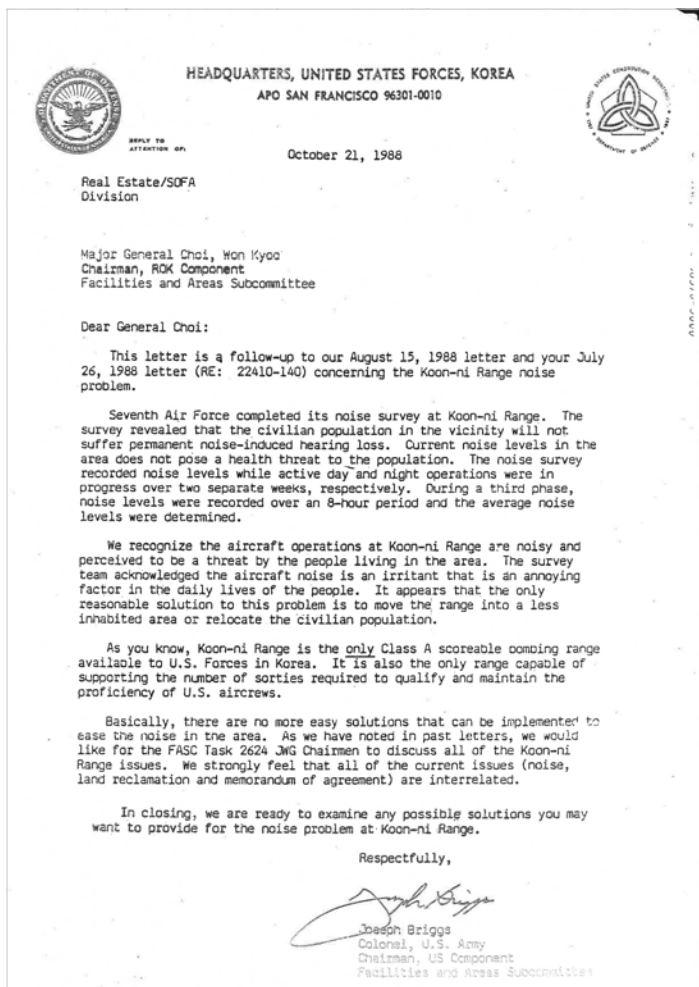
석전초등학교 운동장 조희 때 교장 훈화가 중단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수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주민들이 교육부에 문제를 제기해서 교실에 이중창을 달긴 했지만 에어컨 설치비나 가동비를 대 주지 않아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 놓고 수업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수업이 폭격 굉음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매향교회는 교회 안에 선교유아원 운영 허가까지 받았으나 하도 시끄러워서 며칠 만에 인가를 취소하기도 했다. 매향리를 지나던 외지인이 폭격 소리에 놀라 운전대를 놓쳐 사고를 낸 일도 있었고, 시위 진압 전경이 폭격 소리에 놀라 방패를 떨어뜨린 적도 있었다.

주민들이 진정을 내서 미군이 소음도를 측정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 폭격장 지역 평균 소음도는 90~110 웨클(WECPNL)¹⁸에 달했다. 이 정도면 주거불능지역이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공항소음피해 지역 등의 지정)와 제272조(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 시행의 범위)에 따르면 매향리는 전 지역이 소음피해 지역이고, 거의 전 지역이 이주를 원하는 주민 모두 국가가 이주시켜야 하는 제1종 구역이다.

18 웨클은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 Noise Level의 약어로서, 순간 소음의 단순 크기만을 나타내는 데시벨(dB)과 달리 항공기 운항 시 발생하는 최고소음(dB)의 평균값에 시간대별로 운항편 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단위이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산정하였다.

그런데 이 조항 자체가 문제다. 매향리에는 이주를 원하는 주민도 있지만 더 많은 주민은 이주가 아니라 폭격장 폐쇄를 요구했다. 행정구역상 매향1리와 매향5리 주민들은 <주민이주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주대책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적절한 보상을 받고 이주하길 원했다. 항공법대로라면 이들을 이주시키는 게 정부의 임무다.



매향리 주민들이 보낸 '쿠나사격장 소음피해 문제 서신'에 대한 미공군측의 답신(1988.10.21)

출처: 전만규 제공

1988 년 10 월 21 일

설비와 기지에 관한 소위원회 한국측 의장

최 윤 규 소장(장군) 귀하

이런지는 쿠-니(고은리)사격연습장 소음문제에 관한 당신(소장)의 88년 8월 15일자와 88년 7월 26일자 편지에 대한 답변서로서 우리 7공군은 쿠-니 사격장의 소음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소음 측정조사 방법은? 폭격이 진행중인 두주에(14일) 걸쳐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인 낮과 밤에 각각 측정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8시간에 걸쳐 측정한 것을 평균화하는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쿠-니 사격장에서의 폭격연습이 쉬고있고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비행기 소음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요소임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합리적인 해결은? 쿠-니 사격장을 주민들이 살지 않는 곳으로 옮기는 방법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만 당신이(최윤규소장) 알고 있듯이 쿠-니 사격장은 한국내에서 미군이 활용할수 있는 유일한 A급(제일)의 폭격장으로 미군 비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적당한 훈련을 위한 단거리(짧은거리)의 비행)을 가능케 해주는 유일한 폭격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위원회에서 사격장 문제에 관한 모든 현안을 토의하고 싶습니다.

미제 7공군 사령부에서 보냄

매항리 주민들이 보낸 '쿠니스격장 소음피해 문제 서신'에 대한 미공군측의 답신, 국문 번역본 (1988.10.21)

출처: 전만규 제공

하지만 매항2, 3, 4리와 이화리, 석천리 주민들은 <매항리 폭격장철 폐주민대책위>를 꾸리고 '폭격장 폐쇄만이 유일한 답'이라며 이주를 거부하고 싸웠다. 항공법에 따르면 이분들은 이주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방음시설만 해 주면 끝이다. 그런데 하늘에 녹색 완충지 대나 이중창을 설치할 수 있나?

국방부는 끝까지 <이주대책위> 편을 들었다. 매항1리와 5리 주민들에게만 650억 원의 이주비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주민들은 또 갈라졌다.

미 공군 전폭기가 매항리 상공에 나타날 때는 1대가 아니라 2대에서 4대씩 편대를 이뤄 나타난다. 폭격기들이 거리를 두고 선화하면서 1대가 육상이나 해상 목표물을 향해 연습용으로 기총 사격을 3회씩 하고 바로 이어 기록 사격을 3번씩 한다. 이렇게 1대당 6회씩 기총사격을 한 다음 같은 방식으로 폭격을 한다. 1대씩 돌아가며 연습 폭격과 기록 폭격을 3회씩 하는 식이다. 그러니까 편대를 이룬 4대가 약 35분 동안 48회씩¹⁹ 기총사격과 폭격을 해 낸 것이다. 그동안 매항리 주민은 굉음 때문에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다. 폭격만 시작되면 아무 사고가 나지 않아도 신체와 정신이 완전히 억압당하는 것이다.

보통은 1편대가 폭격하고 간 뒤 다른 편대가 오는데 앞 편대의 폭격이 끝나기도 전에 저쪽 상공에 다른 편대가 기다리는 경우도 많았다. 주한 미 공군, 그러니까 송탄이나 군산, 대구 등지에 주둔하는 미군들만 와서 폭격하는 게 아니었다. 일본과 오키나와, 괌, 하와이, 태국, 미국 본토의 미군 조종사들이 정기적으로 매항리 폭격장에 와서 평가 훈련을 받고 갔다. 그래서 매항리 폭격장은 평일에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한국 공군이 시험을 보기 위해 빌려 쓰려고 해도 일체 거절당했다.

주간폭격은 육상 표적, 야간 폭격은 농섬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야간에 육상 폭격을 하는 때도 있었다. 그런 식으로 기총 사격과 로켓포 발사, 헬기 사격, 전폭기 폭격 등이 밤낮으로 이어지면 진짜 고문이었다. 군사독재 시절 정권 차원에서 저질렀던 고문은 며칠이나 몇 달, 길어야 몇 년이면 끝났지만, 매항리 주민을 향한 폭격 고문은 독재 정권 여부를 떠나 54년간 지속된 것이다.²⁰

전만규는 1988년도 4, 5월경 김포공항 인근 고강동 주민들이 민항기 이착륙 소음을 반대하는 화보와 시위 기사를 읽고, 무작정 김포로 올라갔다. 대정부 민원은 어떻게 제기하는지, <주민대책위>는 어떻게

19 전만규는 이와 관련하여 아주대학교 연구팀의 발표보다 훨씬 많은 폭격과 사격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20 이 모든 피해 사례는 주로 전만규의 원고와 직접 진술을 토대로 김용한이 정리하였다.

꾸리는지, 시위는 어떻게 하는지 등등을 알고 싶어서였다. 김포에서 며칠 동안 직접 몸으로 겪은 항공기 소음은 자장가였다. ‘이런 거 가지 고도 이렇게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데….’ 하며 내려왔다. 그리고는 ‘주민에게 드리는 글’을 작성했다. 김포에서 보고 듣고 몸으로 느낀 내용을 주민 설득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했다. 전만규는 이렇게 설명했다.

“동네 주민 수십 명이 자살했다. 오폭이나 불발탄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자살한 분이 훨씬 많다. 자살 미수도 많다. 나도 동맥을 끊어 보기도 하고 가슴에 식칼을 꽂아 자살을 기도한 적도 있다. 전폭기 폭음은 끔찍하다. 육신에 외부 충격을 받는 것보다 훨씬 크다.”

매향리에 전폭기가 나타나면 미군 종사원들과 한국인 경비원들은 실내에서도 항공모함 전투기 이착륙할 때 조종사들이 쓰는 것처럼 생긴 녹색 장구를 착용했다. 그러나 매향리 주민들은 아무 장비도 없이 무방비로 당해 왔다.

매향리에서는 분만을 앞둔 임신부의 필수품이 ‘탈지면과 기응환’이었다. 탈지면은 폭격이 시작되기 전에 아기가 놀라지 말라고 아기 귀를 막아주기 위해서, 기응환은 아기가 놀라면 급하게 먹이는 데 필요했다. 아기를 재워 놓고 일을 하러 밖에 나갈 때는 아기가 덜 놀라게 하려고 아기 가슴에 베개를 얹어 놓고 나가기도 했다.

결혼을 앞둔 총각들이 신붓감을 거의 100% 토요일에 데리고 왔다. 폭격이 없는 날이라서…. 그렇게 해서 매향리 갑부 집에 시집온 새댁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보수적인 시부모 앞에서 ‘시끄러워 못 살겠다. 떠나야겠다. 안 그러면 이혼하겠다.’라고 항의한 적도 있다.

주민 건강피해

1989년 11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가 매향리 주민 건강피해 조사 결과를 발표²¹했다. 당시 매향1·2·3리 주민 1백50명을 대상으로, 다른 지역(우정면 호곡리) 주민들과 비교해서 조사했는데, 매향리 주민 35.3%가 난청을 앓고 있다고 발표했다. 폭격장에서 떨어진 우정면 호곡리 주민의 난청률은 21.5%였다. 게다가 소음성 난청은 직업병의 하나로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매향리 주민의 평균혈압도 138로, 호곡리 주민(127)과 비교하면 훨씬 높았고 고혈압 환자도 대조지역보다 4배 높은 24%나 됐다. ‘귀가 울린다’라며 이명 증세를 호소하는 주민이 80%, ‘귀가 먹먹하다’ 73%, ‘잘 안 들린다’ 64% 등이고, ‘불안하다’라거나 ‘가슴이 뛰다’, ‘어지럽다’라는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도 ⅔가 넘었다.

인의협은 2000년 6월에도 매향리 주민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²²했다. 이때는 매향리와 석천리 40~50대 주민 28명과 주곡 1, 2리 주민 30명 등 58명을 비교 시행한 결과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매향리 주민의 청력은 대조군인 주곡리 주민보다 현저히 저하돼 있었다. 4,000Hz에서 청력저하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분명히 드러났다. 특히 매향리 일대 주민 28명 중 2명(7.1%)은 산업 안전기준법상 ‘직업병 인정 수준’의 심각한 난청 증세를 겪고 있었다.

21 한겨레(1989.11.26.)

22 동아일보(2020.6.9.)

이런 여러 이유로 매항리 주민은 정서가 불안정하고 성격도 난폭해지는 등 또 다른 심각한 피해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화된 심리·사회적 건강지수(PWI)’를 이용한 스트레스 평가 결과 총 135점 만점에 피해지역 주민들은 평균 53.2점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근로자의 지수가 31.3~43.5점인 것에 비하면 매항리 주민이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는지 알 수 있다.

그 어떤 군사독재의 고문도 매항리처럼 54년이나 지속된 고문은 없었다. ‘잠 못 자게 하기’ 고문도 며칠이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도록 때리고 군화발로 짓밟아도 며칠이었다.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 많은 사람은 실제로 미쳐 버린다.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많다. 매항리에서도 그랬다. 계속되는 국가 폭력 54년간 계속된 고문을 견디지 못한, 견딜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육상 폭격장을 설치한답시고 국방부가 토지를 헐값으로 강제 징발한 1968년부터 2000년까지 매항1리 지역에서만 3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평균 1명꼴이다.

고문 피해를 보신 분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폭격 중단 16년이 지난 매항리 주민들도 상당수가 그때의 악몽에 시달리고 계시다.

미군의 단속과 통제 그리고 경제 피해

매항리는 선조 대대로 마을 한가운데 있는 문전옥답을 경작하거나, 황금어장에 나가 바다 조업을 해서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던 마을이다. 그런 마을에 미군이 들어와 폭격을 알리는 주황색 깃발을 여기저기 걸었다. 육상 깃발은 대부분 해가 지면 내려왔지만 바닷가 깃발은 밤낮으로 걸려 있었다. 그래서 물때에 맞춰 어망을 쳐 놓았다가 물때에 맞춰 걷어야 하는데 어망을 치기 어려워졌고 힘들게 어망을 쳐 놔도 건지러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 뒤로 매항리의 경제 상황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여성들은 눈물로, 남성들은 거의 매일 술로 살았다. 화성에서 부촌에 속하던 매향리는 가구당 연평균 수입이 360만 원밖에 안 되는 가장 가난한 마을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오폭과 전폭기 소음, 폭격 시 굉음 때문에 주택과 축사, 창고 같은 건물이 파손되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하지만 미군 측은 깨진 유리만 바뀌 끼워 주거나 파손된 주택 수리에 보태라며 시멘트만 주었을 뿐 별다른 보상이나 방지책은 없었다.

주민 대부분이 여름에는 식량이 없어서 보리껍질까지 분쇄해서 개장국이나 칼국수를 만들어 먹었다. 그마저도 없을 때는 낮 들고 산에 가서 나무 속껍질을 벗겨서 씹어 먹으며 허기를 달래기도 했다.

가을에는 수수껍질까지 분쇄해서 먹었다. 하도 배가 고파 죽음도 가볍게 여겼다. 누가 사고로 죽어도 재수 없어 죽었으려니 생각했다. 죽음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배고픔이라니!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우리를 도와주러 왔다는 미군 때문에! 이게 정말 주권 독립 국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 맞나?

Koon-Ni Range Farmers' Access Procedures 고온리 사격장 농경인 출입 절차(실무자 보관용)

1. Only authorized personnel will be allowed access into the range and will normally enter through the following 출입인가를 받은 요원들만 사격장 출입이 가능하며, 다음 출입 통제소를 사용할 것: (1) 정문, (2) 교회 근처 gates: (1) main gate, (2) gate next to church, (3) gate next to soccer field, (4) gate next to the ostrich farm, or (5) 후문, (3) 축구장 근처 후문, (4) 다조농장 근처 후문, (5) 북문. 본 사항은 위험 또는 경비태세 증가 등의 경우에 north gate. This may change depending on circumstances, such as increased threat or security conditions, as 따라 7공군 사격장 관리부서와 사격장에 배치된 한국 경찰간의 상의 후에 변경될 수 있음.
determined by 7 AF Range Management in consultation with the Korean National Police located at the range.
2. Authorized farmers may escort additional people onto the range to help them with farming. If any farmer gives 영농작업 지원을 위한 추가인원은 출입 인가자들의 인솔하에 출입이 가능함. 출입증을 타인에게 대여 할 경우 his access badge to an unauthorized person, that farmer will be barred indefinitely from the range and the 대어인인 사격장과 경작 지역 출입이 영구적으로 금지됨.
farming area.
3. As long as operations of the land area is inactive, farming activities will be permitted during normal range 영농작업은 사격장 정상 운영시간 (06시부터 22시 까지)중 지상지역이 작전에 사용되지 않는 시간대에 한하여 operating hours (0600 to 2200), every day of the week. If farming activities are deemed to impact the safety of 허가됨. 영농작업이 헬기 작전 안전에 위험이 된다고 평가 될 경우 사격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헬기 작전 기간 helicopter operations, they will not be allowed during that period of helicopter operations, as determined by the 중에는 작업을 불허함. 사격장의 안전 또는 작전 수행으로 인한 사격장의 개방 또는 폐쇄 (영농작업에 대한) 권한은 Range Supervisor. The Range Supervisor maintains the authority to open or close the range to farmers when 사격장 감독관이 보유함.
the situation warrants due to safety concerns or operational necessity.
4. Only annually harvested crops are permitted within the farming area (for example, no ginseng). Each fall all 경작지에서는 매년 수확되는 농작물만 허용됨 (예: 인삼은 금지). 매년 가을 모든 경작지의 농작물은 crops must be harvested and the plots cleared. Written permission to change the crops being grown in their farm 수확되어야 하며 경작지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어서는 안됨. 경작지의 농작물을 바꿀 경우에는 사격장 감독관을 plots must be obtained, in advance, from 7th Air Force Range Management, through the Range Supervisor. 통하여 7공군 사격장 관리부서의 서면허가를 받아야 함.
5. Power lines to the farmers' water pumps must be installed/re-installed according to the appropriate ROK 양수기 전력선은 한국 전기규정에 의거하여 설치 또는 재설치 하여 미측 요원에게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함.
electrical code and must not pose a danger to US personnel.
6. Except for the small sheds that house water pumps, no structures (permanent, temporary or semi-permanent) 는 지역에 양수기 보관창고를 제외한 농부들의 모든 건물 및 시설 (영구적, 임시적 또는 반 영구적) 건설을 may be erected within farming area by the farmers. However, written permission to build these pump sheds must 금지함. 양수기 보관창고 건설 필요 시 사격장 감독관을 통하여 7공군 사격장 관리부서의 서면허가를 득해야 함.

be obtained, in advance, from 7 AF Range Management, through the Range Supervisor. Written approval is not needed for sheds that are already in use. The 7 AF Range Management reserves the right to remove any structures within the farming area. Additionally, written permission to do any drilling within the farming area must be obtain from 7 AF Range Management.

7. Any action to cut or force open the fence or gates or the destruction of any US property will result in 사격장 울타리 철조망 또는 출입문을 훼손 또는 미숙 소유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사격장과 경작지 출입의 debarment indefinitely from the range and the farming area.
영구적인 금지를 초래할 것임.

8. The US does not assume any liability for the farming activities within US exclusive-use land. Any damage to 미숙은 미숙 전용 지역 내에서 농업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음. 사격장 요원의 공무 수행상 발생 한 the farmers' power lines and/or water lines and hoses caused by range personnel in the performance of official 전기선, 수도 및 호수의 훼손에 대한 보수 책임은 농부들에게 있음. 출입증 발급시 각 농부는 상기 사항에 동의하며, duties will be solely the responsibility of the farmers. By accepting a farming access badge, each farmer agrees 이를 통해 (이유에 상관없이) 미숙은 모든 책임에서 면제됨.
to this provision, waiving any US liability for any reason.

9. As long as the conditions above have been met, renewal of farming access will be approved. If there are any 상기 모든 사항 준수시 농부의 출입인가 재발급이 승인됨. 본 합의서 사항에 대한 이견이나 문제점이 있을 disagreements or concerns about meeting the conditions of the agreement, then 7AF Range Management will 경우, 7공군 사격장 관리부서는 이장 또는 주민 대표자와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할 것임.
meet with local village mayors or their representatives to find an agreeable solution to the situation.

10. Only the local village mayors or their representatives will forward questions or suggestions about this 이장 또는 주민 대표자만 7공군 사격장 관리부서에 질의 및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음. 필요 시, 이장 또는 주민 agreement to 7 AF Range Management. When needed, the local mayors or their representatives will meet with 대표자는 7 공군 사격장 관리 부서와 사격장 현황 및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토의할 것임.
7AF Range Management and the Range Supervisor to talk about the current situation and any problems that might have come up.

Signature 서명

Date 일 시

미군 내부에서 작성한 사격장 농경인 출입 절차 서류

출처: 전만규 제공

※ 어촌계장 산. (매량 12)

(작성중: P2)

○ 다음주 사격시간 예정표!

○ 월 (8월, 3일) :- 0745 ~ 2400	(월) 사격 :-	✓)
○ 화 (" , 4) :- 0745 ~ 2400	(" ,	✓)
○ 수 (" , 5) :- 0745 ~ 2400	(" ,	✓)
○ 목 (" , 6) :- 0815 ~ 2400	(" ,	✓)
○ 금 (" , 7) :- 0800 ~ 1700	(" ,	✓)

→ ○ 헌병사격 :- ✓
○ E.O.P 폭파작전 :- ✓

1998년 7월 31일

쿠니 사격장. 경비부.

※ 2200 ~ 2400 자리는 할시 등
훈련함.
※ 용리사격장 시간표 타겟에너도 만
에 다경함으로 2400시까지 종료
종료 됩니다.

※ 어촌계장 산. (매량 12)

(작성중: P2)

○ 다음주 사격시간 예정표!

○ 월 (8월, 11일) :- 0900 ~ 2400	(월) 사격 :-		
○ 화 (" , 18) :- 0900 ~ 2400	(" ,		
○ 수 (" , 19) :- 0900 ~ 2400	(" ,		
○ 목 (" , 20) :- 0900 ~ 2200	(" ,		
○ 금 (" , 21) :- 0800 ~ 1700	(" ,		

→ ○ 헌병사격 :-
○ E.O.P 폭파작전 :-

1998년 8월 14일

쿠니 사격장. 경비부.

※ 이번주 훈련 시간 일부가 연장.
후보 (190)가 2400에 끝나는 것이 2400으로
연장 되었으므로, 0745부터 개시함.
이번주 훈련은 육지사격장에서 실시하여
유지사격과 1차사격장이 동시에 여격
일정함. 7월 21(월) ~ 24(목) 훈련기간에
2400시까지 사격장 주변을 통제함으로
경비하는 등, 8월 17일로

매항리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당한 각종 사고 피해

여기까지는 매항리 주민이 일상적으로 당해 온 피해였다. 이제 각종 사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른 지역 같으면 평생 벌어지지 않거나 한두 번 겪는 사고가 맞지만 매항리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사고였기에 ‘사고’라고 해야 할지 ‘일상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폭 사고-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매항리 주민들이 54년 동안 당해 온 피해 가운데 가장 큰 피해는 뭍니 뭍니 해도 인명 피해다. 주민들이 툽하면 죽거나 다친 것이다. 매항리에서는 오폭 사고가 수시로 발생했다. 주한미군도 지형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지만 오키나와나 괌, 하와이, 태국 같은 나라에서 오는 전폭기 조종사들은 지형지물을 몰라서 오폭 사고를 더 자주 일으켰다.

주민들이 기억하는 첫 오폭 사고는 1952년쯤 일어났다. 땀감을 구하러 산에 갔다가 돌아오던 전상록 씨가 마을로 떨어진 포탄에 머리를 맞고 즉사했다. 비슷한 시기에 이봉우, 이상복 부자가 바다에서 조업하다 오폭으로 손목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55년 당시 12살이었던 최중녀 양이 어머니와 개펄에서 굴을 따다가 미군이 투하한 폭탄 파편에 다리를 맞아 미군 헬기로 긴급 후송 수술을 받아 목숨은 건졌으나 평생 장애인이 되었다. 1962년 매항리를 지나던 외지인 2명이 폭격훈련을 구경하다 기총사격 탄을 머리에 맞고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상처를 입었다. 1965년 김현복 씨가 마을로 떨어진 기총 사격탄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으며, 백화련, 이철중 씨가 훈련탄 파편을 옆구리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끔찍한 사건은 1967년 임신부 폭사 사건이다. 당시 임신 8개월 이영자 씨가 개펄에서 조개를 채취하다 미군 전투기가 투하한 포탄을 등에 맞고 포탄이 박힌 채 처참하게 즉사한 사건이다. 시아버지 제삿날 탕국으로 쓸 조개를 채취하다 그렇게 당했는데 폭격장 책임자가 고인의 남편 한장수 씨를 경비원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무마하고 넘어갔다. 1989년 2월 13일 최중복 씨가 마을을 지나다 훈련용 포탄이 머리 위를 지나 바로 옆에 떨어지는 바람에 놀라서 넘어졌고

뇌진탕을 당해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1989년 6월 손달근 씨가 농 섬에서 약 4.5km 떨어진 해상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 헬리콥터에서 발사한 기관 총알이 오른쪽 팔목을 관통하는 중상을 입고 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제기해 7천 5백만 원의 배상을 받아냈다. 배상을 받아 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1996년 헬리콥터에서 발사한 탄환이 백 신기 씨 집 창문을 뚫고 방안에 떨어지는 바람에 어머니 강옥순 씨가 충격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폭격장 근처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에 포탄이 떨어진 적도 있다. 다행히 추석 명절 휴무일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한 사고였다.

2000년 5월 8일 아침 8시 25분쯤 그 유명한 ‘폭탄투하 사고’가 발생했다. 마침 전만규가 주민대책위원회 마당에서 폭발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목도하였다. 엔진 고장을 일으킨 미7공군 소속 A-10기 3대가 탑재하고 있던 500파운드(약 227kg) 실전용 폭탄 6발을 한꺼번에 매항리 앞바다에 투하한 사건이었다. 그때는 만조라 바닷물이 가득 차 있던 터라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눈 깜짝할 사이 가옥 7백여 채의 벽에 금이 가고 유리창이 깨졌다. 굉음에 놀라 피하던 주민 6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다.

미군측은 그날의 파장이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자 “전투기 엔진에 결함이 생겨 기체 무게를 줄이려고 500파운드짜리 폭탄 6기를 한꺼번에 투하했다”라고 변명한 뒤 폭격을 계속하였다. 사고 나흘만인 5월 12일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 행동>은 주한미국대사관 등지에서 ‘주한미군 매항리 폭탄투하 규탄 집회와 SOFA 개정 서명운동’을 하며 “예정된 사고이고 그동안 발생한 술한 사고 중 하나이므로 미국은 폭격장을 즉시 폐쇄하고 피해주민에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도 규탄 집회를 열었고 전국연합도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매항리 주민 피해를 보상하고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 주한미군은 5월 13일 ‘진상을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피해보상 여부에 관한 결정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국방부는 주한 미 공군에 ‘합동조사 기간 폭격훈련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날부터 폭격훈련은 일시 중단됐다.

5월 18일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이 열화우라늄 탄을 보유하고 있지만, 훈련용으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 ‘매항리에서는 227kg, 907kg 폭탄과 20mm, 30mm, 40mm 기총탄만 사용하고 있을 뿐’²³ 이라고도 했다. 이날 한미합동조사단은 매항리 현지를 찾아 주민대표와 면담도 하고 피해 가옥도 방문하고 농섬과 육상 폭격장도 찾았다. 그렇게 시늉만 낸 한미 두 나라 정부 ‘합동조사단’은 6월 1일 “사격장 주변 인명·가축·건축물 피해는 폭발물의 폭발에 의한 것인지 판명하기 곤란하다.”라는 허위 발표를 하고 이튿날부터 폭격을 재개했다.

불발탄 폭발사고-인명 피해

오폭 다음으로 끔찍한 사고는 불발탄 폭발사고이다. 가장 끔찍한 불발탄 사고는 1956년에 있었다. 당시 14~15세 소년 4명(김학배, 김학문 형제와 김옥권, 전상록)이 사망하고 송의섭은 허벅지 상처를 입었다. 당시 아버지들이 자식들의 시신을 가마니에 담아 모래밭에 묻었다. 1957년 한상옥 씨가 바닷가에서 불발탄을 주워 분해하다 손 일부가 잘려나갔다. 1959년 전봉안 씨, 1960년 주민 1명, 1961년 주민 1명이 불발탄 폭발로 사망했다. 1963년 주민 이철중 씨가 불발탄 사고로 상처를 입었으며 1965년 백화련 씨는 불발탄 화약에 화상을 입었다. 1966년 최대식 씨는 불발탄 폭발사고로 엄지손가락을 잃었다. 1969년 김입분 씨가 불발탄 폭발사고로 옆구리 상처를 입고 미군 헬기로 긴급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다.

이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매항리 주민들은 ‘재수가 없어서 죽거나 다쳤다.’라고 생각하고 체념해 왔다.

매항리 폭격장의 입지와 자연환경 피해

‘매항리 폭격장은 미군의 담력을 강화하는 데 최적의 폭격훈련장’

주한미군은 매항리를 미군 전폭기 조종사들이 폭격훈련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했다. 그 이유가 ‘현지에 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통은 폭격장 주변에 민가가 있고 농민이 농사지으러 다니거나 어민이 바다에 드나들면 누구나 폭격훈련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미군들은 정반대로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매항리가 폭격훈련장으로 최적’이라고 했다. 무인도나 오지에서 훈련한 군인들은 실전에서 목표물 가까이 민가가 있으면 떨어져서 폭격을 잘하지 못하는데 매항리처럼 민가가 있는 곳에서 훈련한 군인들은 실전에서도 떨지 않고 폭격을 잘 한다는 것이다.

코소보 전쟁 때 맨 처음 출격했던 미군 조종사는 한 인터뷰에서 ‘코소보 전쟁에 처음 투입돼서 폭격하는데 목표물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민가도 많으니까 버튼을 누르는데 심리적으로 굉장한 위축감이 들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1988년 7월 매항리 폭격장 지휘관 C. W. 앤더슨 소령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매항리 폭격장이 “아시아에서 공군 폭격장으로 최적으로 미공군 전력의 사활이 걸려 있다.”라고 했다. 매항리 주민이 미군 폭격기 조종사들의 담력을 키우는 실험용이었던 셈이다. 국가 차원에서 심각한 주권침해요 인권유린이었다.

사라진 구비섬

매항리 해안에서 750m쯤 떨어진 곳에 거북이처럼 생긴 구비섬이 있었지만 20년 정도 미군의 폭격을 맞고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썰물 때 바닷물이 완전히 빠지면 섬이 있던 자리에 바위만 몇 개 삐죽삐죽 드러나기 때문에 ‘저기가 구비섬 자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 희미하게 느낄 수 있다. 일제강점기 지도에는 구비섬이 농섬보다 약간 작게 그려져 있는데 주민들은 구비섬도 거의 농섬만 했다고 기억한다.²⁴

웃섬과 촛대바위

농섬 바로 옆에 있는 웃섬은 농섬과 함께 폭격 목표물이었고 약 10년 정도 폭격을 맞아 지금처럼 360평 정도만 남아 있다. 웃섬 바로 앞에는 ‘촛대바위’라고 하던 바위가 있었지만 어느 날 폭탄 한 방 맞고 폭삭 무너져 내렸다.

농섬

농섬은 매항리 해변에서 약 1.5km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로 가장 크게 남아 있다. 항상 울창한 숲으로 짙은 녹색을 띠고 있다하여, 짙을 濃의 농섬이라 하였다. 원래는 전석문 씨 사유지였으나 1968년 국가가 강제수용해서 지금까지 국방부 소유이다. 면적은 7,934㎡(약 2,400평)로 숲이 우거져 있었으나 미 공군이 해상폭격 목표물로 사용하면 서 숲은 완전히 사라졌고 크기도 1/3~1/2로 줄어들었다.

24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2017, p.37.)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02

매향리 주민들의
처절한 저항과 투쟁미군기지
점거 투쟁

매향리 주민들은 1988년 12월 12일 오전 10시 첫 항의 집회했다. 장소는 현재의 주민대책위 마당(당시는 밭), 요구사항은 “주거지역에 전투기 폭격장이 웬 말이나? 폭격연습장을 즉각 이전하라!”였다. 집회를 끝낸 주민들은 장대에 현수막²⁵을 꽂고 미군기지로 행진해 들어갔다. 폭격장에 들어간 주민들은 폭격 목표물인 자동차와 컨테이너, 육상 기총사격 표적을 점거하고 연행에 대비해 손에 손을 잡고 ‘인간띠’를 형성했다. 그러자 미군들은 폭격을 중단했다. 오후 3~4시쯤 되자 날도 춥고 배도 고파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산했다.

매향리 주민들은 이듬해 2월부터 폭격장 폐쇄 투쟁을 다시 시작해서 3월 ‘팀 스피리트’ 한미연합 훈련 기간까지 이어나가기로 하자 3월 초 경찰 1백여 명이 새벽에 7개 마을 대책위원 집으로 급습하여 체포 연행하였다. 화성경찰서 유치장에 이틀간 구금돼 있다가 ‘앞으로는 시위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쓴 주민대표들이나, 각서는 안 쓰고 9장이 넘는 경위서를 쓴 전만규나 모두 풀려났다. 3월 ‘팀 스피리트’ 한미연합훈련 때 농성을 점거하자 백골단 2백여 명과 경찰 1,700여 명이 출동했고 최루탄 차량도 몇 대 동원되었으며 대한민국 육군까지 출동했다.

25 현수막은 전만규가 광목천을 사다 문구를 직접 작성하였다.

폭격 소음피해 소송 투쟁

1996년 11월 <매향리 주민대책위>는 이석태 변호사와 소음 전문가인 환경연구소 김선태 교수를 모시고 ‘매향리 미군 전투기 소음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당시 모였던 120여 명 매향리 주민은 거의 모두 소음피해 소송을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 “한국 영토를 방위하기 위한 전투기 훈련으로, 전투기 소리가 이곳 매향리에서만 발생 되는 것이 아닌데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라는 것은 절대 승소할 수 없을 것이다, 패소하게 되면 망신만 당하고 소송비만 부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전만규는 본인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각 마을에서 15명을 원고로 추렸다. 이석태 변호사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 변호사는 회의를 통해 원고를 결정해 온 줄 알고 바로 소송에 착수했다.



미군기지 앞에서 시위 중인 매향리 주민들의 모습

출처: 전만규 제공

1998년 2월 28일 15명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 정부 등을 상대로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폭격 소음 때문에 수면 장애와 가슴 불임 같은 피해를 보았다며 1억5천만 원의 국가배상신청도 함께 냈다. 국가배상신청 결과가 먼저 나왔다. 1999년 7월 20일 수원지구배상심의회가 국가배상신청을 기각했다. ‘미군의 사격 훈련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훈련으로 인한 주민 피해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이유였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전만규도 승소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법정 투쟁도 매항리 상황을 널리 알리기 위한 투쟁 방법의 하나로 생각했다. ‘쇠사슬 차고 농성에 들어가 농성을 하자! 그래야 애들이 우리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라고 주장했으나 주민 대부분 ‘그런 거 하려면 너 혼자 해라.’였다. 그런 점에서 소음피해 배상소송은 <주민대책위>가 택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투쟁 수단이었던 셈이다.

국가배상은 기각됐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은 3년 만인 2001년 4월 11일 1심 판결이 나왔다. ‘원고 14명²⁶에게 1억3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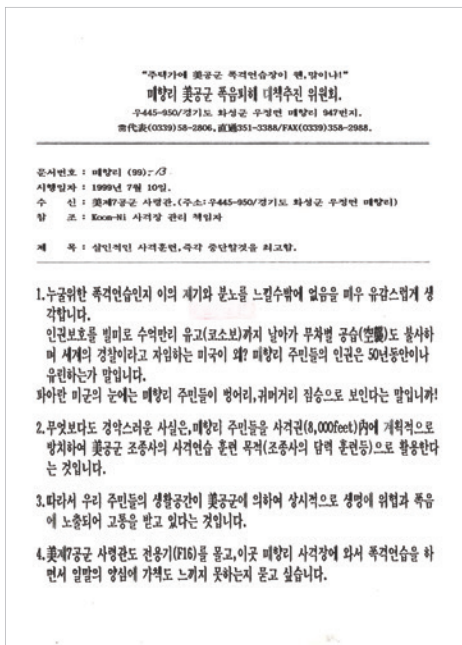
주민들이 요구한 액수보다 적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전후기 소음피해 배상과 관련하여 주민이 일부라도 승소한, 주민들의 피해배상을 일부라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 굉장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다. 많은 언론이 보도한 덕분에 2차 소송단 모집 때는 많이 모였다. 하지만 그때도 각 마을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2심인 고등법원 재판에서는 뒤집혀 패소 당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거의 빠졌다.

2차 소송단 원고 2,222명은 2001년 8월 13일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1인당 2천만 원씩으로 올려 총 444억4천만 원이었다.

매항리 주민 15명이 맨 처음 제기했던 ‘매항리 사격장 소음피해 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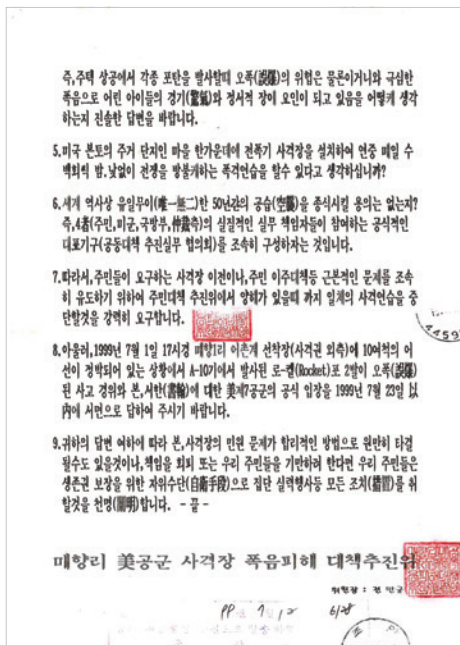
26 15명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도중 매항1리 노인회장 백영기 씨가 사망하여 최종 원고는 14명만 남았다.

배상청구소송'은 2004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주민 일부 승소로 최종 확정되었다. 대법원 판결로 14명 계좌에 돈이 들어온 뒤에야 소송에 참여한 사람이 많았다. 그렇게 소송은 7차까지 이어졌지만 시효 때문에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조금만 받은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됐다. 민사 배상 시효가 3년이었기 때문이다.



미공군에 보낸 사격장 폭음피해에 대한 서신(1999.07.12.)

출처: 전만규 제공



환경정화와 원상복구 투쟁

매항리 주민에게는 별것이 다 ‘투쟁’이었다. 소송도 환경정화와 원상 복구도 ‘투쟁’이었다. 매항리 주민들은 폭격장이 폐쇄된 뒤 폭격장 폐쇄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환경정화와 원상복구’ 투쟁을 했다. 바다와 육상 폭격장의 환경도 자신들이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직접 정화하고 복구한 것이다.

SOFA에도 ‘미군이 오염시키면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국 측에서 치유나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그 비용도 미국이 대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SOFA에는 환경 관련 조항 자체가 없다.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도 오염자부담원칙은 없다. 그래도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한미 두 나라 정부에 환경정화 후 반환을 요구했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다.

2006년 9월 주민들은 실제 터질 수도 있는 불발탄까지 화물차에 싣고 국방부와 미8군사령부에 가서 항의시위도 했지만 역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은 철수 전에 미국의 폭탄 수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폭격훈련으로 매항리 농섬 주변 갯벌에 처박힌 폭탄을 수거하기 위한 소요기간과 비용 추정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이 밝혀졌는데, 하나는 개펄에 처박힌 포탄 가운데 불발탄이 있을 수 있어 약 6m 깊이까지 파낼 수 있는 강한 수압의 물을 써서 포탄을 꺼내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개펄 속 포탄을 빼내는 데만 약 4년의 세월과 7백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었다. 주한미군은 이러한 사실만 알아본 뒤 후속 조치 없이 철수해 버렸으며, 우리나라 역시 막대한 예산과 불발탄의 위험성 때문에 폭탄 수거 및 환경정화 사업을 내버려 두었다.

<주민대책위>는 정부의 예산으로 포탄을 제거하고 미군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거부하였다. 급한 건 주민들이었다. 폭격으로 인해 어장이 망가진 것도 엄청난 피해지만 폭격에 따른 오염된 어장이라는 일반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어민들의 피해는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뿐 아니라 불발탄 제거 등 환경정

화가 되어야 매항리 주민들도 안전하게 조업을 할 수 있으므로 매항리 주민대책위에서 논의했으나, 인명사고의 위험성과 막대한 예산 문제로 모두가 소스라치며 반대하였다. 그래서 결국 전만규가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고, 주민들이 직접 포탄을 수거하게 되었다. 수년에 걸쳐 약 450톤가량의 포탄을 직접 수거하였다.

농섬 포탄 수거 과정에서 나온 불발탄 일부는 주민들이 직접 해체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대부분은 국방부 지시로 공군 폭발물 처리반 연인원 800명이 투입되어 불발탄을 선별하고 군 사격장 폭발물 처리장으로 옮겨 뇌관을 제거한 후 주민대책위에 반환하였다. 주민들은 매항리 앞바다에 들어가 직접 수거한 엄청난 양의 포탄과 뇌관을 제거한 불발탄을 <주민대책위> 앞마당에 쌓아 놓았다. 이를 본 매항리 방문객들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매항리 주민들이 이토록 무지막지한 폭탄들이 터지는 데서 생활했다는 피해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 ‘환경정화와 원상복구 투쟁’이 웬만한 시위보다 홍보 효과가 훨씬 컸던 셈이다.



바닷물이 썰려 얼어버린 겨울날, 매항리 주민들이 버려 수확하는 콤바인을 개조하여 농섬 주변의 포탄을 채굴 및 수거하는 모습
출처: 전만규 제공

국내외 연대투쟁

2000년 5월 8일 매항리 앞바다 폭탄투하 사건을 계기로 한미 두 나라 정부는 잠시 폭격을 중단하고 주민 피해 상황을 합동 조사했다. 하지만 한미합동조사반은 6월 1일 “주민 피해는 없었다. 내일부터 폭격을 재개한다.”라고 발표했다.

6월 2일 매항리 폭격장 여기저기 주황색 깃발이 올라갔다. <주민대책위> 바로 앞 폭격장 철조망 안에도 주황색 깃발이 펄럭였다. “폭격 재개 규탄 기자회견”에서 성명서 발표를 마친 전만규는 철조망을 뛰어넘어 미군 폭격장 안으로 들어가 주황색 깃발을 끌어 내려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북북 찢었다. 이 일로 현장에서 체포된 전 위원장은 또 구속되었지만, 정글의 맹수처럼 포효하듯 분노한 모습으로 황색 깃발을 찢는 이 사진이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퍼짐으로써 ‘세계적인 평화운동가’, ‘국제적 반미 투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매항리 주민대책위>는 최용운 임시위원장 체제로 들어섰다. 최 임시위원장은 만나는 사람마다 도와 달라고 했다.

“저는 전만규 위원장만큼 잘 알지 못합니다.

안 도와주시면 전 아무것도 못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 행동>은 <매항리 주민대책위> 최용운 임시위원장과 함께 ‘전만규 위원장 석방’과 ‘폭격장 폐쇄’ 투쟁을 벌였다. 6월 6일 ‘매항리 폭격장 폐쇄를 위한 1차 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집회 시작 전부터 집회가 끝날 때까지 속보 형식으로 계속 새 소식을 올렸던 <오마이뉴스>는 이날을 ‘우리나라 사상 최대의 미군기지 반대 시위의 날’로 규정했다. 수십 년 고립돼 있던 매항리에 전국에서 3천5백여 명이 몰려와 ‘사격장 폐쇄’와 ‘미군철수’를 외치며 폭격장 철조망을 1km 정도 끊어냈다는 이유에서였다.

첫 대규모 연대 집회가 매항리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부와 경찰, 언론은 합작이 되어 ‘순수한 주민’과 ‘외부 불순 세력’을 갈라치기를 했고 거의 언제나 성공했는데 매항리에서는 첫 번째 연대 집회에서 그 모든 갈라치기가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이다.

매향리에 살지도 않고 땅도 한 평 없는데 매향리까지 가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불순세력’이라고 믿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매향리 사람들이 폭격으로 죽어 나가도 슬퍼할 줄 모르고 전혀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불순세력’ 아닐까? 매향리 주민들은 ‘제발 우리 좀 도와 달라. 우리 좀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남들이 ‘외부 불순세력’이라고 욕하든 말든 매향리 주민들에게는 ‘우리를 도와 주러 온 은인들’이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매향리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투쟁은 비교적 순조롭게 잘 될 수 있었다. 첫 번째 연대 집회를 계기로 매향리 폭격장 폐쇄에 동의하는 시민사회운동 단체 연대 모임이 힘을 얻기 시작했고, 6월 19일 130여 운동단체²⁷가 <매향리 미공군국제폭격장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문정현 신부)를 결성했다.

6월 20일 아침에는 최중수 신부와 대학생 김상진 씨가 함께 농섬을 점거했다.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미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농섬에 사람이 있으니 일단 폭격을 중단해 달라.’고 하자 미 대사관 직원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책임 못 진다. 누가 농섬에 들어가라고 했나? 안 들어갔으면 될 것 아닌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한국 국방부에도 전화했는데 국방부 관계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격 중단을 요청할 순 없다. 그건 우리 권한 밖이다. 전화 내용을 미군사령부에 전하기는 하겠다.’

미공군 조종사들은 A-10기를 아주 낮게 몰며 최중수 신부 일행을 위협하며 폭격을 계속했다. 조종사 헬멧이 훤히 보일 정도로 낮게 떠서 위협 폭격을 하는 미군 조종사를 향해 신부의 상징인 로만칼라를 보여주며 폭격 중단을 요청했지만 미군들은 세 차례나 저공비행을 하

27 약 130개 단체 가운데 대다수가 가맹된 연대 단체도 많았기 때문에 모두 개별 단체로 추산할 경우 중복되는 수를 제외하더라도 약 200여 개 단체가 모인 최대 규모의 연대 투쟁 기구였다. 결성 이후로도 많은 단체가 추가로 들어와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며 폭탄을 투하했다.

이들이 헬기로 연행되어 화성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동안 대학생 6명이 또 농성을 접거했다. 화성경찰서는 21일 이들까지 8명을 모두 입건했다. 그 뒤로도 농성 접거 투쟁은 이어졌고 연행과 입건이 계속 늘어났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거의 주말마다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과 매향리를 오가며 ‘매향리 폭격장 폐쇄’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했다. 정부는 거의 모든 시위를 불법으로 몰아세우며 원천봉쇄와 ‘고착’²⁸을 했지만 논길로 산길로 수많은 사람이 매향리를 찾았다. 물론 도중에 어디선가 경찰들에게 감금이나 ‘고착’을 당하는 바람에 계획했던 대규모 집회를 못 하고 완전히 쪼그라진 약식 집회로 끝내기도 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주민대책위>와 함께 국제연대까지 해가며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을 이어나갔다. 대규모 집회 때마다 미국과 독일,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등 세계 여러 나라 평화운동가들이 매향리를 찾았다. 미국 식민지 푸에르토리코의 비에케스에서 온 한 평화운동가는 ‘비에케스도 미군 폭격 피해가 심각하지만 매향리에 와 보니 비에케스는 덜한 편이다. 언론에서 매향리를 제2의 비에케스라는데 와 보니 비에케스가 제2의 매향리 같다.’라고 했다.

한국의 평화운동가 여러 명도 여러 나라를 연대 방문했다. 오키나와와 일본, 필리핀 등지를 다니며 그 나라 평화운동가들과 그 지역 미군기지 등을 항의 방문했고 문정현 상임대표와 함께 백악관 항의 집회에도 참여했다. 양심적인 재미교포 시민사회 운동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미국 상원의원도 만나고 <코리아소사이터티> 등 ‘지한파’ 관계자들도 만났다. 가는 곳마다 SOFA 전면 개정과 매향리 폭격장 폐쇄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문정현 신부 일행은 비에케스도 연대 방문하

28 시위 단체 대표들을 차에서 못 내리게 전경들이 차를 둘러싸기도 하고,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사람을 둘러싸는 바람에 고착 당한 시민들이 아스팔트 도로 위에 머물며 식사를 하기도 했다.

였다. 2000년 7월 16일 매향리에서는 국제연대 행사로 보름달을 보며 평화를 기원하는 ‘보름달 축제’가 열렸다. 그날은 음력 6월 보름이었고 오키나와와 필리핀에서도 같은 이름의 연대 집회를 열었다.

매향리에서는 전만규 석방 환영 집회도 겹쳐서 열렸다. 그런데 하필 그날은 개기월식이었다. <주민대책위> 마당에서 열린 집회는 그런 대로 괜찮았지만 집회 후 폭격장 정문까지 행진하는 게 문제였다. 주민들이 횃불을 준비해 자연스레 횃불 행진이 되었는데 행진을 시작하고 얼마 못 가 경찰들에 가로막혔다. 그 과정에서 10여 명이 연행되었다. 이 행사를 주최한 임시주민대책위 최용운 위원장과 <범국민대책위원회>의 공동집행위원장 2명(김용한 김종일)도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재판을 받았다.

주민들의 가열찬 투쟁과 국내외 평화운동가들의 이런 ‘굵은 민중 연대 투쟁’ 덕분에 매향리 폭격장은 54년만인 2005년 8월 드디어 전면 폐쇄되었다.



매향리 폭격장 폐쇄 후 지역 주민들과 포천시 공무원들이 미군기지를 탐방하고, 관제탑 계단과 건물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출처: 전만규 제공

03

보존·복원해야 할 매향리의 상징물들

2016년 경기도는 매향리 미군 폭격장의 지휘소 등 건축 존치물을 경기도 우수 건축자산 문화재 제1호로 등록했다. 매향리 주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해서도 아주 잘한 결정이다.

경기도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국방부는 엄청난 실수를 할 뻔했다. 54년 동안 미군 편만 들었던 국방부가 폭격장 시설물마저 완전히 철거해 버리겠다고 한 것이다. 환경정화를 한다는 핑계였지만 매향리 주민들은 폭격장 폐쇄 뒤까지도 주민 편에 서지 않는 국방부를 상대로 또 싸워야 했다. 전만규는 매향리 반환 미군기지를 향후 반전 평화 운동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었기에, 사무실 등 미군기지 시설물 철거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건물 지하에 누출된 기름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대형 파이프를 박아서 정화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환경정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면 환경정화를 하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철거는 하지 마라!’고 요구했다.

물론 그 건축물들이 매향리 주민들한테 괴물이고 흉물이긴 하지만 그런 역사 기록물도 남아 있어야 다음 세대들이 우리 같은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누구나 보고 잊지 않도록 존치해야 매향리 상황을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고 관광 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물론 매향리 주민 사이에도 이견은 있었다. ‘구질구질한 시설물 전부를 철거하고 반듯한 새 건물을 짓자!’라고 주장한 시의원도 있었다. <주민대책위>는 그런 정치인들과도 싸웠다. 그렇게 해서 관제탑 및 사무실 등의 주요 시설물들을 존치할 수 있었다. <주민대책위>의 결정은 이번에도 옳았다. 화성시는 우수 건축자산 등록에 따라 매향리 폭격장 내 건축물을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화성시와 경기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매향리 폭격장의 ‘우수건축 자산’을 어떻게 존치하고 어떻게 복원할 것이며 어떻게 조성하여 역사에 보탬이 되게 할 것인지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 반드시 매향리 주민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지금도 화성시 민관협의체에 <매향리 주민대책위> 대표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협의체는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중심에 놓고 사고해야 한다.

그런데 주민 의견은 여전히 무시되고 있는 느낌이다. 매향리에 들어서 있는 유소년 야구장 ‘화성 드림파크’ 건립 때도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세계적 건축설계자라는 마리오 보타가 설계했다는, 완공 단계에 있는 건축물도 마찬가지다. 전만규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 건축물은 가슴에 대못 박아 놓은 것도 같고 쇳덩어리가 콕 찍어 누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전에는 미군이 폭격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정서를 파괴했다면 이제는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거대한 괴물이 들어서서 거라고 봐요. 왜냐? 우선 평화기념관은 역사와 문화, 군사, 외교, 남북분단 등까지 다 포함해서 철학적인 의미까지 다 답아서 매향리 자연환경과 매향리 주민 정서에 맞는 건축물로 조성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야트막한 구릉지와 바닷가와 어울리고 개펄도 환경도 해치지 않으면서 잘 어울리는 건축물이 들어서면 좋겠는데 이 건축물은 도시 빌딩 숲에서나 어울리는 괴물 같아요. 이 건축물이 매향리 전체를 압도하고 있어요. 자연환경도 압도하고 있고 주민들도 압도하고 있어요. 일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제한적이고 낡은 사고로 이런 흉물을 만들어 놔어요.”

전만규는 건축이나 환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어민이다. 그런데 정치인과 공무원,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왜 어민 한 사람의 생각에도 못 미칠까? 이제라도 공청회나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하여 <매향리 주민대책위>의 주장과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세심하게 입안해서 구현했으면 한다.

물론 주민 요구를 100% 반영하기는 어려울 테지만 반영하기 힘든 부분은 왜 그런지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눠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조목조목 설명, 설득해서 최종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주민대책위터, 매향리 평화역사관

<매향리 주민대책위> 터는 매향리 투쟁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상징이다. 주민들이 맨 처음 투쟁을 시작한 1988년도 12월 12일의 첫 시위 장소이다.

육상 폭격장 철책과 맞닿아 있는 그곳은 언덕배기라서 육상 폭격 목표물과 미군기지는 물론, 해상의 폭격 목표물인 농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군 전투기가 마을 상공을 순회하다가 <주민대책위> 건물 옥상에서 소형 폭탄을 투하하고 기관포를 발사하면, 폭탄이나 기관 총알이 목표물에 떨어졌다.

또한, 매향리 일대 마을의 중심에 있다. 1995년 땅 주인이 이곳에 농가용 창고를 지었는데, 전만규는 창고 주인을 어렵사리 설득하여, 그곳에 <매향리 주민대책위> 투쟁본부를 설치하였다. <법국민대책위원회>도 이곳을 연대투쟁의 중심으로 삼았다.

이렇게 역사적이며 상징적인 터라 매향리 주민들은 ‘소음피해 배상지연 이자금’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였다. 치열하고 지난한 매향리 투쟁의 산실이던, 이곳 미군 폭격장 폐쇄 투쟁본부를 위대하고 경이롭고 엄숙한 공간 <매향리 역사관>으로 승화시켜 놓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매향리 역사관> 광장에는 무시무시한 폭탄 잔해들

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농섬 주변 개펄에서 수거한 것인데, 폐폭탄 수거를 반대했던 매향리 주민들은 폐폭탄 전시도 반대했다. ‘전만규가 정신이상자다. 왜 돈을 들여서 저걸 저기다 전시하느냐? 차라리 고철로 팔면 돈이라도 될 텐데….’ 하지만 전만규는 이렇게 주장하며 폐폭탄 전시를 강행하고 있다.

‘저 폐폭탄들은 금덩어리보다 더 소중한 보배이며 강력한 주민 저항 수단이다. 우리가 당해 온 수십 년의 피해를 저걸로 다 얘기할 수 있다. 말이 필요 없다! 매향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 포탄들이 증명하고 기록하고 있지 않냐! 앞으로 여러 예술 작가들이 여러 형태의 조형물로 새롭게 탄생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매향리 평화공원이나 매향리 평화기념관, 농섬 등에 설치해 놓고 싶다. 그러면 국내외 관광객들과 평화운동가들, 그리고 후세에까지 큰 교훈을 안겨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는 중공군의 집중 폭격을 받았던 대만의 금문도의 예를 들었다. 금문도 주민들은 지금 그 폐폭탄을 녹여 사각 식도 등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있는데, 매향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농섬 복원

경기도는 농섬을 생태학적으로 복원하려 하고 있다. 농섬에 나무를 심어 생태공원으로 만들 계획인 듯하다. 그러나 농섬은 전쟁과 파괴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농섬은 폐쇄되기 직전 파괴된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다. 전만규는 이를 염두에 두고 2005년 8월 미군 폭격장 폐쇄 당시 농섬에 들어가 360도 뱅뱅 돌아가며 사진을 다 찍어 놓았다. 그 사진을 바탕으로 폭탄이 농섬 곳곳에 처박혀 완벽하게 파괴된 모습을 재연하여 매향리의 역사적 의미와 자연환경 보호 의식을 고취하는 역설적 상징으로 복원해야 한다.

경기도가 하려는 생태 복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농섬에 나무를 심어서 초록빛을 만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농섬은 50년

넘는 폭격으로 파괴된 모습 그대로 재현해 봐야 의미가 산다. 그래야 전쟁과 파괴가 인간에게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가져다주는지, 얼마나 큰 해악인지, 적나라하게 알려 주는 의미가 있다.

농섬을 파괴된 형태 그대로 복원해야 그 어떤 사진이나 영상, 그 어떤 말이나 글보다 실감 나는 현장 탐방 코스가 될 것이고 반전 평화와 인권, 자연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주황색 깃발

매항리 폭격장의 또 다른 상징은 주황색 깃발이다. 매항리 폭격장에서 펠럭이며 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주황색 깃발은 반드시 복원 설치해야 한다. 폭격장을 폐쇄하기 전날 폭격장 폐쇄 정보를 미리 들은 전만규가 몰래 폭격장에 들어가 주황색 깃발을 고이 가져다 <주민대책위> 전시실에 보존 전시하고 있는 깃발 원본도 있다. 그걸 설치하고 그 깃발의 의미도 설명판에 써넣어야 한다.

주황색 깃발은 임신부 폭사 사고 뒤부터 마을 해안 쪽에 내걸렸다. 주황색 깃발이 내걸리는 날은 어느 사람도 바다 조업을커녕 바다 근처에도 나갈 수 없었다. 조상 대대로 물때에 맞춰 바다에 나가는 게 생업이었던 매항리 주민들은 그때부터 주황색 깃발이 내려져야 조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농사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매항리 해안 깃발은 거의 밤낮없이 내려오지 않았다. 육상의 깃발은 해가 지면 거의 내려오긴 했지만, 바다 쪽 깃발은 밤에도 거의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폭격이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농사 지으러 논에 들어가거나 바다에 나가 조업을 할 수 있었다. 어민이라면 물때에 맞춰서 바다에 드나들며 조업을 하는 건데 매항리 주민들은 주황색 깃발이 걸려 있으면 못 나가고 그게 없어야 나갈 수 있던 것이다.



폭격을 알리는 붉은 깃발과 출입금지 안내판의 모습

출처: 전만규 제공



육상 표적과 소형 폭탄투하 탄착점

육상 폭격장과 바다가 이어지는 모래밭에는 대형 표적 네 개가 있었다. 미 공군 폭격기 조종사들은 그 표적을 맞추기 위해 매항리 주택 바로 위로 저공비행을 했다. 그래서 표적이 없으면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다. 표적을 복원하면 여기가 폭격장이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육상 표적 사진 자료는 많이 있으므로 복원하는데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육상 표적과 소형 폭탄투하 탄착점의 복원 필요성을 한 가지만 들자면 어느 조형물이나 평화박물관보다 특별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표적 지역 모래밭에 각종 폐폭탄이나 총탄을 묻어 놓고 주황색 깃발을 내림과 동시에 달려가 포탄과 총탄을 캐내는 게임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도 있을 텐데 매항리 주민들의 특별한 애환이 담긴 역사 문화를 재연하는 체험 행사가 될 것이다.

매항리 폭격장 존치건축물

주한 미 공군 장병들과 「록히드 마틴」, 「아크틱 슬로프」 직원들이 사용했던 곳이므로 당연히 복원해야 한다. 이런 공간은 미군들의 유흥 문화와 식사 환경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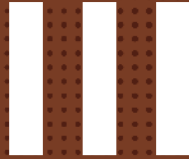
미군 부대장과 병사들의 숙소도 원형 복원해야 한다. 이것은 건축학이나 역사학 차원에서도 당연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이런 공간은 매항리 역사를 알리는 각종 예술 작품 전시실이나 공방 등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매항리를 볼거리와 들을 거리, 먹을거리, 느낄 거리가 풍부한 관광지로 만드는 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군들의 폭격 통제 시스템을 느낄 수 있도록 관제탑과 사무실도 복원해야 한다.

참고문헌

-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매향리의 역사·문화, 현대사 백서. 화성시.
-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매향리의 역사·문화, 현대사 백서.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4(3).
- 윤충로. (2014). 전장의 일상화와 고통의 재구성: 매향리 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102호
- 국민일보. (2005.8.24.). 매향리 토양오염 심각...농섬 사격장 남·카드뭴.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216436>(검색일: 2021.12.9.)
- 동아일보. (2020.6.9.), [人醫協 역학조사]매향리주민 납중독-소음성 난청 증세.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000609/7544613/1>(검색일: 2021.12.19.)
- 연합뉴스. (2000.5.18.). 주한미군, 우라늄포탄 보유 시인. <https://www.yna.co.kr/view/AKR20000518002400014>(검색일: 2021.12.9.)
- 연합뉴스. (2000.5.19.). 미공군, 매향리 훈련 때 하루 11회꼴 출력. <https://www.yna.co.kr/view/AKR20000519005300004>(검색일: 2021.12.16)
- 한겨레. (1989.11.26). 미공군 사격장 인근주민 35% 난청. https://www.hani.co.kr/arti/legacy/legacy_general/L600197.html#csidx83e6d1a52f85f8882b5b63c145241fd(검색일: 2021.12.19.)
- 한겨레. (2000.5.12.). [주한미군] 미군 오폭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0/005000000200005121923314.html>(검색일: 2021.12.29.)

(우수건축자산 이야기)



쿠니사격장, 우수건축자산으로서의 주요 가치

01

쿠니사격장의 배치와 공간

쿠니사격장의 자연·지리적 환경

쿠니사격장은 경기도 화성시 서남부 조암반도 끝에 위치하고 있어 서남쪽으로는 아산만에, 북쪽으로는 남양만에 접하고 있다. 서해를 향해 돌출해 있는 조암반도는 아산만과 남양만을 끼고 반도, 곶, 만 등이 복잡한 지형을 이루고 있어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의 형태를 하고 있다. 조수 간만의 차가 커 만조 시 물이 들어오지만, 간조 시에는 드러나는 비교적 평평한 해안 퇴적지형인 간석지가 넓게 발달해 있다.

매항리 앞 바다에는 농섬, 옷섬, 구비섬, 방섬 등이 있는데 농섬은 매항리 쿠니사격장 해상사격장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매항리 해안가에서 약 1.5km에 위치한 7,934㎡ 면적의 국방부 소유 무인도이다. 북동-남서 방향으로 기다란 타원형을 하고 있는 농섬은 긴 폭은 약 150m, 짧은 폭은 85m 정도로 폭격장으로 사용되기 전에는 수목이 우거져 주민들이 땀감을 구해 쓰고, 산새들이 산란하던 곳이었다. 농섬 오른쪽으로는 옷섬이라 불리는 작은 섬 하나가 있는데, 옷섬 역시 국방부 소유의 무인도로 면적은 약 1,200㎡이다. 물이 빠지는 간조 시에는 농섬과 옷섬 사이 길이 열려 걸어갈 수 있다. 해안가에서 약 750m 떨어진 곳에는 농섬보다 먼저 미 공군 폭격 훈련의 표적이 되

있던 구비섬이 위치하였다.¹

쿠니사격장 주변의 해안가는 조수간만의 차가 커 넓은 갯벌이 분포하여 해산물이 풍부하였고, 쿠니사격장 바로 북쪽 해안으로는 염전이 위치하여 소금생산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간척사업을 통해 해안가 갯벌의 많은 부분이 매립되며 해안선이 크게 변형되었다. 쿠니사격장의 북쪽으로는 매항리와 궁평항에 걸친 갯벌을 막은 화성방조제(화옹방조제)가 있다. 화성방조제는 1991년 화옹간척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10년을 넘는 사업을 통해 2002년 3월 22일 총 길이 9.8km의 규모로 완공되었다. 화성방조제의 완공으로 방조제 북쪽으로는 인공호수인 화성호가 생겼다. 쿠니사격장의 남쪽인 고온항과 석천항 사이의 매항리, 석천리, 이화리 일대에는 1979년 총 3,524,000㎡의 아산국가산업단지 경기우정지구가 지정되었다. 이곳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현 오토랜드 화성)이 1989년 준공되었으며, 현재 기아자동차 공장 동측으로는 유보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192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지도를 통해 쿠니사격장 주변 환경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1950년대 이후 쿠니사격장이 있는 매항리와 농섬 일대는 미군 폭격장으로 피해를 겪었지만, 1979년 이후 국가산업단지와 화성방조제의 설치로 쿠니사격장 주변의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 그리고 2005년 마침내 쿠니사격장이 폐쇄되면서 쿠니사격장이 있었던 일대는 평화생태공원이 되었고, 황폐화되었던 농섬과 해안가의 환경도 점차 회복 중이다. 매항리 갯벌 14.08㎢에는 칠면초 군락을 포함해 20여종의 염생식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굴, 버들갯지렁이 등 갯벌에 사는 동물도 169종에 이른다. 또한 해양보호생물인 저어새가 출현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2021년 7월 해양수산부에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쿠니사격장에서 농섬 사이의 갯벌은 습지보호지역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1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2017, p.37.)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920년대 ~ 2000년대 쿠니사격장 주변 환경의 변화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www.ngii.go.kr(검색일: 2021.12.21.)

쿠니사격장의 입지적 특징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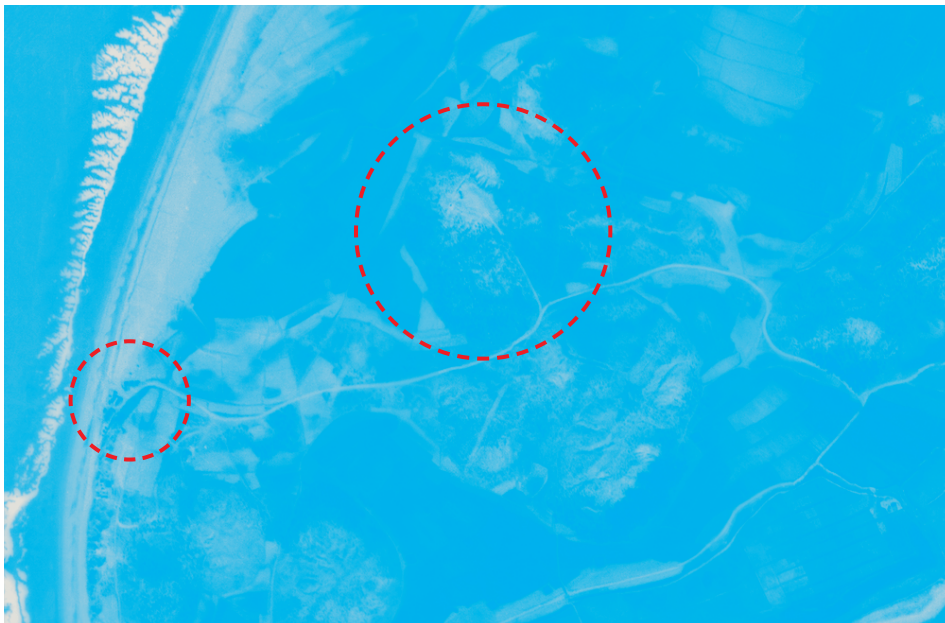
쿠니사격장은 1952년부터 2005년까지 미 공군사령부 산하 대한민국 주둔 제7공군 소속 미군 전용 폭격장으로 사용된 곳으로 경기도 평택시 송탄에 위치한 오산공군기지에서 약 27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오산공군기지(K-55)는 1952년 7월 활주로 건설을 시작하여 12월 완공함으로 미 제5공군 제18전투폭격비행단²의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다. 1951년 8월 이후 매항리 앞 농섬에는 미군 폭격이 시작되었고, 1952년경부터 매항리에 미군들이 주둔하기 시작하였다.³ 1954년 2월 19일 이후 매항리 일대는 공식적으로 육상 및 해상 폭격 훈련장으로 사용되었다.⁴ 처음 매항리 일대에 미군이 임시 막사를 설치하고 주둔했던 곳은 해안가 인근이었으나, 1962년경 현재의 평화기념관 부지 일대로 시설을 신축하고 이전하였다.⁵ 이는 항공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1954년 항공사진에서는 해안가에 위치한 임시 막사들과 현재의 관제탑 위치에 있는 시설물 하나를 확인해 볼 수 있으며, 1966년 항공사진에서는 해안가에 있는 막사들이 철거되고, 현재의 평화기념관 부지 위치에 여러 동의 건물들이 건축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 제 18전투폭격비행단은 1982년 제 51전투비행단으로 개편되었으며, 제 5공군은 1986년 제 7공군으로 재소집되었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기전사업단(2015, p.147.))

3 윤충로(2014)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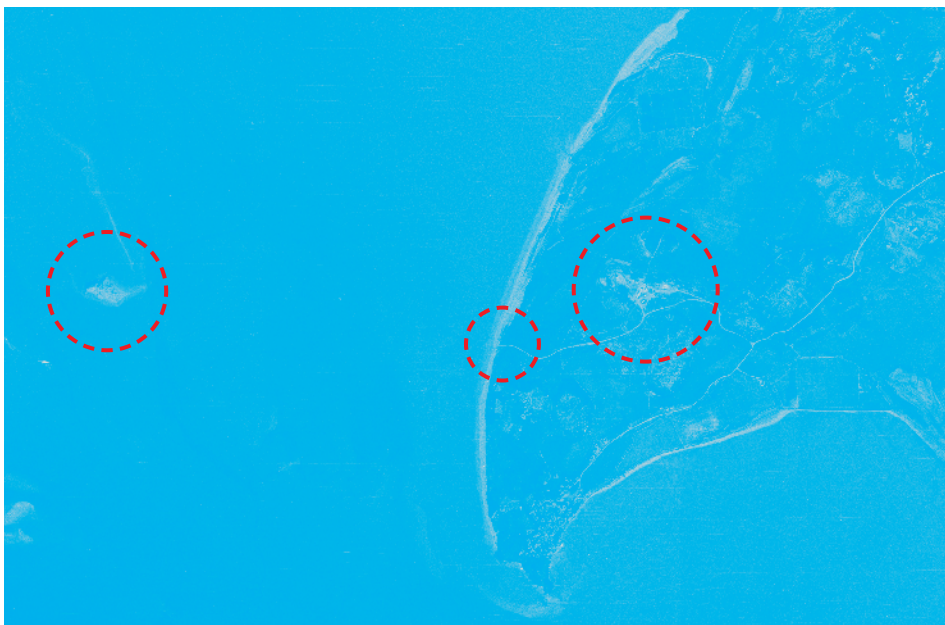
4 미군이 매항리 해안지역에 주둔하기 시작한 것은 1952년 겨울부터 1953년 봄 사이로 추정하는데, 이는 1953년 5월부터 1년간 미제7공군 제18전투폭격비행단 8통신대대에서 복무했던 미국인 캐드월러더(Cadwallader) 및 매항리 토박이 김영천, 지기선, 그리고 1953년 겨울 화상을 입어 미군 막사에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했던 모녀, 캐드월러더와의 통역을 맡았던 미군기지 종업원이자 매항1리 원주민인 백완기의 증언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2017, pp.99~100.))

5 김영천의 구술에 따르면, 미군들은 1953년 4월쯤 고온리 해변에 둥그렇게 하우스처럼 만든 비행기격납고(막사)에서 생활했다고 하며, 백완기의 증언을 간접 증언한 전만규 역시 1952년 미 공군과 미 해병대가 매항리 해안지역에 24인용 군용 천막을 치고 주둔하였으며 이듬해 1953년 전투기 격납고 모양의 함석으로 막사를 지었으며, 1962년 현재의 쿠니사격장 존치물을 건축하여 이전하였다고 하였다.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2017, pp.99~100.))



1954년 항공사진에서 본 해안가의 임시 막사 및 현재의 평화기념관 부지 일대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www.ngii.go.kr(검색일: 2021.12.21.)



1966년 항공사진에서 본 현재의 평화기념관 부지 일대 및 1950년대 처음으로 임시막사가 건축되었던 해안가, 폭격장인 농섬의 위치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www.ngii.go.kr(검색일: 2021.12.21.)

1979년에는 해안사격장이 농섬을 중심으로 반경 8,000ft(약 2.4km)로 확장되었고, 1980년 해안지역 농지를 추가 징발하여⁶ 매항리 앞 해안 1.6km 지점에 위치한 농섬을 중심으로 반경 2.4km 연안해역과 이에 접속한 해안지역으로 구성된 육상 29만평, 해상 690만 평 총 719만 평 규모의 사격장이 되었다. 당시 쿠니사격장의 육상 규모는 1995년 항공사진에서 철책이 쳐져 있는 범위로 확인되는데, 이는 현재의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부지 및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을 포함한 약 29만평의 부지이다. 매항리 앞바다는 미군의 해상 폭격훈련으로 점차 황폐화되었다. 수풀이 가득했던 농섬은 수풀 대신 포탄들이 박혀 있는 민둥산이 되어버렸고, 구비섬은 이제 간조 시에만 섬이 있던 자리에 바위가 듬성듬성 보이는 수준으로 작아져 버렸다.



1995년 항공사진 위에 표시한 매항리 해상 및 육상 사격장의 범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www.ngii.go.kr(검색일: 2021.12.21.)

6 한겨레(2004.4.19.)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쿠니사격장의 배치와 공간적 변천

현재의 쿠니사격장은 사격통제실을 비롯한 미군이 사용하던 시설 물들이 위치한 일대, 즉 현재의 평화기념관 부지 일대를 일컫는다. 하지만 2005년 반환 당시 쿠니사격장의 규모는 육상 29만평, 해상 690만평, 총 7,197,915평에 이르렀다. 육상사격장의 규모를 1995년 항공사진에 표시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은데 이는 현재의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부지 및 화성드림파크 일대와 주변 농경지를 포함한 규모이다. 이 규모는 1968년 확장 이후 2005년 폐쇄 이전까지 유지된 것으로, 쿠니사격장의 경계 주요 지점에는 총 9개의 위병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⁷ 이 중 5개소는 이미 철거되었고, 해안가의 2개소와 남측 출입구의 1개소,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내 1개소 등 총 4개소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쿠니사격장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철책 역시 일부 구간은 철거되었으나, 매향교회부터 육상사격장까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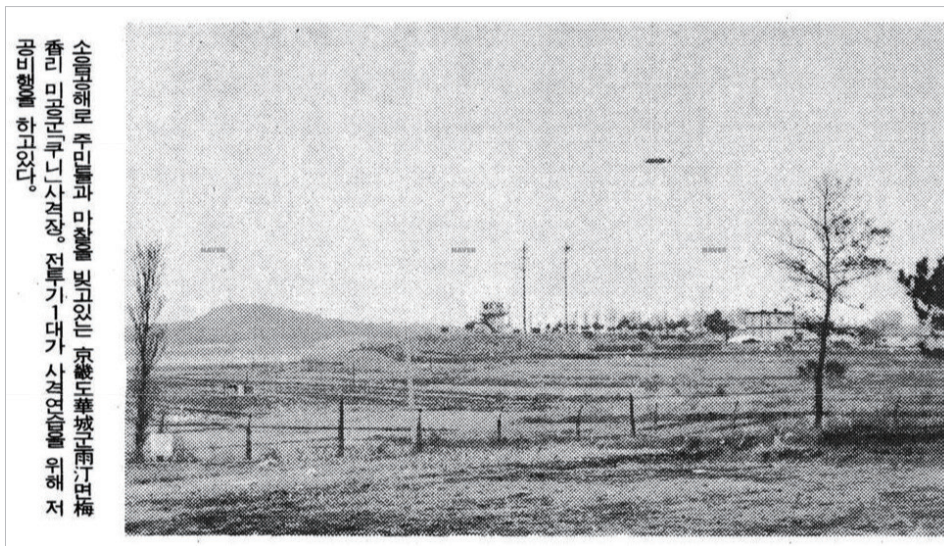
1995년 항공사진에서 본 쿠니사격장 현황 (붉은 색 등그림자는 위병소 위치)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www.ngii.go.kr(검색일: 2021.12.21.)

⁷ 전만규 매향리평화마을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과의 인터뷰(2021.09.20.) 및 1995년 항공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측 일대 구간에는 아직도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격통제실이 있는 일대는 쿠니사격장 전체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대에 속하여 주변을 관측하기에 좋은 위치이다. 미군 해상 사격장의 중심으로 사용된 농섬은 관제탑의 정서측에 위치하였으며, 북서쪽으로는 표적이 설치된 육상사격장이 위치하여 관제탑에서는 시야의 방해 없이 농섬 주변의 해상 사격장과 육상 사격장을 관찰 가능하였다. 1989년 4월 12일 동아일보 기사에 실린 사진을 보면 사격통제실이 위치한 일대가 인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대이며, 사격통제실 주변으로 시야를 가릴만한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는 평화기념관이 건축되어 다소 다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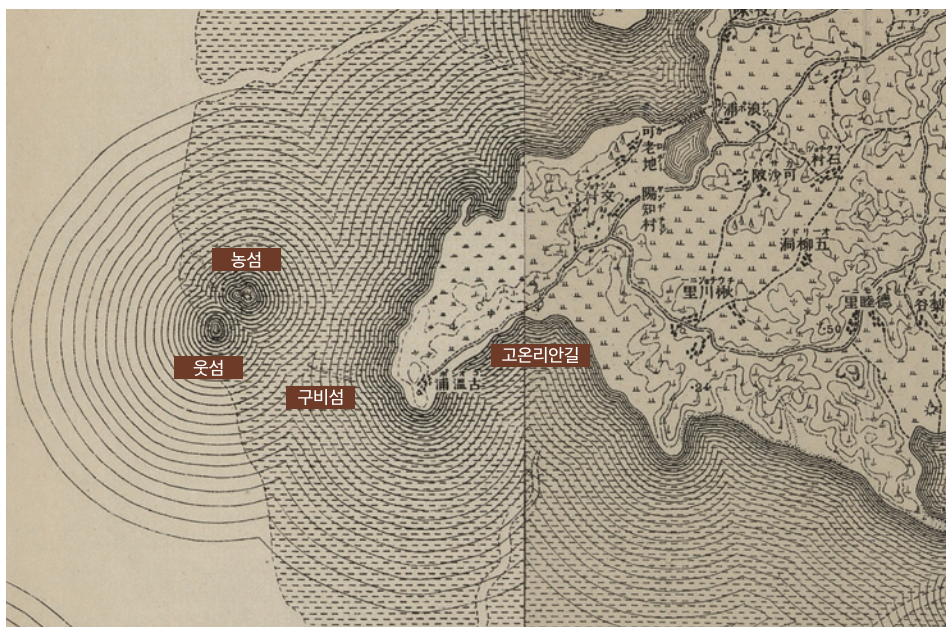


소음공해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京畿道華城郡雨井면梅香리 미공군「쿠니」사격장. 전투기 1대가 사격연습을 위해 저공비행을 하고 있다.

1989년 당시 사격통제실의 모습

출처: 동아일보(1989.4.12.)

쿠니사격장 주변의 도로 상황은 다음과 같다. 301번 국도가 궁평항 쪽으로 꺾이는 로터리에서 매항리 평화역사관을 지나 고온항으로 이어지는 기아자동차로-고온리안길은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도로이다. 쿠니사격장 설치 이후 고온리안길에서 분기하여 북서쪽 사격장으로 향하는 도로가 생겼으며, 1962년 이후 본격적으로 쿠니사격장 건물들이 건축되면서 쿠니사격장 내부 도로가 형성되었음을 1954년 및 1966년 항공사진의 비교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한편 1966년 지도에서는 사격장 시설 남측에는 구릉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이후 사격장이 확대되면서 구릉지의 경사가 깎여 나가 현재와 같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19년 지형도에서 발견되는 고온리안길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www.ngii.go.kr(검색일: 2021.12.21.)

1966년 항공사진에서는 건물 6개동과 관제탑, 헬기장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중 쿠니사격장의 가장 중심인 2번 위치에 있는 ㄱ자형 건물은 현재의 막사 및 식당 건물의 증축 전 모습인 것으로 추정된다. 1번 위치에는 사격통제실, 3번 위치에는 작업장, 4번 위치에는 급수시설 기계실이 거의 비슷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966년 당시에는 쿠니사격장에 상주하는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막사와 식당, 그리고 쿠니사격장의 핵심시설인 사격통제실, 그리고 급수 등을 위한 서비스시설 정도가 갖추어진 규모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1966년은 아직 쿠니사격장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로, 입구에 위치한 위병소(S-2)건물도 발견되지 않으며 헬기장이 현재 평화기념관이 위치한 북측 일대에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1950년대에 비해 1962년 이후 미군 시설이 건축되며 내부 도로 등도 점차 구축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다.



1966년 쿠니사격장 내부 시설 현황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www.ngii.go.kr(검색일: 2021.12.21.)

1995년 항공사진에서는 1968년 이후 사격장의 구역 확장과 시설물 증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사격장 남측 구릉지는 절토되었으며, 헬기장의 남측으로 이동하였다, 사격장 북쪽으로는 해안가에 표적 설치된 장방형의 육상사격장이 설치되었으며, 사격장 내부의 도로도 정비되었다. 사격장 입구에서 북서측으로 나 있던 길은 부지 내부를 가로질러 관제탑으로 향하는 모습으로 변형되었으며, 이전에 경작지였던 사격장 동측으로는 본부 건물을 비롯한 막사와 차량정비소, 창고 등이 들어섰다. 1995년 당시의 건물 현황 및 도로 현황은 쿠니사격장이 폐쇄된 이후인 2008년과 거의 유사하여 1995년 이전 쿠니사격장 내부 건물의 신축 및 증축은 거의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 쿠니사격장 내부 시설 현황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www.ngii.go.kr(검색일: 2021.1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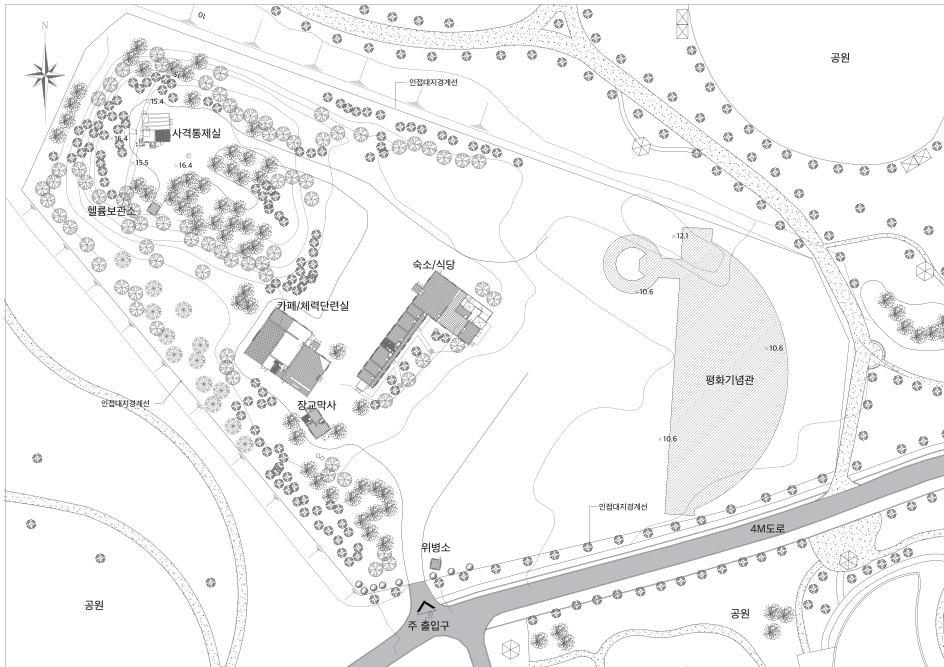
2008년 쿠니사격장 시설물 전수조사에서 쿠니사격장 내에는 막사 및 식당(S-6) 1동, 막사(S-8, T-47) 2동과 장교막사(S-20) 1동, 카페 및 체육관(S-9) 1동, 본부(S-1) 1동과 작업장(s-4) 1동, 차량정비소(S-22) 1동, 보급품창고(S-19) 1동, 사격통제실, 헬륨보관소 2동, 산소아세틸렌후레온 창고 1동, 샤워실 및 탈의실, 위병소 1동, 급수시설 기계실 및 물탱크, 유류탱크 등이 분포하였다. 당시 쿠니사격장의 배치는 가장 서측의 관제탑과 부대시설, 그리고 중앙부의 막사와 카페 및 체력단련장 등의 주요 생활시설들, 그리고 주변부의 차량정비소, 창고, 물탱크 및 유류탱크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2008년 당시 쿠니사격장 시설 현황

출처: 화성시청 제공

2008년 당시 남아있던 시설물 중 1966년 이전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은 막사 및 식당(S-8)과 작업장(S-4), 급수시설 기계실(S-3) 뿐이다. 2008년 건축물 전수조사 이후 현존하는 6동을 제외하고 남은 건물들은 철거되어 현재 남아 있는 건물 중 1966년 이전 건축된 건물은 막사 및 식당뿐이다. 카페 및 체력단련실, 장교막사, 위병소, 헬륨저장실 등은 모두 1966년 이후 건축된 것으로 판단되며, 자격통제실의 경우 위치는 유사하나 건물은 새로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현재 쿠니사격장 배치도

출처: 화성시청 제공

02

건물별 연혁 및 특징

위병소

고온리안길에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으로 진입하는 도로 입구에는 쿠니사격장으로 사용 당시 위병소로 사용되던 건물이 남아 있으며, 매향리평화기념관 부지의 입구에도 위병소(S-2) 건물이 남아 있다. 위병소는 미군기지의 주요 출입구에 위치하였는데, 1995년 당시 쿠니사격장의 경계 주변으로는 총 9개의 위병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005년 쿠니사격장 반환 이후 이루어진 2008년 전수조사에서 위병소는 S-2 위병소 포함 총 7개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이 개수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진입로에 있는 위병소를 제외한 것으로, 2005년 반환 당시에도 최소 8개소의 위병소가 있었다.⁸ 위병소 건물은 대부분 시멘트보강블록으로 만든 단순한 구조의 소규모 건축물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내부에 속한 두 개의 위병소와 같이 정방형 평면에 모임지붕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박공지붕이나 경사지붕을 가진 형태들도 있었다.

8 2008년 화성시청에서 쿠니사격장 내 건축물 촬영 사진을 통해 각각 다른 위치에 있는 위병소 건물이 S-2 건물을 제외하고도 6개소가 확인된다. 그러나 각 위병소의 위치나 크기 등에 대한 상세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입구에 있는 위병소의 사진은 남아 있지 않아 2008년 당시 쿠니사격장에 있었던 위병소의 정확한 개수는 파악하기 어렵다.

현 매향리 평화기념관 부지 내 위병소인 S-2 건물은 9개의 위병소 중 가장 내부에 있는 것으로 1966년 항공사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물은 1968년 쿠니사격장의 전체 영역이 형성된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위병소 건물은 시멘트블록으로 벽체를 쌓고 목재로 지붕구조를 만들어 건축한 창고 구조의 건물로 현재는 두께 10mm 방수 합판을 두 겹 설치한 후 골함석슬레이트로 덮어둔 상태이지만 원래는 시멘트기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병소 건물은 단순한 창고형 건물이지만 대부분 사방으로 창이 나 있고, 기지 내부로 출입구가 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창호 역시 원래는 목재 창호였으나 현재 S-2 건물의 경우 부지 내 다른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샷시창으로 변경되었다.



2008년 당시 남아 있던 쿠니사격장의 위병소 건물

출처: 화성시청 제공



1966년 항공사진에서 본 위병소 위치(좌)와 1995년 항공사진에서 확인되는 위병소 건물(우)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www.ngii.go.kr(검색일: 2021.12.21.)

위병소 건물은 1950-60년대 미군기지에 만들어진 전형적인 양식으로 건축적 특징이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쿠니사격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되어 관문의 역할을 한 시설물로서 장소적 가치가 있다. 쿠니사격장의 운영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위병소 옆에 “붉은 기가 걸려 있으면 출입금지”라 쓰여있는 표지판이 있어 여타 미군기지와는 달리 경작을 위해 사격장 내부를 드나들던 지역 주민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격자무늬의 함석 슬레이트 지붕은 쿠니사격장만의 독특한 특징이며, 사방을 향해 난 창호 등은 위병소로서의 성격을 보여준다. 또한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지붕에 남아 있는 함석연통은 난방의 흔적이다. 현재는 S-2 위병소 포함 총 4개소의 위병소들이 남아 있는데, 위병소들은 쿠니사격장의 경계와 주요 지점을 보여주는 장소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위병소의 역할이 외부를 감시하는 점이라는 데에서 위병소 창으로 보이는 풍경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08년 위병소 모습

출처: 화성시청 제공



2021년 현재 위병소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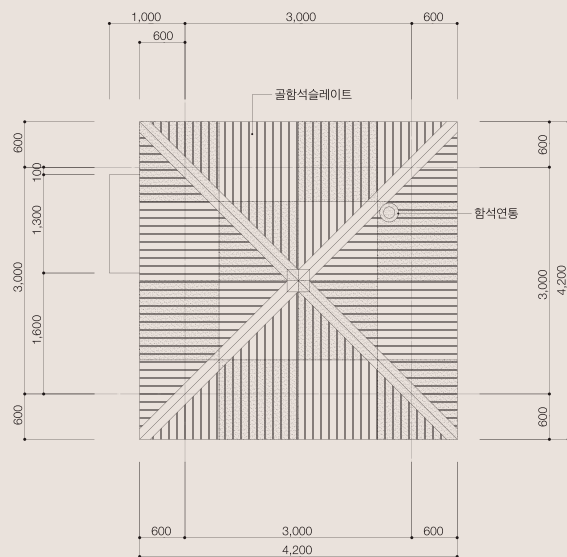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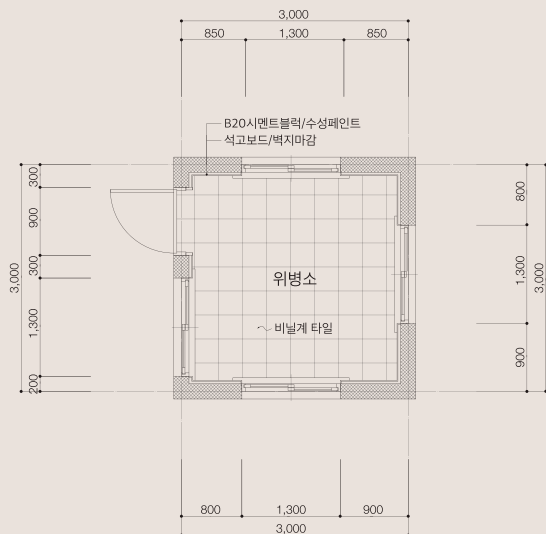


붉은 기가 걸려 있는 해안가 위병소의 모습

출처: 전만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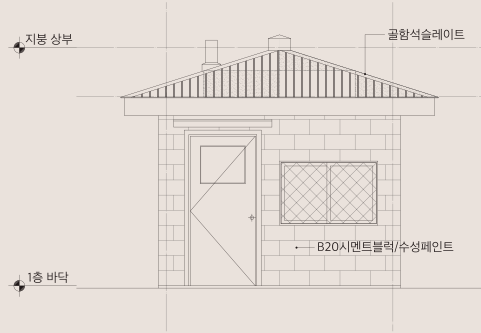


위병소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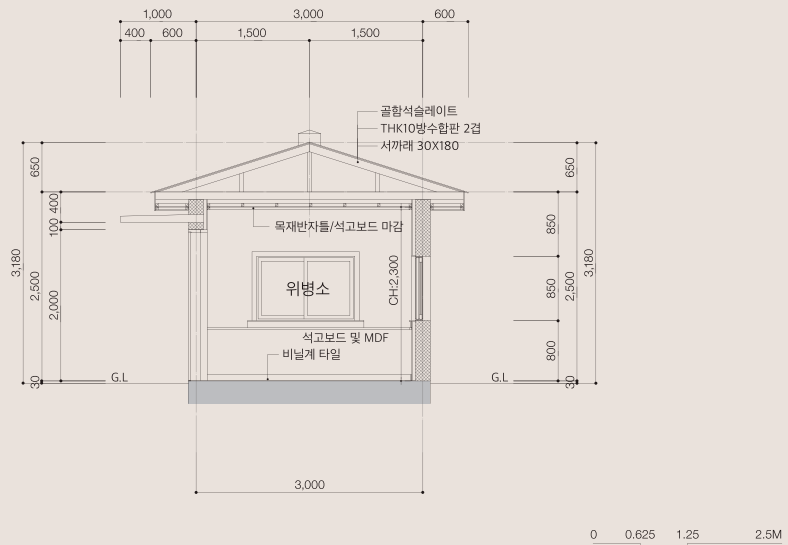


0 0.625 1.25 2.5M

위병소 입면도



위병소 단면도



장교막사

위병소를 지나 쿠니사격장 기지 내부로 들어오면 바로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인 장교막사(S-20)는 쿠니사격장의 지휘관인 대대장이 생활하던 공간이다. 이 건물은 1966년 항공사진에서는 발견되지 않아 그 이후 건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쿠니사격장 기지 내 다른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시멘트보강블록 조적벽체에 각재로 된 트러스 지붕 구조로 되어 있는 단층 건물이다.

장교막사 건물은 거실 겸 주방과 침실, 화장실로 이루어진 비교적 소규모 장교 숙소로 5.3m X 9.3m(약 49.3㎡) 규모의 장방형 평면 형태이다. 이 같은 평면 형태는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독신자 장교 막사의 유형으로, 기록화조사보고서에서는 후면의 돌출된 실을 방풍실이라 명명하였지만 여타 기지의 장교 막사들과 비교해볼 때 보일러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장교막사는 2005년 반환 이전까지 사용된 생활공간으로 개보수가 계속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군기지 내 전기는 대부분 110V인 반면 장교막사 화장실 내에는 220V가 설치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1966년 항공사진에서 본 장교막사 위치



1995년 항공사진에서 본 장교막사 위치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www.ngii.go.kr(검색일: 2021.12.21.)

2008년 건축물 전수조사 당시에는 장교막사 건물의 기단부와 진입 계단 등이 잘 남아 있었으나 현재는 그 부분은 사라진 상황이다. 하지만 지붕 구조를 비롯한 전체적인 구조와 평면 유형은 잘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출입구의 캐노피와 출입구 옆 조명 등은 장교 막사 건물의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창호의 경우 침실과 거실, 주방, 화장실에 각각 설치된 것으로 재료는 변경되었으나 원래의 형태와 위치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건물들과 달리 이 건물의 지붕에는 격자무늬가 없으며 골함석 슬레이트가 아닌 아스팔트싱글로 마감되었다. 아스팔트싱글은 쿠니사격장을 제외한 기타 미군기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붕재료로 쿠니사격장 내부에서는 가장 계급이 높은 장교막사에만 사용된 특징을 보인다.



2008년 장교막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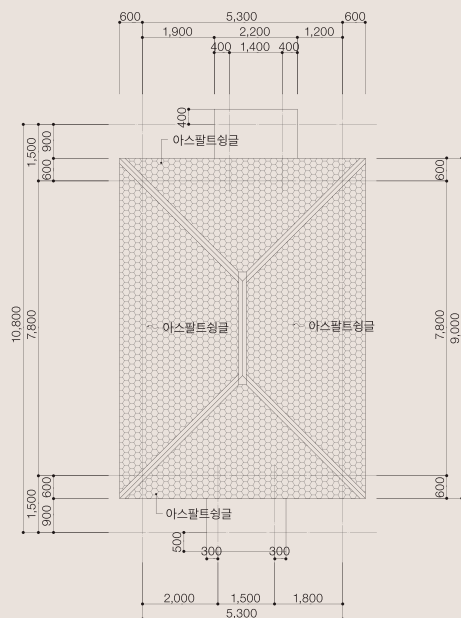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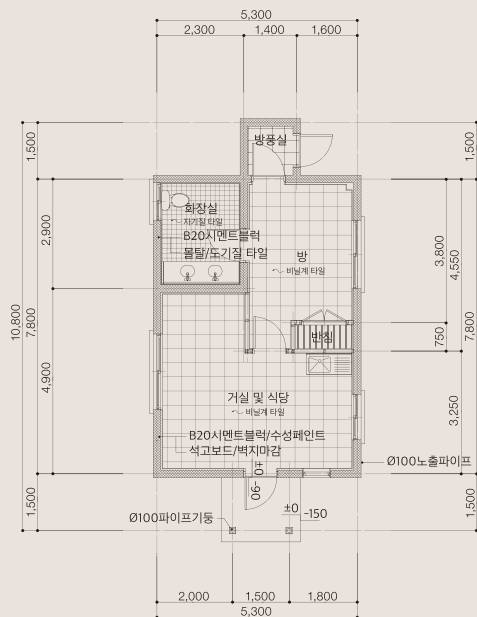
출처: 화성시청 제공



2021년 현재 장교막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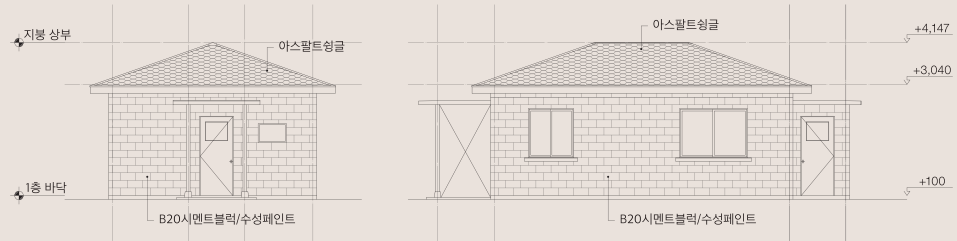
© 이연경

장교막사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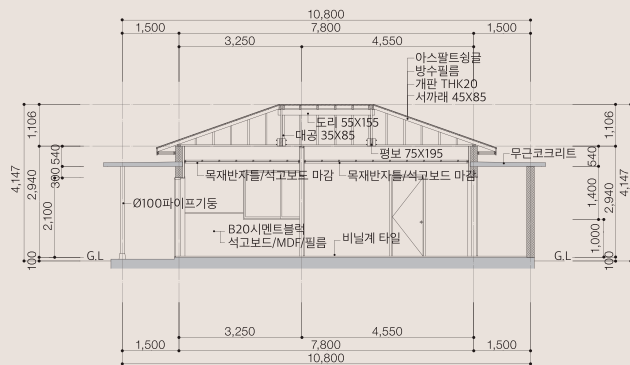


0 1.0 2.0 4.0M

장교막사 입면도



장교막사 단면도



0 1.0 2.0 4.0M

생활관 (숙소 및 식당)

숙소 및 식당으로 사용한 생활관(S-5) 건물은 1962년 현재의 매항리 평화기념관부지에 쿠니사격장의 주요 시설들이 설치되었을 당시 신축되었으나, 이후 증축을 통해 현재의 모습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1966년 항공사진에서 확인해 보면 ㄱ자의 건물은 그 폭이 일정한 것(약 6m)으로 파악되며, ㄱ자의 가운데 부분은 주변보다 높이 솟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숙소 부분은 현재도 거의 같은 형태로 사용 중으로, 숙소로 향하는 두 개의 길과 그 길과 연결되는 복도의 출입구가 1966년 항공사진과 현재 평면도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식당 부분의 경우 이후 폭이 약 2배(12m)로 늘어나면서 크게 확장되었고 식당 부분의 지붕 구조 등이 이 때 교체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숙소 부분과 식당 부분의 지붕 구조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붕재료 역시 개보수 당시 현재의 격자무늬 함석 슬레이트로 교체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1966년 항공사진에서 본 생활관 위치



1995년 항공사진에서 본 생활관 위치



1966년 항공사진에서 본 생활관 상세



1995년 항공사진에서 본 생활관 상세

숙소 부분 측면에는 보일러실이 증축되어 있으며, 식당 배면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는, 현재 방풍실이라 쓰인 부분 역시 보일러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당시에는 생활관 북측에 별도의 막사가 있어 외부 연결 복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전부 철거된 상황이다.

생활관 건물은 식당 부분의 변형이 다소 많은 데 반해 숙소 부분의 변형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숙소로 접근하는 길의 모습과 2개의 출입구, 복도와 방의 구성 등은 1966년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으로 현재 남아 있는 쿠니사격장에서 가장 역사성이 있는 공간으로 파악된다. 편복도에 개실들이 위치하고 있는 형태는 전형적인 사병막사의 구조라 할 수 있으며, 시멘트블록으로 벽체를 쌓고 각재를 이용한 지붕 트러스를 구성하는 구조 역시 1950년대 후반 이후 미군기지⁹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유형이다. 이후 지어진 막사들이 경량 패널을 이용한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쿠니사격장에서 가장 오래된 막사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2008년 생활관 모습

출처: 화성시청 제공



2021년 현재 생활관 모습

© 이연경

9 용산미군기지의 경우 이러한 유형의 막사는 1958-59년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다.



2021년 현재 숙소 부분



2021년 현재 식당 부분



2021년 생활관 전경



2021년 생활관 식당 내 주방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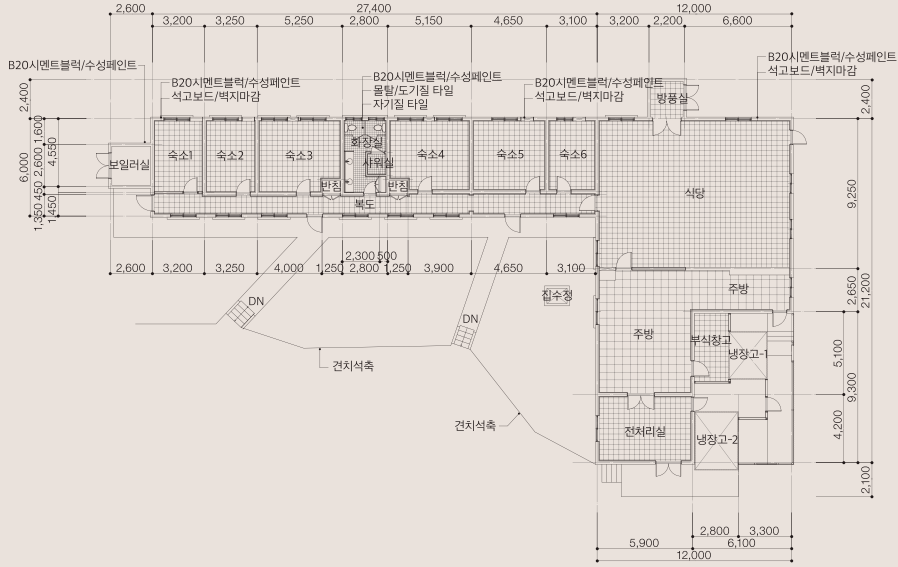


2021년 생활관 숙소 복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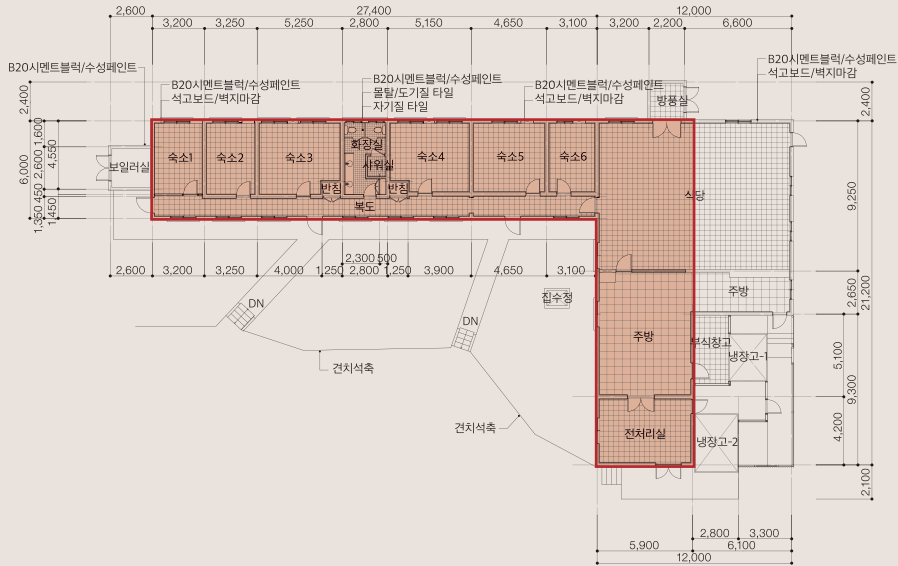


2021년 생활관 숙소 방 모습

생활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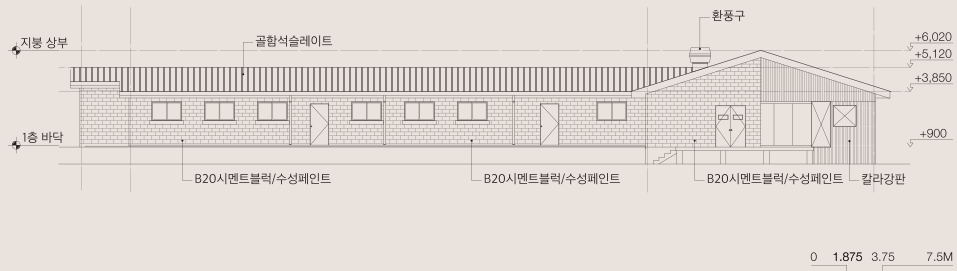
생활관 평면도 원형 추정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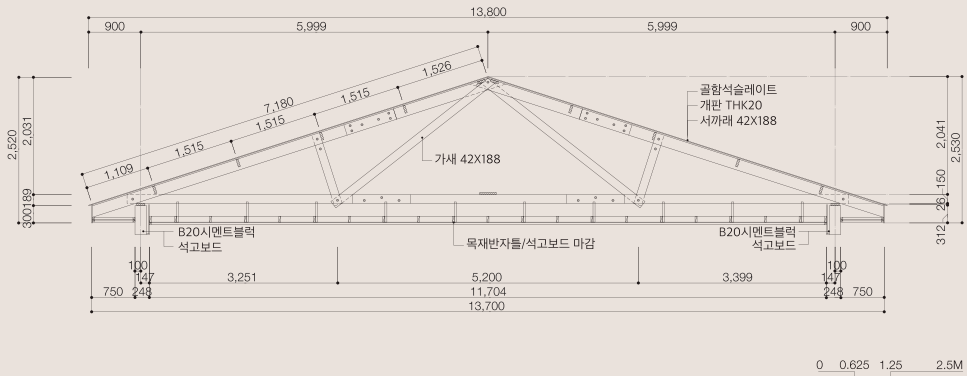
0 1.875 3.75 7.5M

출처: 화성시청 제공 도면 위에 표시

생활관 입면도



생활관 지붕 트러스 종단면 상세도



출처: 화성시청 제공



생활관 숙소 지붕 구조

출처: 화성시청(2021a, p.120.)



생활관 식당 지붕 구조

까페 및 체력단련실

까페 및 체력단련실로 사용하였던 S-9 건물은 장교 숙소와 마찬가지로 1966년 이전까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1989년 동아일보 기사사진에서는 확인되는 건물로 1966년 ~ 1989년 사이 건축된 건물이다. 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기둥과 보로 형성된 라멘구조에 시멘트블록으로 벽체를 쌓은 것으로 까페와 체력단련실(농구장)의 지붕 구조가 각각 목재 트러스와 철근콘크리트 평지붕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농구장의 천장고는 다른 부분에 비해 약 2배가 높은 7m에 이르는 특징을 가진다. 건물의 구조적 특징을 미루어 보아 원래 건물의 형태는 약 12.8m X 23m의 장방형 형태였던 것으로, 방풍실이 위치한 주출입구 측면의 체력단련실은 이후 증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까페와 농구장 사이에는 화장실 및 보일러실, 그리고 한 때는 댄스홀로 사용되었던 체력단련실이 위치하고 있다.

한국에 설치된 미군기지에는 미군들의 생활지원을 위한 각종 유흥시설과 체육시설들이 설치되었는데, 이 건물 역시 쿠니사격장에 상주하는 미군들의 생활지원시설로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쿠니사격장의 상주 인원 규모가 타 기지에 비해 적은 규모였으므로 유흥시설과 체육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하나의 건물로 합쳐서 건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건물의 바로 동북측으로는 생활관과 복도로 연결된 막사 건물이 위치하였는데, 현재는 철거된 상황이다. 이 건물 역시 1980년대 후반 ~ 1990년대 초반 개보수되면서 지붕 재료



1966년 항공사진에서 본 까페 및 체력단련시설 위치



1995년 항공사진에서 본 까페 및 체력단련실 위치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www.ngii.go.kr(검색일: 2021.12.21.)

및 내부 인테리어 등이 변형된 것으로 판단된다.¹⁰ 당시 현재 카페 내부 바의 한옥 지붕 인테리어 등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지붕 역시 외부 벽난로 굴뚝을 넘어 크게 확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건물은 유흥공간(카페와 댄스홀)과 그리고 체육공간(농구장)으로 구성된 공간 구성이 특징적이다. 외부에 기지촌이 위치하였던 여타 기지들과는 달리 쿠니사격장에는 기지촌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들은 유흥을 주로 이곳에서 즐겼다. 외부에는 소위 양색시촌이라 불리던 미군을 상대하던 여성들이 슬레이트 지붕에 시멘트 블록으로 지어진 집에서 살았으나, 미군들과 음주 및 가무를 즐기는 공간은 이 건물의 카페와 댄스홀이었다. 카페에 설치된 한옥 인테리어와 벽난로, 소규모 무대와 댄스홀의 벽면에 설치된 거울 등은 이곳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인테리어 요소들로 당시 미군생활을 보여주는 흔적들이다. 1995년 9월-1996년 9월 쿠니사격장에서 근무했던 미군 켈리 바스코(Kelly Vasko)의 사진¹¹을 통해 당시 이곳이 드래깅인(Draggin Inn)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내부 인테리어가 현재도 그대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벽난로는 현재 지붕이 개보수되며 외부에서는 일부 그 형태가 가려진 상태이므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 카페 및 체력단련실 건물 역시 다른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지붕은 격자무늬의 지붕 함석슬레이트로 되어 있으며 크게 시설물 변화가 쓰여 있는데, 이는 공군 사격장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10 카페 및 체력단련실 건물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쿠니사격장 내 시설물들의 정확한 개보수 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나 전만규의 증언에 따라 1980년대 후반 ~ 1990년대 중반 개보수된 것으로 추정한다.

11 켈리 바스코의 사진은 개인 홈페이지, <http://www.geocities.ws/kdvasko/travel.html> (검색일: 2021.12.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카페 및 체력단련실 외관
출처: 화성시청 제공



2021년 카페 및 체력단련실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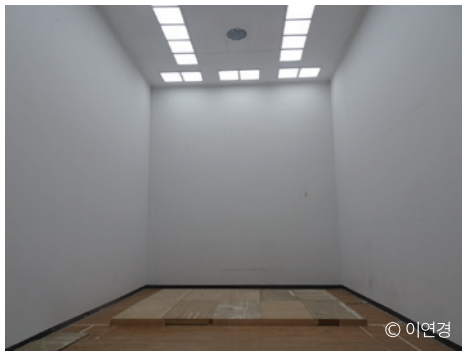
2021년 카페 내부모습



2021년 카페 내부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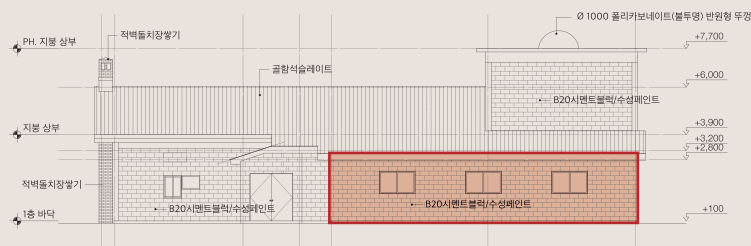
2021년 카페 및 체력단련실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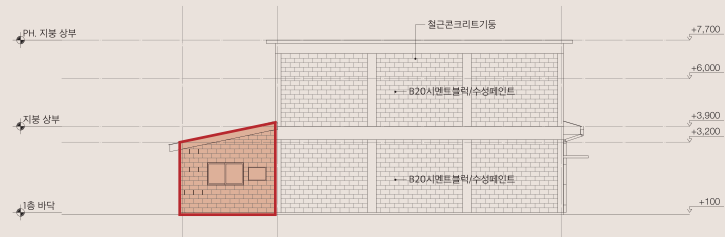
2021년 체력단련실(농구장) 내부 모습

카페 및 체력단련실 입면도(붉은 색은 증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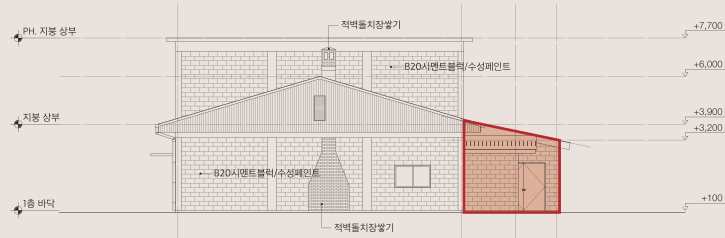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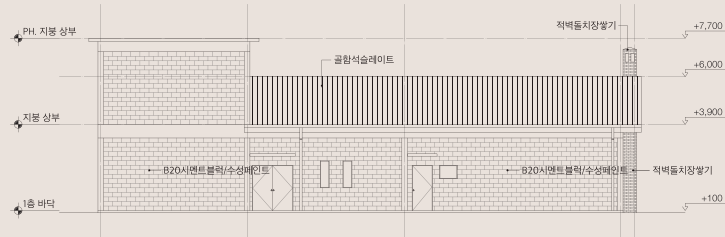
우측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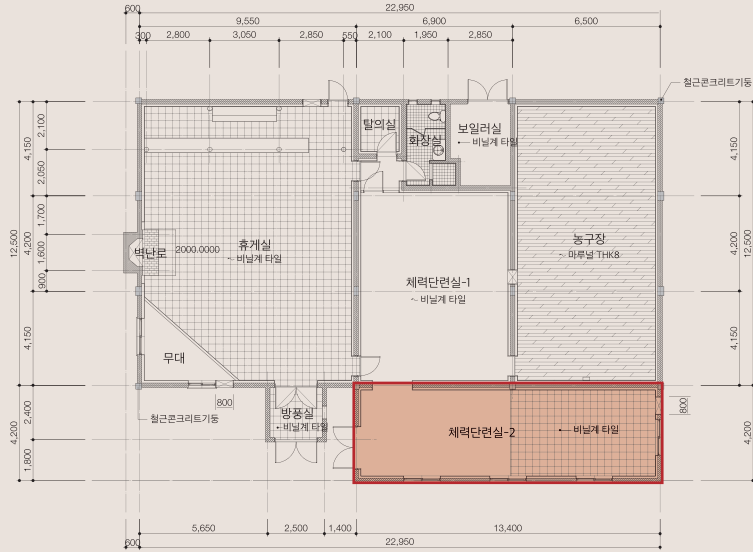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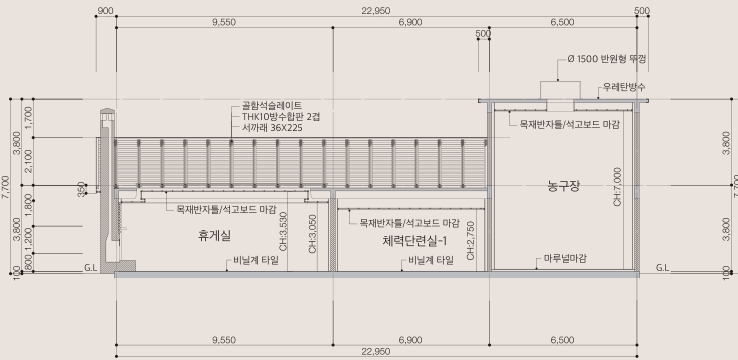
출처: 화성시청 제공 도면 위에 표시

0 1.5 3.0 6.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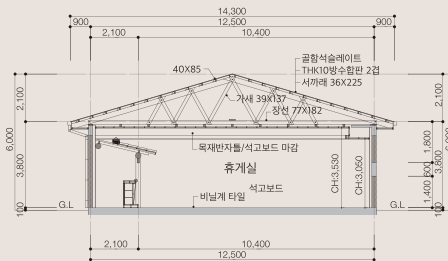
까페 및 체력단련실 평면도(붉은 색은 증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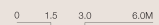
까페 및 체력단련실 횡단면도



까페 및 체력단련실 종단면도



출처: 화성시청 제공 도면 위에 표시



창고 (헬륨저장소)

사격통제실 부근에 위치한 T-10 창고 건물은 사격 훈련 당시 기상을 확인하기 위해 띄우던 풍선에 들어가는 헬륨을 보관하던 헬륨저장소이다. 이 창고는 2.8m X 3.2m 크기의 거의 정방형에 가까운 건물로 시멘트블록 벽체에 경사지붕으로 만들어진 단순한 구조의 건축물이다. 1966년 항공사진에도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그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창고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면에 모두 큰 창이 있는 특징을 보여 원래의 기능은 창고가 아닌 위병소였을 가능성도 있다.



1966년 항공사진에서 본 헬륨저장소 위치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www.ngii.go.kr(검색일: 2021.12.21.)



1995년 항공사진에서 본 헬륨저장소 위치

전만규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헬륨 풍선은 검은색, 흰색, 빨간색, 파란색의 네 가지 색상이 사용되었으며 빨간색의 경우 날씨가 맑은 날 띄웠다고 한다. 1995년 9월-1996년 9월 이 곳에서 복무한 미군의 사진에서도 빨간색 풍선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군과 함께 서 있는 사진을 통해 대략 풍선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헬륨저장소는 건물로서의 가치는 높지 않으나, 사격 훈련 당시 그 날의 일기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된 헬륨가스의 보관을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2008년 건축물 전수조사 당시에는 헬륨저장소가 1개소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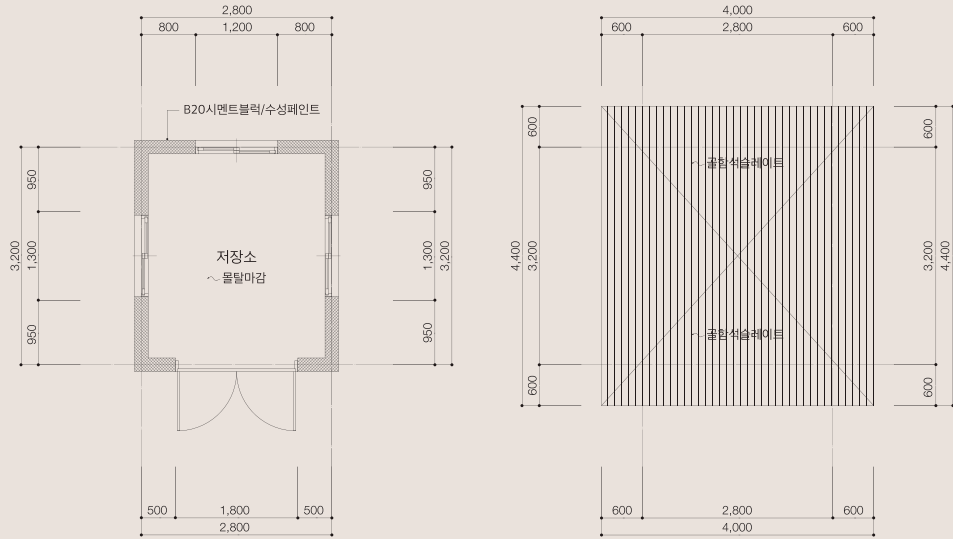
2008년 헬륨저장소 모습

출처: 화성시청 제공



2021년 현재 헬륨저장소 모습

헬륨저장소 평면도



0 0.625 1.25 2.5M

출처: 화성시청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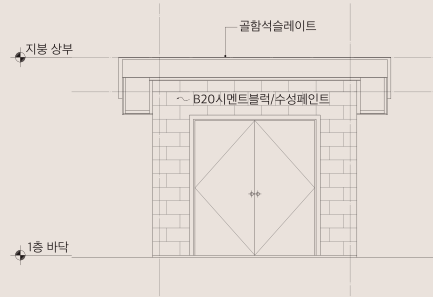


헬륨저장소 내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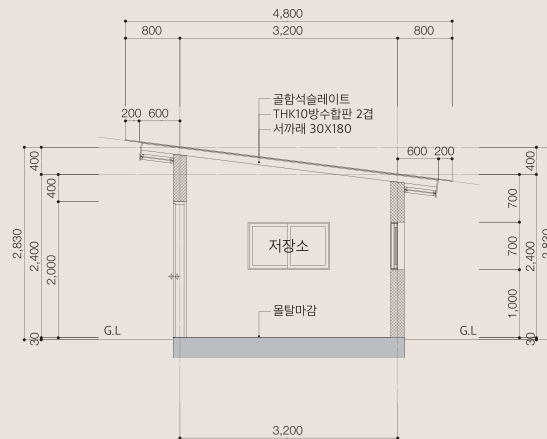
출처: 화성시청(2021a, p.130.)



헬륨저장소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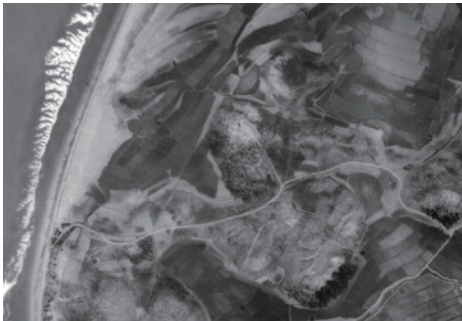
헬륨저장소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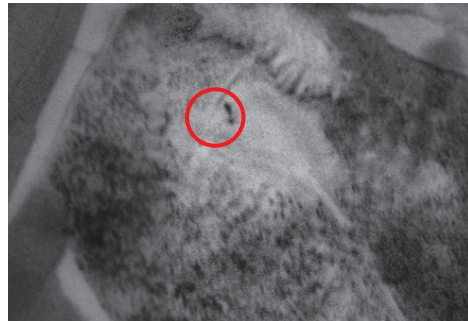
0 0.625 1.25 2.5M

사격통제실

사격통제실(P-0)은 쿠니스격장의 핵심시설이라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 시설은 쿠니스격장 설치 초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로, 쿠니스격장이 설치되었던 시기인 1954년 항공사진에서도 같은 위치에 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966년 항공사진에서도 사격통제실은 현재의 위치에 있는 것이 확인되나 현재와는 그 규모가 다소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격통제실의 위치는 변화가 없으나 건물은 증축 또는 신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954년 당시 쿠니스격장 일대



1954년 당시 사격통제실 부근



1966년 당시 사격통제실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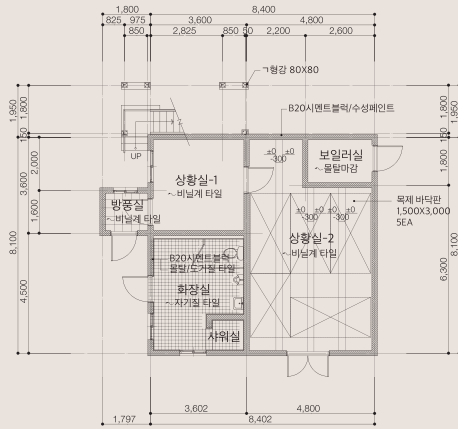
1995년 당시 사격통제실 위치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www.ngii.go.kr(검색일: 2021.1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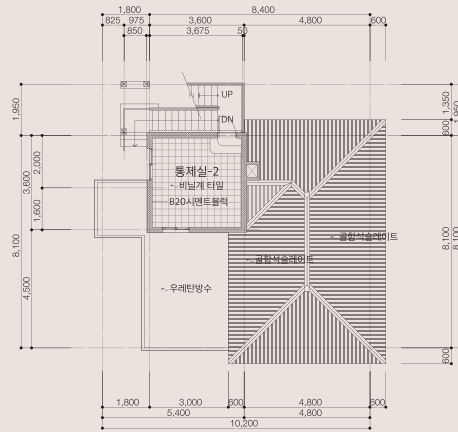
사격통제실의 1층은 상황실 2개소와 화장실, 보일러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2, 3층은 모두 하나의 실로 통제실로 사용 중이다. 1층의 상황실-1과 2, 3층의 통제실은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의 슬라브에 시멘트보강블럭의 조적벽체가 결합된 형태로, 2, 3층의 통제실은 철재 외부계단을 통해 접근 가능하다. 1954년과 1966년 항공사진에서 확인되는 사격통제실의 규모가 현재의 사격통제실보다 작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원래의 사격통제실은 현재의 상황실-1과 통제실-1, 2로 이루어진 부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상황실-2의 지붕구조는 목재 트러스이며 화장실의 지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 평지붕이라 이 두 부분 역시 각각 다른 시기에 증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격통제실은 쿠니사격장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건물로, 3층 통제실의 구조와 외부계단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3층 통제실의 사방으로 설치된 창호는 경사져 있어 관측에 유리한 형태이며, 사격통제실 주변으로는 시야가 방해되는 시설물 등이 없어 육상사격장 및 해상사격장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관측이 가능하였다. 1989년 지역주민들의 쿠니사격장 점거 투쟁 당시에도 점거했던 곳으로 매항리 지역 주민들의 투쟁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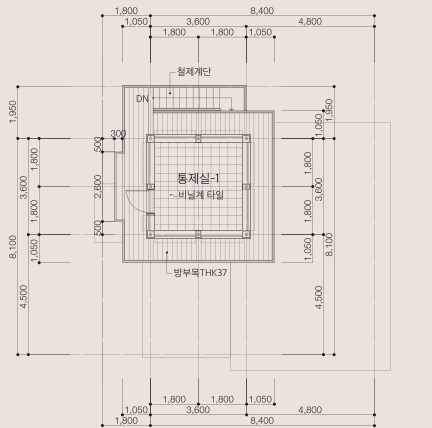
사격통제실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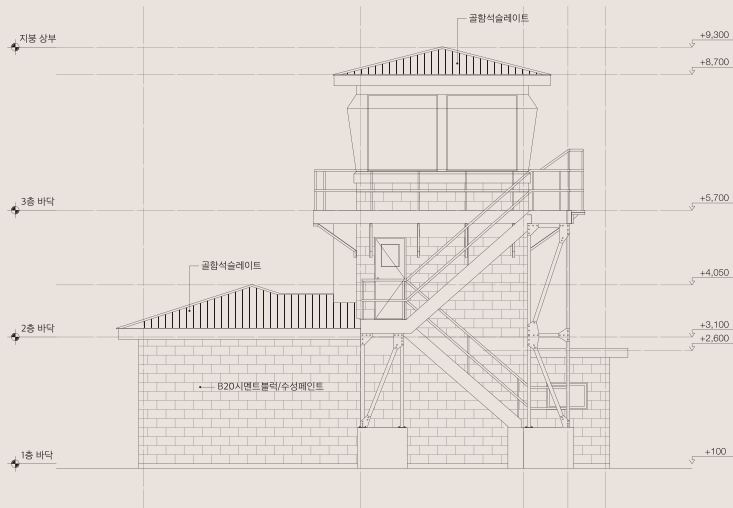
사격통제실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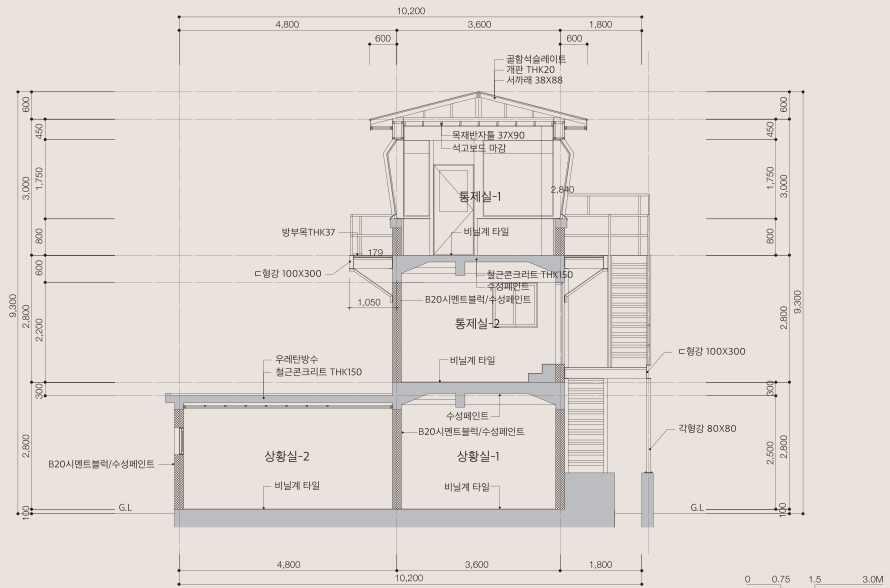
사격통제실 3층 평면도



사격통제실 좌측면도



사격통제실 종단면도



출처: 화성시청 제공

03

쿠니사격장의 주요 가치

미군기지로써 쿠니사격장의 가치

한반도 내 미군 주둔은 광복 이후인 1945년 9월 시작되었다. 정비 마샬과 필리핀 그리고 오키나와 참전 용사들로 이루어진 미7보병사단은 존.R.호지 중장이 지휘하는 24군단 예하 육군 근무지원단(ASCOM)과 함께 인천항에 도착하여 일본을 무장해제한 후 본국으로 송환시키고 국외에 있는 한국인들을 복귀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미주둔군은 일본군 기지와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주택, 호텔 등에 머물렀는데, 미7사단은 캠프 서빙고로 이동했고 7사단 예하부대들은 대구를 포함한 다른 도시로 배치되었다. 1945년 10월 10일 이후에는 3개 사단과 1개 지원 대대 등 총 77,600명의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왔으며 이후 제307폭격비행단, 극동 공군, 그리고 소규모 파견대가 추가되었다. 총 85,000명의 병력을 수용하기 위해 1946년에는 대전 및 광주 등에 퀀셋 임시 막사들이 지어졌으며, 청주, 인천 연안 그리고 춘천에 새로운 기지들이 건설되었다. 일본인의 송환과 국외 한국인들의 복귀가 이루어짐에 따라 미보병40사단은 점차 병력을 철수시켰고, 곧이어 7사단을 한국내 주둔군으로 남겨두고 미6단은 한국을 떠났다. 1948년에는 ‘대한민국이 국가 안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진다’는 문서에 미 호지 장군과 이승만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점차 미군 병력도 줄어들어 1948년 16,000명 규모였던 미군은 1949년 초까지 7,500명 수준이 되었다. 미군의 철수는 신속하게 이루어져 1949년 6월 30일 모든 부대들은 본국으로 출발했으나, 1949년 7월

1일 한국의 육군과 해군을 훈련시키기 위한 군사 자문간인 캠프 서빙고(주한 미 군사고문단 KAMG)이 캠프 서빙고에서 창설되어 훈련 지원을 했는데, 1949년 12월까지 주한 미군사 고문단에 소속된 인원은 472명의 군인과 20명의 민간인이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3일 만에 서울은 북한군에 의해 점령당했다. 6월 29일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맥아더 장군이 수원 비행장에 도착하였고, 이후 미24사단과 제1기갑사단, 제29보병연대, 제5보병연대, 제2보병사단 그리고 제1임시해병여단이 합류한 미군 지상군이 투입되었다. 미8군 전방사령부는 1950년 7월 9일 대구에서 창설되었으며, 7월 17일 미8군은 한국의 지상군 전체와 유엔군에 대한 지휘도 맡게 되었다. 이후 부산 교두보의 낙동강을 따라 방어선과 새로운 기지들이 건설되었다. 한국 전쟁 중 새로운 기지들과 함께 대규모 건설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UN 공동공군(FEAF)의 비행장 건설계획이었다. FEAF는 일본에 17개, 한반도에 30개의 비행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반도 내 비행장 (현재 북한지역은 음영으로 표시)

K-1	부산 서부	K-9	부산 동부(수영)	K-25	원산	K-47	춘천
K-2	대구	K-10	진해	K-27	연포	K-50	속초리
K-3	포항	K-13	수원	K-29	신안주	K-51	인제
K-4	목포	K-14	김포	K-30	안동	K-53	백령도
K-5	대전	K-16	서울(여의도)	K-37	대구 서부	K-54	조도
K-6	평택	K-18	강릉	K-39	제주도	K-55	오산
K-8	군산	K-24	평양	K-46	홍성	K-57	광주

출처: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2015, p.15.)

1951년 3월 15일 서울을 수복하였고, 1951년 7월 휴전 회담이 시작되었다. 휴전선 일대의 안정화로 후방 지역에는 반영구적 기지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만들어진 기지들은 정전 이후까지 사용되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 이후 2년간 미군 병력들은 텐트

로 된 기지에서 지냈는데, 이 기지들은 주로 개성부터 의정부에 이르는 서부 전선에 100개 이상으로 집중 분포되어 있었다.

1955년 이후에는 난방설비를 설치할 수 있었던 퀴셋(Quonset) 임시 막사를 주택용으로 건설하였다. 1955년에서 1959년 사이 총 1,865채의 퀴셋 막사 설치계획이 세워졌는데, 주로 임진강 북쪽 지역에 1955년 11월까지 계획했던 막사의 75% 정도가 건립되었다. 그러나 퀴셋 막사는 임시 막사로 장마철의 습기 및 화재에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1957년 7월 1일에는 본격적으로 기지 건설을 담당하기 위한 미 육군극동공병단이 현재의 을지로5가에 설치되었고, 이 부대는 이후 아시아 내 건설계획을 전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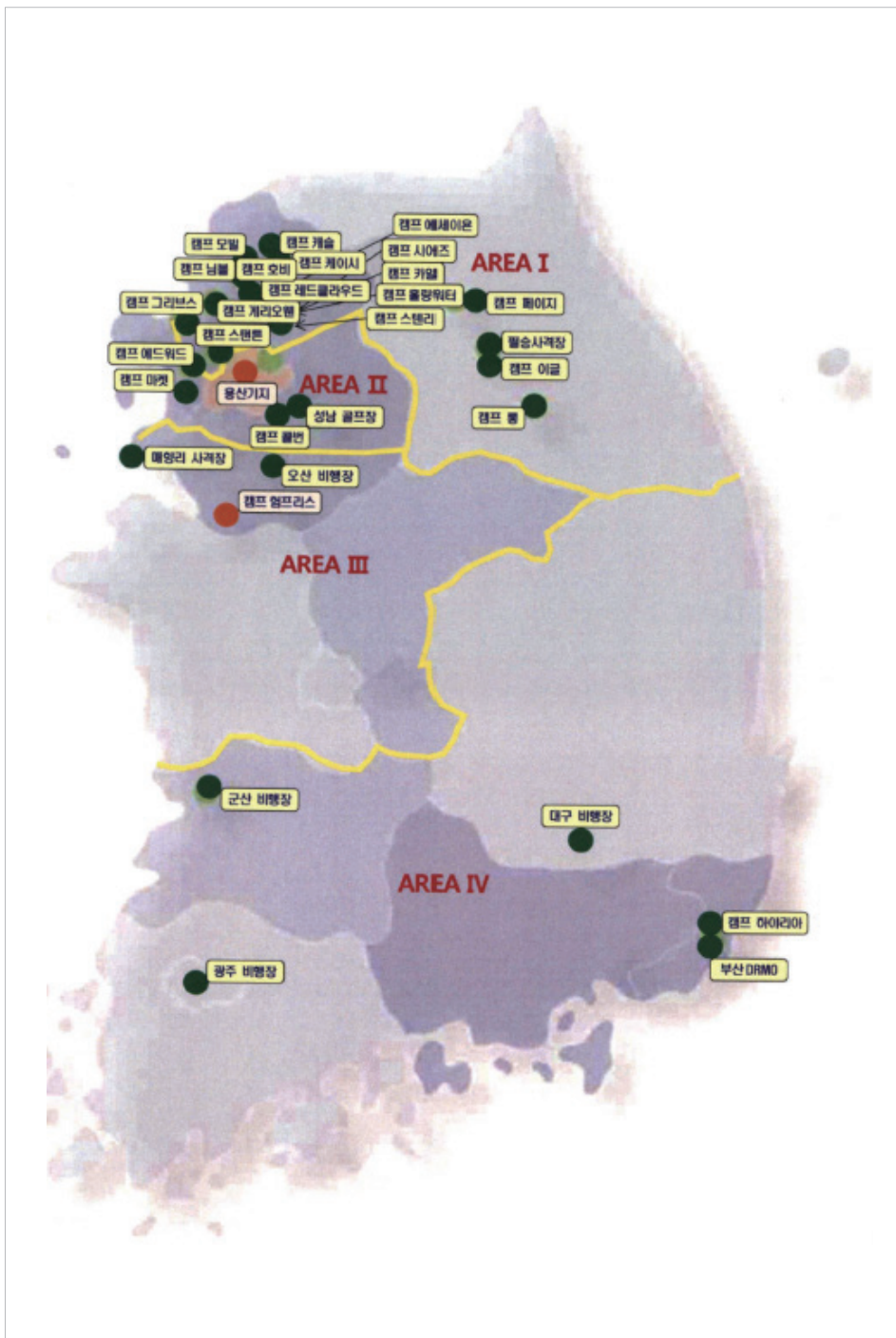
1951년 6월 30일 253,250명에 이르렀던 미군 지상군 병력은 휴전 이후 점차 줄어들어 1960년에는 총 6만 4천 명이 되었다. 1960년대 초반에는 미군기지 내 생활 개선이 이루어져 도서관, 화장실, 막사, 식당 등이 새롭게 지어졌으며, 슈퍼 후치(Super Hoochi)라 불리는 철근콘크리트와 조적 혼합조의 대규모 막사들이 건립되었다. 1971년 4월 1일에는 미7사단이 미2사단만을 남겨준 채 한국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에는 29,000명의 육군과 10,000여명의 공군, 1,000여명의 해군만 남게 되었다. 1976년에는 캠프 케이시(Camp Casey)를 비롯한 미군 기지에 이동식 막사인 철골 막사들이 건설되었다. 1978년 추가적으로 대규모 미군 철수가 있었으나, 이후 미군철수로 인한 북한군의 공격 우려로 인해 철수 속도는 늦춰졌다.

1980년대 미군 기지에서는 기존의 임시 막사나 열악한 주거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4층 이상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막사들이 건설되었으며, 클럽과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의료시설 등이 1985년에서 1991년 사이 활발하게 건설되었다. 1991년에서 1995년까지는 미국 자체적으로 한국내의 주둔 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시기로 기지 내 건설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나, 주한미군 수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1996년 이후 미군기지 내 생활 개선 사업이 이루어졌다.

1970년에서 1991년 사이, 125개의 미군 기지는 한국군으로 반환되었고, 그 후에는 75개의 기지와 비행장이 미국측 관할로 남게 되었다. 1993년에서 1995년까지는 6개의 기지가 추가로 반환되었다. 1950년대 이후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중 가장 큰 부대는 미8군으로 미8군의 주요 부대는 미2사단과 19전구 육군지역사령부이다. 또한 오산에 본부를 두고 있는 7공군이 있는데 100여대의 항공기를 포함한 오산의 5비행단과 군산의 8비행단이 여기에 속한다. 2015년 당시 미공군의 규모는 9,300명이었다. 해군은 용산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진해와 포항에 파견 부대들이 있다.

2003년 4월 이후에는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추진되었다. 2006년 7월에는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사업단이 창설되어 2007년 11월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기공식을 가지며 본격적인 기지건설 공사가 이루어져 총 1,465㎡(약 444만평) 규모의 부지에 대규모 미군 기지가 건설되었다. 2015년 당시 80여개의 미군기지가 반환되었거나, 반환 예정으로 현재도 반환은 진행 중이다.¹²

¹² 주한 미군기지의 역사는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2015, pp.8~28)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주한미군기지 구역 및 기지 위치도 (붉은 점은 공군 기지)

출처: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의전사업단(2015, p.174.) 자료 위에 표시

쿠니사격장은 한반도에 위치한 상당수의 미군기지가 그러하듯 한국 전쟁 중에 설치된 기지 중 하나이다. 매향리사격장의 설치는 1952년 7월 오산에 공군기지가 건설되면서 미 제18전투폭격비행단이 주둔하게 된 것과 연관이 깊다. 오산공군기지(K-55)는 한국에서 기초부터 새로 지어진 유일한 공군 기지로 1952년 7월 서울 이남 약38km 지점에 미 제839, 841, 418 항공대대가 활주로를 건설하였고, 12월 9,000피트의 활주로를 완공하였다. 1952년 12월부터 오산공군기지에 위치한 미 제18전투폭격비행단이 주둔하게 되면서 매향리 바다 앞 농섬 일대에 폭격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쿠니사격장 역시 설치된 것이다. 1953년부터는 오산공군기지에 미 제5공군 본부가 주둔하게 되었으며, 1956년 오산공군기지로 명명되었다. 1958년 미 공군 영구기지로 전환되었는데, 1962년경 쿠니사격장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¹³

1950년대 쿠니사격장에 설치된 시설물들은 한국전쟁 시기 설치된 대부분의 미군기지가 그러하듯, 텐트 막사와 퀴셋 막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전부 철거되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지만, 주민들의 증언을 미루어 볼 때 1953년 해안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처럼 생긴 전투기 격납고 모양의 함석 막사는 퀴셋 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62년 이후 건설된 시설물들은 1950년대 후반 이후 주로 사용되었던 재료·구조인 시멘트보강블록벽체와 목재 트러스 지붕구조로 만들어진 단층 건축물로, 현재 남아 있는 여섯 동 중 생활관과 위병소, 헬륨저장소, 장군막사 등 4개 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확한 건축 년대는 알 수 없지만, 카페 및 체력단련시설로 사용 중인 건물은 적어도 1960년대 후반 이후 건축된 것으로 미군기지 내 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에 조적 벽체를 결합시킨 유형이다. 이 같은 유형은 용산미군기지 및 동두천 캠프 케이시 등에서 1960년대 후반 지어진 슈퍼 후치라 불리던 대규모 막사 유형의 건물들과 유사하다. 현재는 철거되고 없지만 증가된 병력을 수용하기 위해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이동식 경량 막사 역시 기지 내

13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2015, p.147.)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에 2개 동 위치하였다. 사격통제실의 경우 타 기지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쿠니스격장만의 특징으로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의 정확한 건축 년대는 알 수 없으나, 1950년대 초반 쿠니스격장이 설치된 초기부터 같은 위치에 사격통제실이 위치하였다.

이처럼 쿠니스격장은 그 면적은 육상 및 해상 사격장을 포함하여 790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기지였으나, 실제로 시설물 규모는 오산공군기지에 부속된 작은 기지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육상과 해상 사격장을 모두 통제 가능한 관제탑과 사격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미군들의 생활을 위한 숙소와 편의시설들이 1960년대 설치되어 2005년 폐쇄 직전까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군사적 가치 뿐 아니라 미군 생활사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다.

매향리와 쿠니스격장

한국전쟁 중 설치된 쿠니스격장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29만평에 달하는 토지의 징발과 경작 제한, 갯벌과 해안으로의 접근 제한은 주민들의 생업에 영향을 미쳤으며,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이어진 이전 사격 훈련은 매향리 주민들의 삶을 피폐화시켰다. 매향리 앞바다의 구비섬은 폭격으로 이제는 간조 시에만 살짝 보일 정도로 사라져버렸으며, 농섬 역시 민둥산이 되어버렸다. 매향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던 갯벌에는 탄피들이 가득하였으며, 불발탄으로 인한 사상 사고도 잇따랐다. 사격 폭음으로 인해 매향리 주민들은 난청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폭음피해와 사격훈련 중 지 문제를 두고 주민 투쟁이 계속되며 고통의 시간은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향리 주민들의 삶은 쿠니스격장과 매우 연관이 깊었다. 주민들은 미군의 통제 및 허가 하에 사격장 내 경작을 계속하였으며, 탄피를 주워 판매하며 경제활동을 하였다. 사격훈련 중 임을 나타내는 붉은 기는 매향리 주민들에게는 사격장 내 출입이 금지된다는 신호였으며, 사격장 내에서 기상 파악을 위해 띄우는 풍선의 색은 그날의 일기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사격장 주변에는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건축되었으며, 주말이면 미군들은 이 여성들을 사격장 내 편의시설인 바로 초대하여 음주가무를 즐겼다. 이처럼 매항리 주민들의 삶에는 쿠니사격장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오랜 투쟁의 집단기억은 마을의 정체성이 되었다. 현재 쿠니사격장은 부대시설이 위치하였던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쿠니사격장이 남긴 시간의 흔적은 이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 분포해 있다. 여전히 사격장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던 철책들은 상당 부분 남아 있으며, 육상사격장으로 사용하던 일대 역시 빈 채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환경정화로 점차 원 상태를 회복 중인 갯벌과 농섬 역시 쿠니사격장의 주요 경관을 구성하고 있다.



현재도 남아 있는 쿠니사격장 철책



육상사격장 일대의 현재 모습



육상사격장 앞에서 바라본 갯벌과 농섬



매항리 역사자료관 앞에서 바라본 농섬

쿠니사격장의 주요 보존 가치와 활용에의 제언

쿠니사격장이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가지는 역사적 가치는 한국전쟁 이후 분단 상황에서 미군이 주둔하며 5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군 사격훈련장으로 사용되어왔다는 점이다. 미군사격훈련장으로서의 특징을 고려할 때, 현재 매항리평화기념관 부지 내의 미군 시설들 뿐 아니라, 사격훈련이 이루어졌던 전체 영역, 즉 농섬에서 매항리 일대에 걸친 광대한 범위의 육상 및 해상사격장 영역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즉, 현존하는 경기도 우수건축자산인 쿠니사격장 건축물들 외에도 농섬 및 웃섬, 해안가 및 인근 농경지들을 포함한 전체 경관으로서 가치가 크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항리 주민들의 삶에 쿠니사격장이 큰 영향을 주었다는 측면에서 지역사적, 장소적 가치 역시 크다.

두 번째로 쿠니사격장이 가지는 미공군기지의 부속 사격훈련장으로서의 군사적 가치이다. 쿠니사격장은 사용 당시 유일한 폭격훈련이 가능한 사격장이었으며, 남아 있는 교본 등을 통해 미 공군 비행사들의 훈련 상황을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해상 사격 훈련의 중심이 된 농섬 및 표적이 설치된 육상 사격장 등 군사 훈련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이다. 현재는 남아 있지 않지만 기지 남측과 해안가에는 두 개의 헬기장이 있어 전체 시설 규모는 작은 데 비해 헬기장이 2개나 있는 공군기지로서의 특성을 보인다. 또한 격자무늬와 지붕 크게 시설물 번호가 쓰여진 것은 전투기에서 바라보이는 시야, 즉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고려한 것으로 사격훈련장으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세 번째로 현재 경기도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매항리 평화기념관 부지는 1962년 이후 건설된 소규모 미군기지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이곳에는 미군 생활에 필요한 최소 시설, 즉 숙소와 편의 시설, 사무실을 비롯한 제반시설들이라 할 수 있는 수도시설과 유류탱크, 차량정비소, 창고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소규모 기지이기 때문에 부지 내 공간 영역이 성격별로 분명하게 구분되지는 않았으나, 기지 서측으로는 훈련장에 필요한 사격통제실과 헬륨저장소, 중간에는 본부와 막사, 편의시설과 같은 기지 중심시설, 그리고 기지의 주변부로는 기타 제반시설들이 둘러싸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타

미군기지에서는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이 별도의 동으로 지어지는 데 반해 쿠니사격장에서는 하나의 건물 안에 카페와 무도장, 농구장이 한꺼번에 설치되어 최소 규모지만 나름대로의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장교 막사와 사병 막사, 편의시설인 카페 및 체력단련시설 등이 남아 미군 생활사로서의 가치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쿠니사격장 내 시설물들의 건축적 가치이다. 쿠니사격장 내에 건축된 건물들은 대부분 1960년대 공병단에 의해 지어진 전형적인 시멘트블록 보강구조의 건물들과,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에 시멘트블록벽체가 결합된 구조인 카페 및 체력단련시설과 사격통제실, 이들은 1960-70년대 미군기지에서 주로 지어진 전형적인 건축 유형으로 1962년 이후 본격적으로 건축된 쿠니사격장의 현황을 잘 보여준다. 특히 사격통제실 건물의 경우 다른 기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유형외과 구조의 건물로서 부지 내 건축적 가치가 가장 높은 건물이라 할 수 있다.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시설물들의 지붕 패턴이다. 쿠니사격장 내 건물들은 타 미군기지의 건축물들에 비해 그 규모가 작고 종류 역시 다양하지 않으나, 50년 이상 유지해 온 미군 시설물로서의 건축유산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평화생태공원부지 내 6개 동 외에도 해안가와 철책 주변의 위병소 건물들 역시 1960년대 후반 이후 건축된 위병소 건축물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므로 함께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역사적, 장소적, 경관적, 군사적, 생활사적, 건축적 가치를 가지는 쿠니사격장의 향후 활용방안 마련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전체 경관으로서의 쿠니사격장의 활용과 보존

쿠니사격장은 현존하는 6동의 시설 외에도 육상 및 해상 사격장 전체 영역으로서 의미가 중요한 만큼 육상 및 해상 사격장 790만평에 이르렀던 쿠니사격장의 범위를 보여주는 지점이라 할 수 있는, 현재 남아 있는 위병소 및 철책 등을 보존하여 장소의 기억을 남길 필요가 있다. 쿠니사격장의 육지 부분 경계 및 해상사격장으로 사용된 갯벌 등을 포함하는 역사 트레일(둘레길)을 개발함으로써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매향리의 역사와 시간을 교육하고 체험하는 기회로 삼도록 한다. 또한 육상 및 해상 사격장을 통제하는 중심 시설로서의 사격통제실을 원형 보존하며, 사격통제실에서 바라 보이는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여 쿠니사격장의 경관적·장소적 가치를 최대한 보존할 필요가 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외 인접 부지의 활용과 보존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내 현존하는 6개의 미군기지 시설물들의 보존 뿐 아니라 내·외부의 공간환경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 특히 입구 위병소에서 생활관으로 향하는 길, 생활관을 돌아 사격통제실로 향하는 길 등과 사격통제실 서측 일대를 둘러싼 수목환경 등을 향후 공원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격통제실 서측에 위치한 갯벌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매향리 평화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전체적인 자연 경관을 적극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평화생태공원과 갯벌 사이에는 타겟이 설치되었던 육상사격장이었던 부지가 위치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향후 활용 방안 역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매항리 사격장 경계 동측으로는 매항리 역사자료관 및 매항교회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경계 남측에는 미군 상대 여성들이 머물렀던 주택이 한 채 남아 있다. 이곳들은 모두 매항리 쿠니사격장의 경계에 위치한 장소로서 미군기지와 매항리 지역 주민생활과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이곳에 대한 적극적 보존 및 연계 활용이 필요하다.



매항교회



미군 상대 여성들이 머무르던 주택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내 시설물 보존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내에서 역사적, 장소적, 군사적 가치가 가장 높은 시설물은 사격통제실이라 할 수 있다. 사격통제실의 건축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와 시멘트 블록조가 혼합된 구조로 일부 증축이 있긴 하였으나 적어도 1960년대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다. 따라서 이 건물은 적극적으로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3층 통제실의 공간과 통제실에서 바라다 보이는 경관에 대한 적극적 보호가 필요하다. 외부 철제 계단 등은 현재 구조적으로 안정하지 못한 가능성이 크므로 보강 및 교체를 통해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하부에 증축된 부분은 필요시 철거 가능하다. 벽체에 게시판 등이 붙어 있었던 위치 등은 복원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이곳이 어떠한 장소였는지 알리며 내부에서 바라다 보이는 매항리 일대의 육상 및 해상 사격장을 조망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항리 지역 주민의 투쟁 당시

이곳을 점거하여 투쟁했던 내용 등을 이 장소에 전시하여 미군 군사 기지로서의 성격 뿐 아니라 매향리 주민들의 투쟁사 역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매향리 평화기념관 부지의 중심에 있는 카페 및 체력단련시설, 생활관(숙소 및 식당), 장교숙사 건물은 미군기지로서의 쿠니사격장 내에서의 생활을 잘 보여주는 장소들이다. 이 공간들은 향후 필요에 따라 개보수를 진행하되, 카페 내부의 바와 무대, 농구장의 층고, 숙소 구조를 보여주는 복도와 방의 배치 등 원래 이곳의 장소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붕의 격자무늬와 시설물 번호 등은 사격훈련장으로서 쿠니사격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보존 역시 필요하다.

위병소와 헬륨저장소 두 동은 단순한 구조의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물 자체의 가치가 높기 보다는 이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의 장소성이 중요한 건물이다. 특히 헬륨저장소의 경우 쿠니사격장이 확장되기 이전 소규모의 영역에 불과했을 때 위병소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로, 사방으로 나 있는 창호 등을 보존하여 주변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보존 범위는 아니지만 해안가 등 외부에 위치한 현존하는 다른 위병소들 역시 입구에 있는 위병소와 함께 보존하여 쿠니사격장의 경계이자 관문으로서의 위치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가전사업단. (2015). 주한미군기지 역사: 반환기지를 중심으로.
-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매향리의 역사·문화, 현대사 백서. 화성시.
- 윤충로. (2014). 전장의 일상화와 고통의 재구성: 매향리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02.
- 화성시. (2021a). 매향리 쿠니사격장 준치건축물 기록화조사보고서.
- 화성시. (2021b). 매향리 쿠니사격장 유희공간 문화재생사업 보고자료.
- 한겨레. (2004.4.19.). 매향리 사격장에 평화박물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055338>(검색일: 2021.12.21.)
-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www.ngii.go.kr(검색일: 2021.12.21.)

(우수건축자산 이야기)

IV

**쿠니사격장,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보전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과정**

01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과정

우수건축자산 등록 신청까지

우수건축자산 제도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2014년 6월 3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함께 제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에서는 본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던 중 화성시로부터 ‘매향리 쿠니사격장’의 우수건축자산 등록 관련 협의(2016.2.12.)를 요청받게 되었다.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등록된 우수건축자산도 없었을 뿐더러 등록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바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기도는 우수건축 자산의 등록을 위한 준비로 경기도 법무담당관에 법률자문(2016.2.18.)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에 관원질의(2016.2.22.)를 요청했다.

법률자문 및 관원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 당시 상황(‘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미수립 등)과 ‘매향리 쿠니사격장’이 가진 특수성(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건축물:화성시, 토지:국방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우수건축자산 등록이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경기도 법률

담당관(2016.2.19.)¹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²(2016.3.10.)에서는 경기도의 우수건축자산 등록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회신해 주었으며, 질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내부 검토 과정 끝에 화성시의 ‘매향리 쿠니사격장’의 우수건축자산 등록 신청(2016.2.26.)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문화재와 우수건축자산 그 사이에서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위해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제1항에 따라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건축자산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우선 ‘매향리 쿠니사격장’의 우수건축자산 등록에 대한 의견을 문화재청장에게 요청(2016.3.11.)하였으며, 추가로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자료 확보를 위해 화성시에 등록신청서 및 제출서류(우수건축자산 가치판단 참고사항, 우수건축자산의 가치별 설명자료, 건축자산에 대한 문헌자료 등) 등의 보완을 2번 요청(2016.3.11. 및 2016.4.15.)하였다.

문화재청에서는 ‘매향리 쿠니사격장’ 건에 대하여는 경기도 문화재위원 등 관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로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것

- 1 우수건축자산 등록 등에 대한 법률자문은 자문관의 개인적 견해로 경기도 내부의 의사결정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기 바란다는 의견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어려우나 질의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남겨 주었다.
- 2 관원질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우수건축자산 등록 시 시행하는 기초조사와 건축자산 진흥시행계획 수립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여, 건축자산 진흥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더라도 우수건축자산 등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또한, 대상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우수건축자산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련 질의 결과 우수건축자산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답변을 전달하였다. 등록하고자 하는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건축물 소유자가 등록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간환경’인 경우에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함께 등록 신청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을 회신(2016.3.29.)해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우수건축자산 등록 협의된 ‘매향리 쿠니사격장’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등록 여부 판단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자문(2016.4.8.)을 매향리 쿠니사격장 및 평화생태공원 현장사무실에서 실시하였다. 위 안전에 대한 전문가들³의 의견은 ‘매향리 쿠니사격장’의 등록문화재 및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위한 가치⁴는 충분하며, 등록문화재 추진 및 우수건축자산 등록은 소유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우수건축자산 등록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등록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로 상향시키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

3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2명(민속문화재, 근대문화재)

4 매향리 쿠니사격장은 국내에서 유일한 공군 사격훈련장으로 국방역사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건축적 특성 또한 타 유례를 찾기 힘든 점에서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경 기 도****NEXT경기**

수신 문화재청장(근대문화재과장)

(경유)

제목 우수건축자산 등록 협의에 따른 의견 요청

1. 화성시 지역개발과-2564(2016.2.26.)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도는 화성시장이 제출한 우수건축자산(매항리 존치건물) 등록 협의와 관련하여 등록대상이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이 지난것으로 판단되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에 대한 귀청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처리기한이 있는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문 및 신청서(화성시)

2. 소유권 관련 자료(국방부 공문 및 붙임)

3. 가치판단 참고자료(별도송부)

4. 보전활용계획검토서(별도송부). 끝.

경 기 도 지 사

주무관

안보영

건축문화팀장

김용천

건축디자인과 전결 2016. 3. 11.

장

박창화

협조자

시행 건축디자인과-3933

접수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경기도청)

/ <http://www.gg.go.kr>

전화번호 031-8008-3477

팩스번호 031-8008-3969

/ ahnbo@gg.go.kr

/ 비공개(5)

국민행복시대! 지방자치가 책임집니다.

문서관리카드건축디자인과-3933 1/1

문화재청 의견 요청 관련 공문

출처: 경기도청 제공



전문가 현장검토 및 자문회의 모습

출처: 경기도청 제공



이러한 전문가 자문결과를 화성시에 통보(2016.4.11.)하였다. 화성시에서는 등록문화재 등록 추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에 대해서는 공무원·주민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2016.4.18.)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2016.4.20.)해왔다. 잠시 등록문화재의 길 위에 있었던 ‘매향리 쿠니사격장’은 소유주인 화성시의 의견을 존중하여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향해 움직였다.

우수건축자산 등록, 심의의 장으로

우수건축자산 등록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계 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한 후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에 따른 건축위원회(이라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은 한옥 등 문화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위 법령 및 「경기도 건축 조례」 제13조(회의)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위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심의위원은 총 15명으로, 도시주택실장, 건축디자인과장, 계획·시공·구조·조경·친환경 각 분야 건축위원회 위원 1명, 위원회 구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건축자산 건축위원회 위원 8명(4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였다.

개최에 앞서 먼저 건축위원회 위원에게 참석 요청(2016.5.30.), 회의 장소를 제공해주는 화성시에도 이에 대한 협조 요청(2016.5.30.)을 부탁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회의는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화성시 우정읍사무소에서 개최(2016.6.9.)하였으며 약 3시간가량 진행되었다. 회의 절차는 먼저 경기도의 ‘우수건축자산 등록 제도에 대한 설명’, 화성시의 ‘우수건축자산 등록 대상 제안 설명’, 현장 이동 후 화성시의 현장 설명, 다시 회의실로 이동 후 우수건축자산 질의응답⁵ 및 토의·의결 등 절차 등으로 진행되었다.

5 질의응답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해야만 하는 당위성, 활용 시 우수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 훼손 여부, 등록 후 활용 및 보존계획, 등록문화재 대신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선택한 이유, 우수건축자산 유형 변경, 기록화 등 역사성 보존계획 등의 내용이 다루어졌다.



건축위원회 회의 사진

출처: 경기도청 제공

최종 토의 끝에 ‘매항리 (구)쿠니사격장 존치건축물 우수건축자산 등록’ 안건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건부 의결’로 결정되었다. 이에 대한 심의 조건은 의결조건1, 권고사항2였다. 의결조건은 ‘개별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을 포함한 사격장 영역 전체를 하나의 공간환경⁶으로 우수건축자산 등록할 것’이었으며, 본 의결조건으로 인해 ‘매항리 쿠니사격장’은 우수건축자산(건축물)으로 신청하였으나 우수건축자산(공간환경)으로 등재하게 되었다. 또한, 권고사항으로는 ‘활용계획 이전에 우수건축자산의 현황(역사적, 건축적 등)에 대한 기록화 사업⁷ 필요’ 및 ‘향후 활용 시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사격통제탑 등 건축물 전반적으로 사전 안전점검 필요’ 등 위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의결과 관계없이 권고하였다.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매항리 쿠니사격장’의 소유주인 화성시(건축물) 및 국방부장관(토지)에게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우수건축자산 등록) 제 6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및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통지(2016.06.22.)하였다.

6 매항리 쿠니사격장의 우수건축자산으로의 가치는 미군의 50년대 건축양식을 반영한 건축물이라는 것보다 비극적인 역사를 담고 있는 건축물과 이를 포함한 주변 공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7 매항리 쿠니사격장의 역사성 및 건축적 특성 등을 앞으로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사전 기록화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우수건축자산 활용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노력

문화재가 대상의 원형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과 달리 우수건축자산은 대상의 가치 있는 부분은 보존하되 어느 정도 변화를 수용하면서 지속적인 사용을 위한 적극적인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수건축자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우수건축자산의 증축·개축 및 철거 등) 제1항에 따라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위를 개시하기 전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도·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위의 법령에 따라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소유주인 화성시로부터 우수건축자산 활용에 대한 행위신고가 3회 접수되었고, 이에 대하여 경기도에서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도·조언 및 권고 등을 진행하였다.

매향리 쿠니사격장 행위신고 과정

구분	행위신고 내용	전문가 자문	비고
1차	건축물 리모델링	1. 건축물 구조안전성 재검토 2. 설계방향 등 전문가 자문 실시	행위 신고 처리
2차	기존 건축물 및 공간환경 활용	1. 기록화 작업 선행 2. 전문가 자문을 통한 활용계획 수립 3. 기존 건축물 보존·복원 방향 모색 4. 지역주민과의 협의	행위 신고 처리
3차	기존 건축물 활용 및 공간환경 개선	1. 기존 건축물 개보수 현황 등 기록 2. 국내 미군기지 반환 부지들의 사례 조사 3. 위의 경험이 있는 설계자에 의한 현황조사·보수계획 수립 4. 군인·주민들의 기억이 담긴 아카이브 공간 운영 5. 시설 개보수 시 가급적 원형에 가깝게 보존·복원	행위 신고 처리

1차 행위신고 접수(2017.8.10.)는 매향리 쿠니사격장 내부의 건축물 6개 동에 대한 리모델링 사항으로 기존 철문 및 목제창호 교체, 내부 벽체 및 칸막이벽 교체 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건축자산 건축위원회 위원 7명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3명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2017.8.23.)을 진행하였다. 자문은

서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자문내용으로는 우수건축자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계획 수립, 각 동별 구조안전성 재검토,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과 설계방향 및 전시방식에 대한 자문 수행, 기록화 사업 완료 후 활용계획 수립 등의 지도 및 권고였다.

이러한 자문결과를 화성시에 회신(2017.9.27.)하였고, 이에 대해 화성시에서는 자문의견을 모두 반영한다는 조치결과를 제출(2017.11.13.)하였다. 경기도에서는 1차 행위신고 접수 건에 대한 행위신고 처리결과를 화성시에 통보(2017.11.14.)하였다. 2차 행위신고 접수(2018.12.26.)는 기존 건축물 및 공간(대지)환경 활용에 대한 사항으로 매향리 평화기념관 건립사업 추진 등의 신규건축 및 조경 공사, 존치건축물 및 평화기념관 연계활용(안) 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건축자산 건축위원회 위원 3명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2명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2019.1.25.)을 진행하였다. 이번 자문은 신규건축 및 공간 활용 등의 목적으로, 현장 자문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매향리 쿠니사격장 근처의 생태평화공원 현장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주요 자문내용으로는 매향리 쿠니사격장의 기록화 작업 선행, 건축자산 등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친 활용계획 수립, 기존 건축물 보존·복원 방향 모색, 지역주민과의 협의 등을 지도 및 권고하며 2차 행위신고 처리결과를 화성시에 통보(2019.1.30.)하였다.

3차 행위신고 접수(2020.8.7.)는 기존 건축물 활용 및 공간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2차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최대한 기존 건축물을 보존·복원하며 주민이 직접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등의 활용방안을 담은 행위 신고였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건축자산 건축위원회 위원 3명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2명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진행하였다. 기존에는 현장자문을 통해 현장의 어려운 점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현장에서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우려 및 태풍 등의 이유로 서면심의(2020.8.26.~9.4.)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주요 자문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정밀한 도면 등의 작성 및 개보수 현황 기록, 기초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관리 및 활용 방안 설정, 기존 건축물 외관 형태 및 내부 공간 구

성 유지, 국내 미군기지 반환 부지들의 사례 조사 및 관련 경험에 있는 설계자에 의한 현황 조사·보수계획 수립, 군부대로 사용 당시의 군인·주민들의 기억이 담긴 아카이브 공간 운영, 시설 개보수 시 가급적 원형에 가깝게 보전·복원 등을 지도 및 권고 내용으로 3차 행위신고 처리결과를 화성시에 통보(2020.9.10.)하였다.

경기도에서는 건축자산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한 주변여건 속에서 우수건축자산 등록은 많은 고민과 힘든 여정의 길이었다. 우수건축자산 1호인만큼 당시 쿠니사격장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는 과정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얻을 만한 과거의 실적도, 매뉴얼도 존재하지 않았다. 단순한 절차 하나를 진행할 때에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을 몇 번이나 보며 돌다리 두드리듯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도움이 필요했던 부분은 법률자문 및 관원질의,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의 많은 도움이 있어 진행이 가능했고 마침내 전국 최초의 우수건축자산을 화성시와 협력하여 경기도에서 등록할 수 있었다.

우수건축자산 등록까지는 비록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현재 매향리 쿠니사격장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경기도의 숨겨진 진주를 찾은 거라 생각된다.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는 매향리 쿠니사격장 뒤를 이어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등을 31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중요성 및 그 가치에 대해 도민들뿐만 아니라 전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경기건축문화제’ 등과 함께 여러 콘텐츠 등을 기획할 계획이다.

제1호 경기도 우수건축자산 추진과정

사전 협의	우수건축자산 등록 관련 사전 협의	협의 요청(16.02.12.)	- 법률자문 실시(16.02.18.) - 관원질의 실시(16.02.12.)
등록 신청	우수건축자산 등록 신청 (화성시)	등록 요청(16.02.26.)	- 문화재청장 의견 요청(16.03.11) (한옥 등 건축자산법 제10조제1항) - 전문가 자문 실시(16.04.08.) (문화재청장 의견 관련 자문)
등록 심의	건축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 한옥 등 문화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한옥 등 건축자산법 제10조제2항) 그외 사항은 경기도 건축조례를 따름
	건축위원회 개최	참석 요청(16.05.30.)	- 건축위원회 개최(16.06.09.) 장소: 화성시 우정읍 사무소
	건축위원회 결과	결과 통보(16.06.22.)	- 의결 : 조건부의결 (의결조결1, 권고사항2) - 통보 : 화성시(건축물), 국방부장관(토지)
	등록 결과 홍보	홍보(16.06.22.~06.23.)	- KBS,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보도, GTV와 인터뷰 진행
행위 신고	1차 행위신고	신고 접수(17.08.10.)	-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전문가 자문 실시(17.08.23.) (구조안전성 재검토 등) 신고 처리(17.11.14.)
	2차 행위신고	신고 접수(18.12.26.)	- 기존 건축물 및 공간환경 활용 - 전문가 자문 실시(19.01.25.) (기존 건축물 보존·복원 방향 모색 등) 신고 처리(19.01.30.)
	3차 행위신고	신고 접수(20.08.07.)	- 기존 건축물 활용 및 공간환경 개선 - 전문가 자문(서면) 실시(20.08.26.) (미군기지 반환 부지 활용 경험 있는 설계자에 의한 보수계획 수립 등) 신고 처리(20.09.10.)

02

쿠니사격장 반환(무상 양여) 과정 및 보전활용을 위한 노력

미공군 폭격훈련장 폐쇄와 국방부 실무협의 과정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미공군 폭격훈련장 폐쇄 요구에 따라 2005년 8월 미군은 쿠니사격장 폐쇄와 미군에서 국방부로 관리전환을 확정했다. 화성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이하 생략)로부터 2009년 2월 발전종합계획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승인을 받았다.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국방부와 토지계약, 소유권 및 사용권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진행하였고,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에 토지매입비 국비(424억 원) 추가 지원 등의 문제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2013년 12월 국방부와 쿠니사격장 부지 취득·처분에 대한 협약 체결 및 협약대금 지급을 시작으로 2014년 5월 토지매입 대상지(면적)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했다. 2014년 12월 국방부와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편입되는 국유재산(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매입비 775억 원(국비 424억 원, 시비 351억 원)을 5회 분납으로 2018년 1월 납부 완료하였고, 2018년 10월 화성시로 소유권 이전 완료했다. 화성시는 2014년 4월 쿠니사격장 내 존치건축물의 보전 및 리모델링 계획을 사유로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국방부에 존치건축물의 무상양여를 요청하였다. 2014년 12월 화성시는 국방부로부터 쿠니사격장 내 존치건축물 6동을 무상양여 받았다.

튼튼한 안보를 구현하는 국방3.0



국 방 부



수신 화성시장(지역개발과장)
(경유)

제목 구. 쿠니스격장 부지 내 지상물 무상양여 통보

1. 관련근거

- 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2조 제7항
나. 대외협력팀-2101(2009.09.16.) 재활동시설 현황 통보 요구
다. 화성시 지역개발과-1243(2009.09.25.) 상기 의견 통보
라. 경기도 화성시 지역개발과-4412(2014.04.14.) 매항리 반환공여구역 토지사용 및 존치건물 무상양여 협의 요청
마. 대외협력팀-1514(2014.12.29.) 국유재산(구. 매항리 사격장) 용도폐지 및 매각 보고
바. 대외협력팀-1518(2014.12.29.) 국유재산(구. 매항리 사격장) 매각대금 납부 통보
사. 화성시 지역개발과-17388(2014.12.31.) 국유재산(구. 쿠니스격장) 매각대금 납부완료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구. 매항리 사격장 반환기지 내 존치건물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무상양여 통보하니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무상양여 대상

- 건물 : 카페 / 체력단련실 1동, 사격장 통제실 1동, 헬륨저장소 1동
장교막사 1동, 숙소 / 식당 1동, 위병소 1개소.

불임 : 구. 쿠니스격장 내 건축물 무상양여 현황 1부. 끝.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원사 남상필 대외협력팀장 유동준 2014. 12. 31.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팀-1540 (2014. 12. 31.) 접수 지역개발과-17451 (2014. 12. 31.)

우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34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대외협력팀 / <http://www.mnd.go.kr>

전화번호 군)900-4525 팩스번호 02-748-4519 / 90ag67oh@mnd.mil / 비공개(5)
일)02-748-4525

개방,소통,협력,통합의 핵심가치로 새로운 국방행정 패러다임을 열어갑니다.

쿠니스격장 부지 내 존치건축물 6동 무상양여 통보 관련 행정문서

출처: 화성시청 제공

2009년 매향리 쿠니사격장 항공사진을 보면 현재 존치되어 있는 6개동 이외 미군이 사용했던 다수의 건축물이 존재하였는데,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국방부에서 시행한 환경오염 정화사업 지장물 철거로 인해 현재 6개동만 존치되어 있다. 반환 이후 토지소유자(국방부) 승인 및 건축물 재실측 및 건축물 용도 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9월 존치건축물 6개동에 대한 등기이전 및 건축물대장 생성을 완료하였다.



매향리 쿠니사격장 2009년 항공사진

출처: 화성시청 제공



매향리 쿠니사격장 2010년 항공사진

■ 건축물대장의 기록 및 관리 항목 관련 규칙 [별지 제7호제표] <개정 2015.7.7>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

장번호: 1 - 1

고유번호: 4159025630-1-01840001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지번	184-1 외 7필지		건축물명칭	군사시설	특이사항
대지면적	23,852 m ²	면적	949.09 m ²	지적	지구	구획	군사시설	
건축면적	926.53 m ²	용적률 산정용 면적	949.09 m ²	건축물 수	6	주용도	교정밀군사시설	
건폐율	3.88 %	용적률	3.98 %	층 고수	세대/호/가구	층 수자 대 수	부속 건축물	등
조경면적	m ²	공개 공간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m ²	건축선후퇴 면적	m ²	건축선후퇴 거리	m	
지하수위	G.L.	기초형식		설계지내적(지내적기초인 경우)	1/m ²	구조설계 제식법		

건 축 물 현 황									
구분	명칭	도로명주소	건축물 주구조	건축물 지붕	층수	용도	면적(m ²)	변동일	변동원인
주1	S-2		시멘트블록구조	슬레이트지붕	1/	군사시설(학병소)		2015.09.10	생성신청
주2	S-20		시멘트블록구조	슬레이트지붕	1/	군사시설(장교학사)		2015.09.10	생성신청
주3	S-5		시멘트블록구조	슬레이트지붕	1/	군사시설(숙소,식당)		2015.09.10	생성신청
주4	S-9		시멘트블록구조	슬레이트지붕	1/	군사시설(기체,체력단련실)		2015.09.10	생성신청
주5	T-10		시멘트블록구조	슬레이트지붕	1/	군사시설(물류저장소)		2015.09.10	생성신청

이 동(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불일치함을 증명합니다.

0042

화성시

공공

2016.03.30

U11001

화성시장

직인

발급일: 2016년 03월 09일

담당자: 송승혜

전 화:

* 이 장은 전체 4페이지 중에 1페이지입니다. (제출용) 297mm×210mm(일반용) 297mm×210mm(제출용) 297mm×210mm(일반용) 297mm×210mm(제출용)

매향리 쿠니사격장 건축물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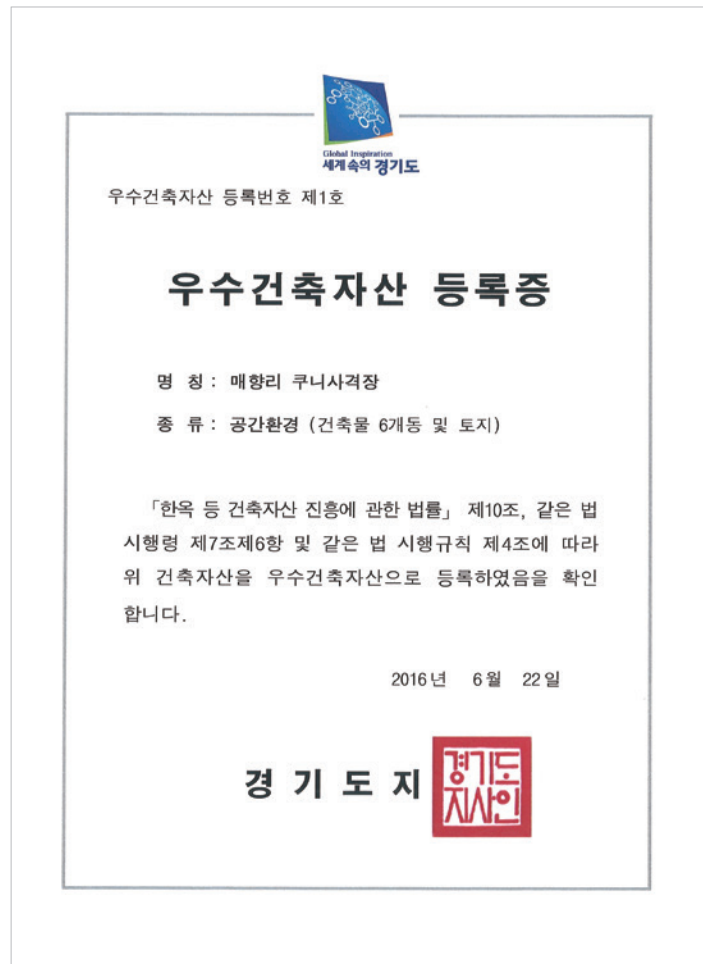
출처: 화성시청 제공

우수건축자산 등록 과정

법 시행 초기 경기도에서 우수건축자산 등록관련 기초조사 및 시행 계획에 대한 등록 요건의 세부기준이 미수립되었으나 신속한 등록을 위해 우선 접수 후 협의를 진행하였다. 2016년 2월 등록권자인 경기도와 사전협의 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경기도에 신청하였다. 2016년 3월 경기도에서는 우수건축자산 등록 협의 보완사항(신청대상 정보 명확히 기재, 건축자산에 관한 문헌자료 및 시각자료, 기초조사서, 토지소유자의 우수건축자산 등록 동의서 등)을 통보하였고, 이후 경기도에서는 문화재청 협의 후 “우수건축자산 등록 검토 시,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등록 필요 여부에 대해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하라는 의견을 받아 2016년 4월 매향리 쿠니사격장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전문가 2명 모두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등록문화재 등록”에 대한 자체검토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 공무원, 주민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2016년 4월 개최)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 시 등록기간 및 행위 제한사항 등을 검토하여, 등록문화재가 아닌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하였다. 매향리 주민과 시민단체는 등록문화재로 등록 시 존치건축물 활용의 제약, 문화재라는 강함 어감 등에 반감을 나타냈으며,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통해 매향리의 역사성 등을 재발견하고 국제적으로 부각시키고자 등록문화재 등록 추진여부에 대하여 ‘부’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

2016년 6월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개별건축물이 아닌 쿠니사격장 미군주둔지 영내 공간환경 전체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재”로 조건부 의결되었다. 국방부의 동의(토지소유자: 국방부)를 받아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마침내 2016년 6월 22일 경기도 제1호로 우수건축자산에 등재되고, 같은 해 7월 건축물대장에 “경기도 우수건축자산 제1호” 표시가 완료되었다.



매향리 쿠니사격장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출처: 화성시청 제공

우수건축 자산으로서 쿠니사격장의 보전·활용 과정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및 평화기념관 설립

지역주민의 적극 참여를 기반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평화”와 “생명”이 옹트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평화기념관, 쿠니사격장 포함)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2013년 4월 23일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무원 5명, 시의원 2명, 주민대표 8명, 시민단체 3명 총 18명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추진협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기 전인 2012년 4월 20일 열린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2021년 10월 8일까지 총 34차례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논의의 대상은 ①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건립 사업 및 정책 방향, ②사업추진에 있어 민·관 협력방안, ③평화생태공원 건립 추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 ④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대민 홍보, ⑤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협력, ⑥그 밖에 평화생태공원 건립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위한 추진사항이다.

세부적으로는 농섬 불발탄 및 오염 제거 등의 환경정화사업에 관한 논의, 매향리 평화예술제 추진방안 논의, 유소년 야구장 조성사업 추진사항 및 화성드림파크 운영계획 등에 대한 논의, 사격장 내 존치 건축물 보전을 위한 개보수 방안 및 활용 용도 논의,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기본구상 용역 및 「매향리 역사·문화, 현대사 백서」 발간 용역 등의 진행상황 보고 등이 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부터 인근 화성드림파크 조성 및 운영관리, 사격장의 보전 및 활용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까지 쿠니사격장을 보전 활용하기 위한 전과정에 걸쳐 추진협의회가 참여하여 진행해왔다.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의 회의 개최 모습

출처: 화성시청 제공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경위

- 2005.8.20. 매항리 쿠니사격장 폐쇄 및 관리전환 확정(미군→국방부)
- 2009.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승인
- 2009.7.31. ~ 2011.12.31. 육상부 환경오염 정화작업 완료
※ 농성 7,934㎡ 중금속, 사격 잔재물 2014.1.24. ~ 2015.7.10.
- 2013.10.24.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관련 중앙투융자 사업 재심사
- 2014.6.23. 매항리 평화생태공원(반환공여구역 공원 100% 변경 추진) 조성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화성시 의회)
- 2015.1.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
- 2015.1.12. 국유재산 사용허가(國→市)
- 2015.9.21. ~ 2016.5.30.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기본구상 및 계획 용역 진행
- 2015.11.30.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고시(매항리 평화생태공원, 종류: 문화공원)
- 2016.3.21.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관련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 2016.6.30.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관련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 2016.12.8.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관련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
- 2017.3.24.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관련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완료
- 2017.8.23.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관련 환경영향평가 완료
- 2017.12.11.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관련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
- 2017.12.26.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실시설계 완료
- 2018.5.30. 매항리 평화기념관 기본설계 완료
- 2018.5.4.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18.5.30.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조성공사 착공
- 2019.3.22. 매항리 평화기념관 관련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및 공용건축물 협의 완료
- 2019.11.29. 매항리 평화기념관 건립공사(건축) 착공
- 2020.7.6.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공사 준공
- 2021.10.12.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관련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2021.10.25.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관련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
- 2022.상반기 매항리 평화기념관 및 존치건축물 전시콘텐츠 제작(예정)
- 2022.하반기 매항리 평화기념관 개관(예정)

사격장 폐쇄 후 반환받은 부지(총면적: 566,968.6㎡) 중 일부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소년 야구장(총 면적: 233,201.2㎡)인 화성드림파크를 2017년 5월에 준공하였고, 그 밖의 부지에는 50여 년간 미군의 폭격훈련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낸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간이자, 매향리에 담긴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며 평화의 소중함을 나누는 공간인 매향리 평화생태공원(면적: 333,767.4㎡)을 2020년 7월 조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화성시는 2015년 9월 도시공원시설(문화공원) 결정 심의가 통과된 이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계획’ 용역을 진행하였다. 쿠니사격장 일대 부지 및 주변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을 발굴 및 잠재적 가치를 재발견하여 자연생태와 문화, 역사, 미래가 함께 어우러지는 평화생태공원의 기본 철학과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격 표적이었던 농섬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제한적으로 방문 가능한 공원 조망 장소로 계획하였다. 미군기지 내 존치건축물이 위치한 곳은 평화정원으로 계획하였다. 장소의 역사를 담아 포탄, 전투기 등을 전시하는 메모리얼 가든을 조성하고, 행사 및 전시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외부 공간으로 쿠니 큰 마당과 작은 마당을 계획하였다. 일부 공간은 ‘매향리’ 장소를 주제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8개의 작가정원을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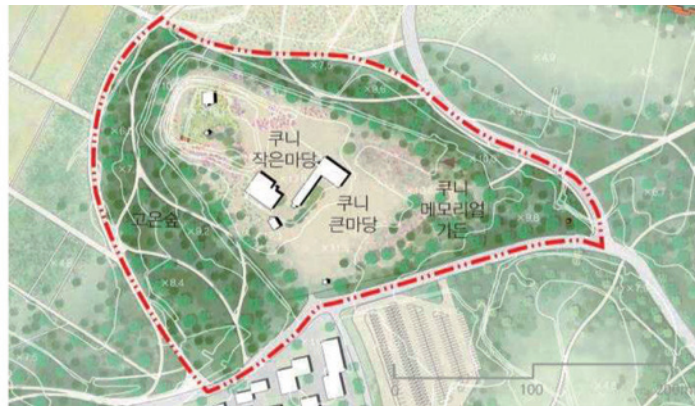
쿠니사격장 주변 일대 개발계획(안)

출처: 화성시청 제공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기본계획 마스터 플랜(2019)

출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16, p.127)



평화정원 공간계획안(2019)

출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16, p.132.)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작가정원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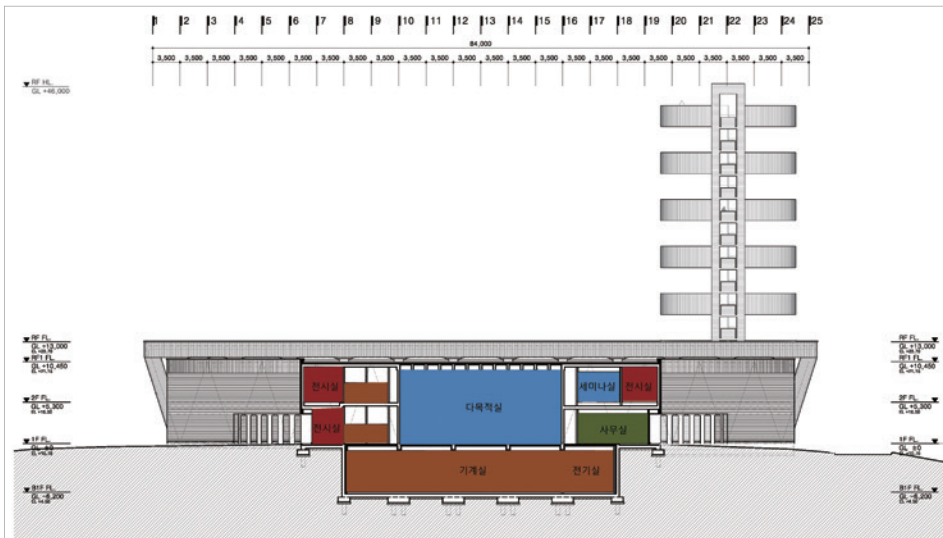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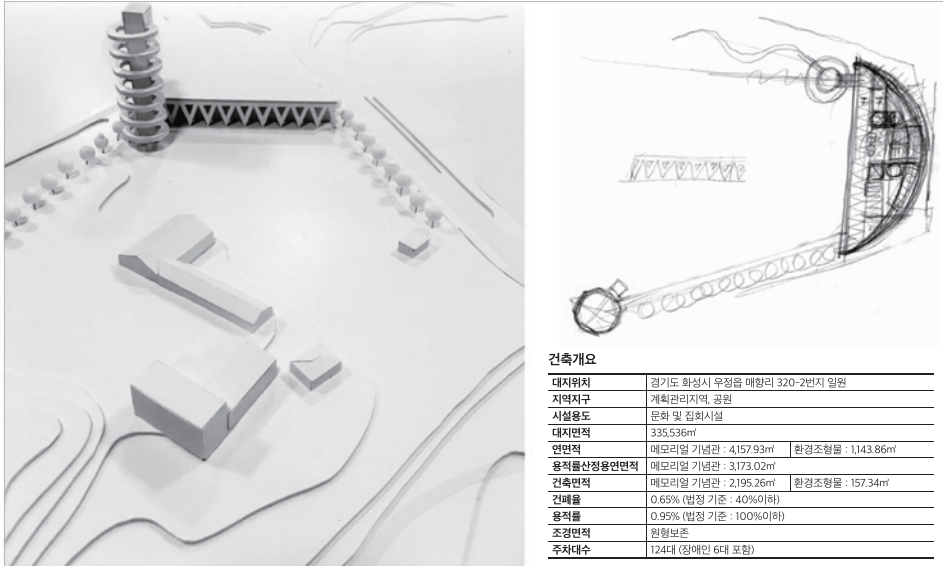
출처: 화성시청 제공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작가정원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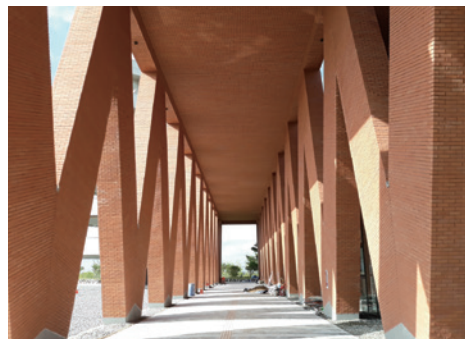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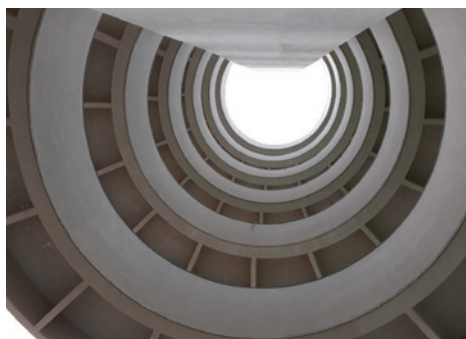
출처: 화성시청 제공

또한, 전체 평화생태공원 부지에서 상징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념관 설립을 계획하였고, 지역 홍보 및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의 작품을 유치하고자 매향리 평화기념관의 기본설계를 의뢰하였다. 매향리 평화기념관은 2019년 11월에 착공하여 2021년 9월 준공되었다.



매향리 평화기념관 설계 스케치(건축가 마리오 보타) 및 입면도

출처: 화성시청 제공



매항리 평화기념관 모습(2021)

출처: 화성시청 제공

존치건축물 등의 기록화 및 1·2차 리모델링사업 추진

매항리 쿠니사격장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면서 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활용계획 수립 이전에 우수건축자산의 현황(역사적, 건축적 등)에 대한 기록화 사업 실시”의 조건이 있었다. 미공군 전용 폭격장에서 매항리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되기까지 약 60여 년의 쿠니사격장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및 기록하고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1여 년에 걸쳐 기록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매항리의 역사·문화, 현대사 백서’를 발간하였다. 미군 폭격에 따른 소음과 오폐수로 인한 매항리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 공여구역 반환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노력을 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해 기록하였다.

쿠니사격장 존치건축물 리모델링(1차)을 위해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8월 존치건축물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행위신고(리모델링)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경기도에 신청하였다. 경기도에서는 건축자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여 지도·권고사항(개선방안) 의견을 회신하였다. 전문가가 주요 지도·권고사항(개선방안)은 존치건축물의 상태, 특징 등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안으로 리모델링



매항리의 역사·문화, 현대사 백서 표지 및 내지 일부

출처: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2017, p.57, p.156.)

하여 해당 우수건축자산의 역사적 가치를 보호하는 방향이었다. 화성시는 자문 조치계획에 “자문의견을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제출하여 2017년 11월 행위신고 처리되었다. 쿠니사격장 존치건축물 내·외부 구조 변경 없이 노후·파손된 시설물 보수, 조경계획 제외, 전기 및 소방시설물 추가 설치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2018년 3월 쿠니사격장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0월 준공 완료하였다. 2018년 12월 기존 건축물 활용과 대지 내 평화기념관 신축 및 조경공사의 사유로 2차 우수건축자산 행위신고를 경기도에 신청하였다. 관련 전문가 현장자문을 거쳐 2019년 1월 매향리 평화기념관 건립 및 기존 건축물 활용방안에 대해 2차 우수건축자산 행위신고 처리되었다.



쿠니사격장 보전활용 계획도

출처: 화성시청 제공

문화재생사업 선정 및 현재 진행 과정

화성시는 쿠니사격장의 보전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관련 예산 지원방안을 모색하던 중 지역에 산재한 유헴시설 중 활용 가능하고 문화재생이 시급한 사업대상지를 발굴 및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2021년 7월 매향리 쿠니사격장을 신청하였다. 같은 해 8월 최종 선정되어 국비 11억 1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문화진흥원에서 2019년 11월과 12월에 1, 2차 현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2020년 5월 유헴공간 문화재생사업 연구용역을 완료하였다. 화성시는 매향리 쿠니사격장의 보전 활용을 통해 문화와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문화재생사업으로 다시 살아난 기억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특화된 문화기반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Ⅱ 쿠니사격장 활용계획(안)

- 쿠니사격장 내·외부 형태 및 색상 등 본래 모습 최대한 유지
- 쿠니사격장 내부 방문객의 체험·휴식 기능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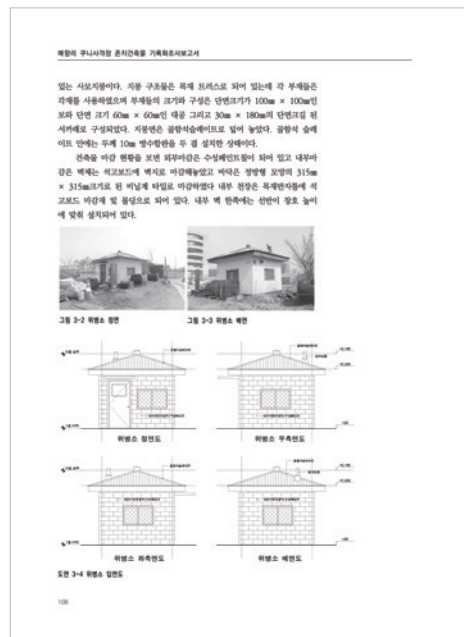
‘유헴공간 문화재생사업’에서 발표한 매향리 쿠니사격장 활용계획안

출처 : 화성시청 제공

2020년 8월 기존 건축물 내부 활용 및 공간환경 개선 공사(조경)의 사유로 3차 우수건축자산 행위신고를 경기도에 신청하였다. 관련 전문가 현장자문을 거쳐 2020년 9월 기존 건축물의 활용과 공간환경 개선 공사에 대해 3차 우수건축자산 행위신고 처리되었다. 3차 우수건축자산 행위신고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당시의 재료마감, 가구 등 기존 도면의 정밀한 작성, 해당 건축자산의 현황 및 개보수에 대해 기록”하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화성시는 매항리 쿠니사격장 존치건축물 기록화 용역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진행하였다. 이후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존치건축물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2021년 3월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매항리 쿠니사격장 존치건축물 기록화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지 일부
출처 : 화성시청(2021, p.108, p.128.)



또한, 2021년 2월 19일 화성시청 내 담당부서에 존치건축물 6동에 대한 안전관리자문을 신청하였다. 기초 구조 및 조적벽체가 건설하여 존치건축물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리모델링하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 다만 '노후화가 심한 지붕과 창호, 출입문 등의 교체를 권장한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

"가분결은 반박 불허함"


화 성 시



수신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장(지역개발과장)
(공무)

제출 안전관리자문 점검 결과 실행(추경음 태행리 산157-4번지 일괄)

1. 지역개발과-1776(2021.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부서의 안전관리자문 산출에 따라 「화성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8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후리 서 추경음 태행리 산157-4번지 일괄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자문 점검 결과를 실행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관리자문 의견서 1부. 함.

화 성 시


주무관	과장	안전관리담당	안전관리담당	2021.02.19. 15:23
홍승기				김민준
시행 안전관리과-4168	(2021.2.25.)	주소 지역개발과-2554	(2021.2.25.)	
주 1102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사정로 159, 4층 안전관리과	/ http://www.hwasung.go.kr		
전화번호 031-5191-5442	팩스번호 031-5191-1515	/ hwasung@hwasung.go.kr		/ 화성시(152)
발행처: 화성시 도시개발과 안전관리과				

안전관리자문서 (태행리쿠니스격장)

■ 현 장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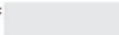

○ 일 시 : 2021.02.19.(금)

○ 위 치 : 화성시 우정읍

■ 자문 의견

. 1951년경에 건축되어 미군사시설로 사용하던 6개동의 건축물로 2005년경 사격장 폐쇄 후 현재까지 원형대로 존치되어 있으며 조적조 벽체위 함석지붕 구조로 되어 있음.

1. 건축물의 벽체는 조적조로서 오랜 세월이 경과 되었지만 상당히 건실한 상태이며, 기초구조체의 변형이나 철근콘크리트 발간되지 않고 있음.
2. 골 합성으로 되어있는 지붕은 녹발생 등 노후화가 심하여 리모델링시 유사한 재료로 교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
3. 창호 및 출입문도 노후화가 심하여 교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
4. 사격장제로 건축물의 난간 철구조를 또한 녹발생이 심하고 철거한 후 재시공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 전반적으로 기초구조 및 조적벽체가 건실하므로 원형을 유지하는 형태로 리모델링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됨.

자문위원 :  

안전관리자문 점검 신청 및 결과 관련 행정문서

출처 : 화성시청 제공

그밖에도 쿠니사격장 존치건축물 및 매향리 평화기념관 활용을 위한 콘텐츠를 구상하고자 2019년 (주)공공프리즘에서 ‘화성시 (구)매향리 쿠니사격장 기본구상방안 연구’, 2021년 2월 한국기업평가원에서 ‘매향리 평화기념관 전시·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희공간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서 한동안 중단되었던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체를 재개하여 존치건축물 및 평화기념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운영 등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매향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또한,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본 단행본의 발간을 진행하면서 도출한 쿠니사격장의 우수건축자산으로서의 주요 가치를 2차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관련 내용을 수정 보완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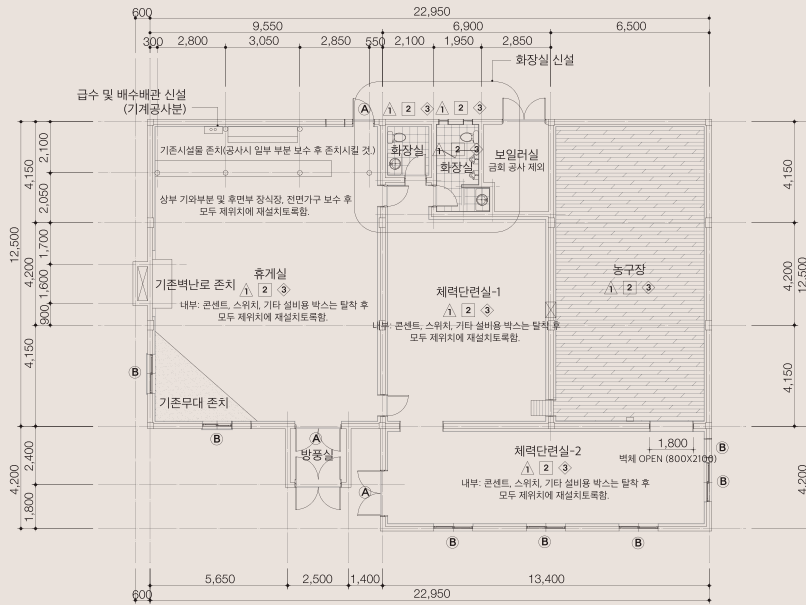
참고문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계획. 화성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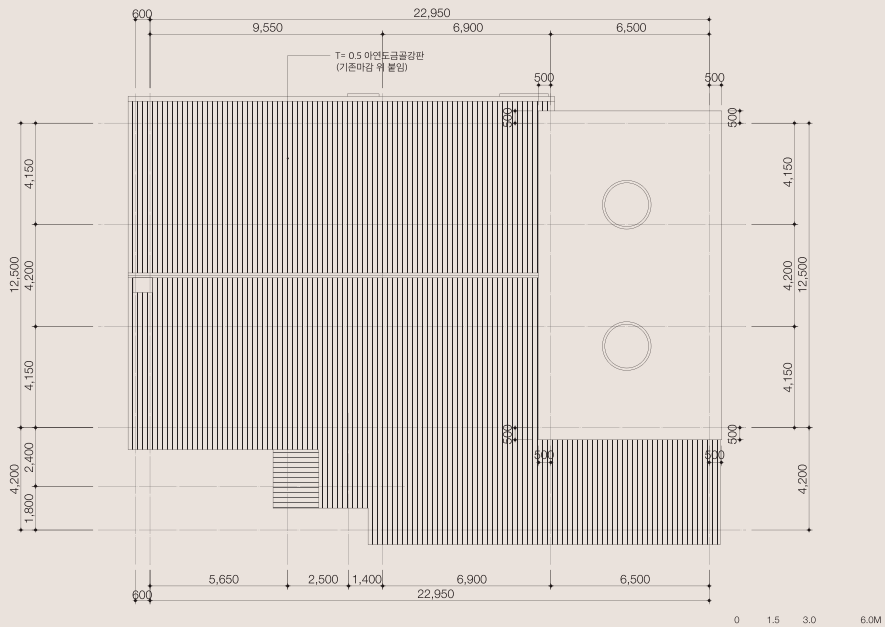
(주)공공프리즘. (2019). 화성시 (구)매향리 쿠니사격장 기본구상방안 연구. 화성시.

화성시. (2021). 매향리 쿠니사격장 존치건축물 기록화조사보고서.

카페 및 체력단련실 1층 평면도(3차 리모델링)



카페 및 체력단련실 지붕평면도(3차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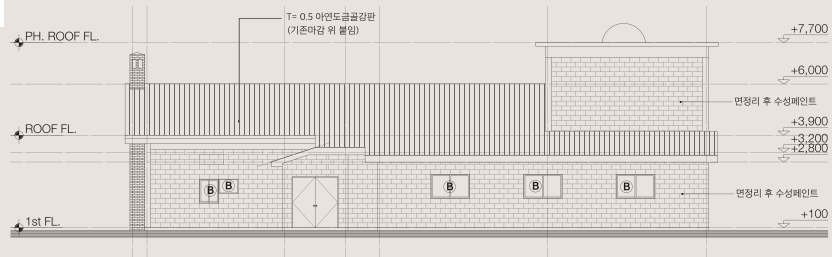


출처: 화성시청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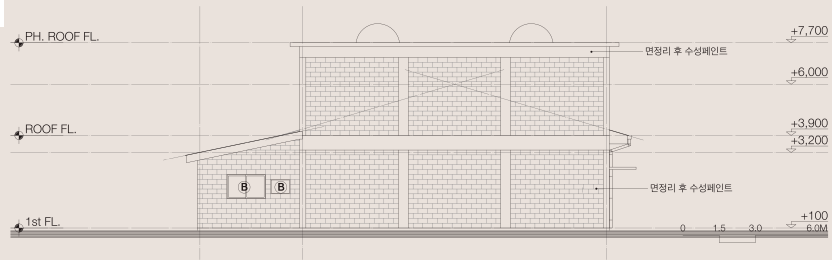
0 1.5 3.0 6.0M

카페 및 체력단련실 입면도(3차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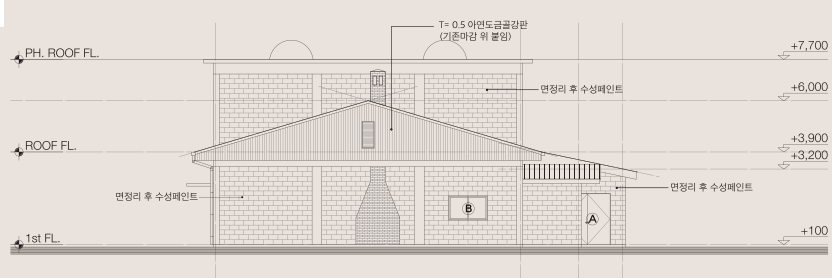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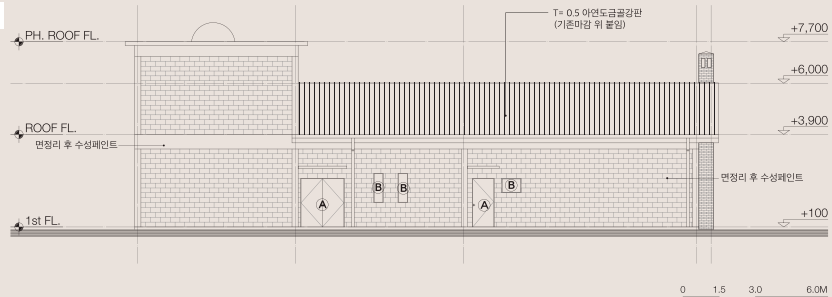
우측면도



좌측면도



배면도



(우수건축자산 이야기)

V

**쿠니사격장,
우수건축자산으로서의
전망과 과제**

쿠니사격장, 우수건축자산으로서의 전망과 과제

매향리 쿠니사격장 보전과 활용의 어려움

매향리 쿠니사격장은 1950년대부터 2021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우 특별한 역사를 갖고 있다. 한국전쟁의 혼란기에 우리나라의 절대적 우방 국가인 미국에서 공군 폭격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 폭격장이 2005년까지 지속되었다. 50년 이상 우리나라 국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미군이 훈련을 목적으로 폭격을 했던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전쟁, 냉전, 독재와 같은 한국 현대사의 불행한 역사가 매향리 쿠니사격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하다. 매향리 주민들은 1980년대부터 피해보상과 부지반환 운동을 시작했다. 20년이 넘는 투쟁 끝에 일부 피해에 대해 보상도 이루어지고, 미군 소유의 부지도 국방부를 거쳐 화성시로 반환되었다. 해방이후 매향리에서 살아 온 주민들에게 쿠니사격장은 너무도 가혹한 아픔의 공간이고, 앞으로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전환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제1호 우수건축자산인 매향리 쿠니사격장은 이처럼 한국 근현대사의 무거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 우수건축자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너무 어려운 대상지가 선정된 측면도 있다. 주민들의 피해와 기억을 공간에 담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이를 위해서 주민들과 차근차근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은 얼마나 오랜 시

간이 걸릴 일인가. 매향리 쿠니사격장의 부지를 화성시에서 매입했지만, 활용을 위해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어려운 문제가 겹겹히 쌓여 있어서 쿠니사격장의 보전과 활용은 애초부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다. 우수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이 모두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서울시의 1호 우수건축자산인 체부동 성결교회는 2015년 서울시에 매입하여 2017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고,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여 2019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매입과 우수건축자산 등록, 리모델링과 운영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지 않았겠지만, 매향리 쿠니사격장의 50년 넘는 주민들의 피해의 역사에 비하면 마치 일사천리와 같은 사업의 추진이다.

우수건축자산의 심층조사와 가치 확인

매향리 쿠니사격장이 일반적인 우수건축자산과는 다른 매우 특별한 우수건축자산이지만, 우수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진행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다른 우수건축자산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결과의 파급효과가 더욱 클 것을 고려하면 다른 우수건축자산보다도 보전과 활용의 프로세스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거나 단순히 리모델링을 할 때의 일반적인 순서는 [현장조사]-[기획]-[실행]의 순서이다. 우수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도 마찬가지다. 우수건축자산의 보전 대상을 확인하고 활용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수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조사는 건축자산 기초조사와는 다르다.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건축물의 외관과 건축물대장 정보 정도를 확인하고, 건축자산의 현황과 함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기록하는 수준이다.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해당 건축자산의 정확한 가치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을 법한 건축자산을 선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매향리 쿠니사격장의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위해 시행한 ‘건축자산 기초조사 결과표’를 보면, 특징 및 주요 가치로서 “1950년대 주둔미군부대 내부의 모습이 거의 원형으로 보

존되어 있어 그 당시 주둔 미군의 생활상을 알 수 있으며, 60년대 군사기지의 건축방법, 건축재료 및 구조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주요 보전 부분은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건축자산적 가치로서 역사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가치에 체크되어 있다. 기초조사 결과표가 부실한 것이 아니라 기초조사의 수준에서는 이 정도의 조사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쿠니사격장의 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는 경우가 좀 다르다. 우수건축자산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자산의 가치가 규명되어야 한다. 조사를 통해 건축자산의 가치가 확인되어야만 가치를 기반으로 보전도 하고 활용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쿠니사격장의 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생각하는 대상의 주요 가치를 기록하는 등록신청 사유로서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만들어져 주한미군의 공군폭격훈련장으로 사용되어 2005년 8월 12일 사용종료일 까지 오폭의 불안, 주택파괴, 소음 등의 피해와 혈값에 넘겨진 민간재산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1988년부터 2005년까지 끊임없는 승소와 청원으로 결국 대법원이 주민의 손을 들어 준 사례가 되었으며, 돌려받은 부지를 평화 공원으로 조성하여 미래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 건축물들은 근대 한국 역사를 고증하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가치가 언급된 부분은 “근대 한국 역사를 고증하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건축자산의 가치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우수건축자산의 가치 기준인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예술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어야 하는데, 우수건축자산을 등록할 때에는 이러한 가치를 기술할 정도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 한국 등 건축자신의 전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출판연도	작성일자	제정일자/년월	일련 번호
신 청 인	성명 또는 기관명 허삼시장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전화번호: 1577-4200)	생년월일	
등록 신청대상	영점 매장의 사적사항(영업 부사식량) 건축물 유형 [√] 간축물 [] 농수산관 [] 가시설 종류 용도의 사적사항의 미충족을 부대시설로서 관사, 식당, 휴게시설, 화장대, 위생소, 창고 존재 소재지서 경기도 화성시 매곡동 신 157 의 4 동 4호 구조형식 벽돌조		
	규모 대지면적(m^2) 연면적(m^2)	간축면적(m^2) 층수(지상/지하)	
	기타 기록을 표시할 수 있는 주석		
	[신입인원 생지하는 대상의 주소 기재]		
	등록신청에 따라 입찰하여 주민간의 공동주택관리조합을 사용되어 2005년 8월 12일 사용승인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체육공원, 소공원등이 포함된 일대만 넓어진 민간건물이 대외적으로 대하여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점유되는 장소로서 황천교로 국대 대한의원 주위로는 큰골은 물론이든 시계; 역역으로, 들어있는 주차를 왕복 광화문로 조성하여 의해 여러 고대의 장으로 활용될 계획이며 이 건축물을 근대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등록신청 사 유			
그 밖의 사항			

신형원 한성시황 (서명 또는 인)

실험인	최저가공 {시 + 도자시}	최저가공 {시 + 도자시}	최저가공 {시 + 도자시}
	210mm × 297mm [백상지 (80g/㎡) 또는 종일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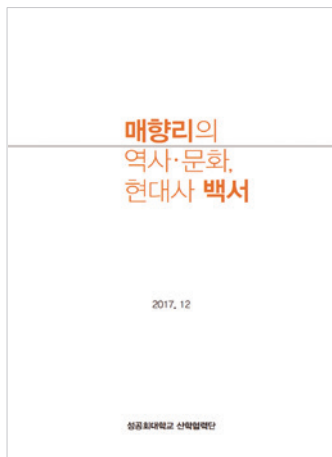
출처: 경기도청 제공

쿠니사격장의 조사와 가치 확인

화성시와 경기도의 노력으로 쿠니사격장은 2016년 6월 전국에서 최초로 우수건축자산에 등록되었다. 화성시와 경기도에서 워낙 사업 추진의 의지가 강했고, 첫 우수건축자산인 만큼 쿠니사격장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 크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여전히 우수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는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우수건축자산 등록 이후 쿠니사격장에 대한 몇 차례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가장 의미있는 조사는 2017년의 「매향리의 역사·문화, 현대사 백서」 발간 작업이다.¹ ‘쿠니사격장과 매향리 주민의 삶’, ‘1988년 이후 매향리, 그 투쟁의 역사’, ‘쿠니사격장 폐쇄와 주민 삶의 변화’와 같은 장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2017년 매향리 백서에서 처음으로 쿠니사격장과 주민의 삶, 주민의 투쟁사 등이 조사되고 기록되었다. 비로소 쿠니사격장의 역사적 가치가 규명되기 시작한 것이고, 쿠니사격장의 보전과 활용에 있어 매향리 주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게 된 조사라 할 수 있다.

매향리 백서 이후 여전히 물리적인 건축물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시행되지 않다가 2020년에 비로소 「매향리 쿠니사격장 존치건축물 기록화조사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문화재 실측과 조사를 전문으로 업체에서 잔존건축물 6동의 실측을 통한 건축도면 작성과 사진촬영을 중심으로 기록화하였다. 이 기록화조사보고서는 쿠니사격장의 건축적 조사를 통해 충실하게 현황의 기록을 남겼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쿠니사격장의 구체적인 가치를 확인하고 보전과 활용의 방법론을 도출하기 위해 가치를 명확하게 기술하는 수준까지는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매향리 백서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와 기억을 기록했다면, 기록화조사를 통해서도 쿠니사격장의 배치와 건물의 재료, 구조, 공간구성, 설비기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보전의 가치가 기술되어야 했다. 또한 이를 통해 보전 대상과 보전의 방법, 더 나아가 활용의 방법까지도 제안할 수 있다. 그러한 쿠니사격장의 가치에



「매항리의 역사·문화, 현대사 백서」(2017) 표지



「매항리 쿠니사격장 존치건축물 기록화조사보고서」(2021) 표지

대해서는 이 책의 3장에서 이연경 교수가 현장과 기록화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술하였다. 조금 늦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책에서 기술하는 쿠니사격장의 가치와 보전 방법의 제안을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하였고, 현재 리모델링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용역 기간을 늘려서라도 우리의 제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쿠니사격장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시점에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의 확인이 늦어지게 되었고, 보전과 활용의 시점에 와서야 가치 확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사례이다. 한번 순서가 틀어지면 이를 바로 잡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제대로 바로잡기는 사실 매우 어렵다.

쿠니사격장의 활용 계획

건축자산을 조사해서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는 이유는 결국 건축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건축자산을 보전하는 것도 활용의 한 방법으로서 건축자산의 특별한 가치를 잘 드러내려는 의도이다. 따라서 건

축자산을 활용하는 기획 작업은 어렵게 조사를 통해 보전과 활용의 방향을 설정한 이후 활용의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실행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쿠니사격장은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단계에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자산의 가치에 기반한 기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웠다. 2016년에 수립한 「매향리 평화공원 기본구상 및 계획」은 우수건축자산 등록이 추진되기 이전이었고 매향리 백서도 발간되기 이전에 진행된 기본구상이다.² 이때는 아마도 매향리의 역사성보다는 생태를 강조하는 공원을 계획하기로 구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6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이 되고 2017년 매향리 백서가 발간이 된 이후에도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 주민의 피해와 기억을 담는 공간으로는 계획되지 못했다. 2017년 화성시에서 쿠니사격장의 컷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였지만,³ 우수건축자산의 행위신고를 위해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면서 잔존 건축물의 기록을 통해 역사성과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면 수정의 의견을 받게 된다. 화성시에서는 우수건축자산이 걸림돌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보전과 활용을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후에도 존치건축물의 활용에 대해 설계와 행위신고를 시도하였지만, 화생태공원의 전체 마스터플랜이 쿠니사격장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현상 유지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⁴

현재 쿠니사격장은 평화기념관이 마리오 보타의 설계로 진행되어 준공까지 완료하였고,⁵ 전시와 교육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의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⁶ 또한 쿠니사

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16)

3 화성시(2017)

4 화성시(2018a)

5 화성시(2018b)

6 한국기업평가원(2021)

7 ㈜공공프리즘(2020)

격장의 보전과 활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⁷ 화성시에서 쿠니사격장을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데에 격려와 응원을 보내면서, 성공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쿠니사격장의 마스터플랜의 기획에 대해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한다. 아직 전체 마스터플랜은 2016년의 계획에서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쿠니사격장의 역사적 가치와 건축적 가치를 고려하여 매향리의 평화생태공원이 우수건축자산으로서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 현재의 단계에서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은 잔존건축물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기획과 외부공간의 활용 기획이다. 잔존건축물의 가치 규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쿠니사격장에 대한 장소의 기억과 추모의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외부 공간은 형식적이거나 일반적인 조경 설계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쿠니사격장이 단순히 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한국 근현대의 역사적 현장을 찾아오고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으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매향리 평화공원 기본구상 및 계획. 화성시.
-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2017). 매향리의 역사·문화, 현대사 백서. 화성시.
- (주)공공프리즘. (2020).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희망 대상지 기본구상방안 연구. 화성시.
- 한국기업평가원. (2021). 매향리 평화기념관 전시·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 화성시.
- 화성시. (2017). 매향리 쿠니사격장 존치건축물 리모델링 디자인 개발용역.
- 화성시. (2018a). 쿠니사격장 존치건물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 화성시. (2018b). 매향리 평화기념관 조성사업 설계.

(우수건축자산 이야기)

쿠니사격장 사진









© 김성민

5-2

5-2

5-2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우수건축자산 이야기

매향리 쿠니사격장

발행일	2021년 12월 31일
펴낸이	이영범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문화자산센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43, KT&G세종타워B 8층 https://auri.re.kr https://aac.auri.re.kr
지은이	이규철, 이세진, 이연경, 김용한·전만규, 김웅기·박민수, 김기웅
책임편집	이규철
편집	이세진
디자인·제작	세일포커스(주)
출판등록	제2015-41호(등록일 '08.2.18.)
ISBN	979-11-5659-360-7
비매품	

© 2021,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문화자산센터

이 책의 저작권은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문화자산센터에 있으며, 비매품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KOON-NI BOMBING RANGE

매향리 쿠니사격장



비매품

93540



9 791156 593607

ISBN 979-11-5659-360-7